한인 2 세 청년을 중심으로 한 다원시대의 생명 · 문화적 영성의 탐구

THE RECONCILING SPIRITUALITY OF LIFE AND CULTURE ORIENTED COMMNITY

-CENTERED ON A YOUNG ADULT COMMUNITY

OF THE SECOND GENERATION OF KOREAN AMERICANS

By

Sim, Jae Sung

A DEMONSTRATION PROJECT

Submitted to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Colorado Springs, Colorado

2010

The Korean Christianity

Christianity embraces many different definitions and points of view. This signifies that human races in all different spectrums have been greatly influenced by the divine attribute of Christianity. However, if the core value of Christian faith is not practiced, the Christian spirituality would be meaningless.

The heart of Christianity is Jesus Christ himself. Two thousand years ago, he came to live among us and gave good news to the world as God's messenger of love and finally sacrificed his own life on the cross for our salvation. So is the reason that Jesus Christ is the Gospel itself.

The world has gone through many changes and convulsions since then.

The Gospel has been interpreted from the perspective of changing times and circumstances. It is inevitable to raise questions about how we can offer an effective spiritual guidance to the youngsters living among the Korean immigrant societies. It is my earnest hope that only the Christian spirituality should be the guiding post for their endeavor to become Christ's disciples in the future.

The Bible is the very foundation of our Christian faith. The Bible only is, no doubt, the original starting point of Christianity, in which its practical relevance to the reality of our lives is amply manifested.

Therefore, the spirituality of Christianity should be perceived in terms of our relationship with God. The Almighty God as the creator as well as the ultimate judge revealed Himself to us throughout the Holy Scriptures. Ever since we have not been able to perceive Him, separate from our co-relationships with Him, with ourselves and with our neighbors.

Christianity was founded on reality. God made the Israelites His chosen people and laid down in the Old Testament the laws and covenants for them to observe. The historical truth of *Incarnated Godhead*-God became flesh like us to dwell among us-was the astounding event of *Immanuel.* That our profound realization that 'God lives with us' should be the core of the Christian spirituality. So is the reason that we are humbled to experience the grace from the God-the creator and savior.

The spirit of Christianity is manifested in its application to our real lives. It was evident that the laws and covenants in Leviticus and Deuteronomy emphasized *life application*. Jesus Christ himself was the best example of putting religious doctrine into practice. Christ set the example of the life application by curing the invalids, exorcizing the demon possessed, and sharing community fellowship with his disciples to establish the Kingdom of God on earth and eventually sacrificed his own life to save the mankind from eternal damnation. The gospel

teaching in 'James', which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application of faith to real life, was well reflected in the religious fervor of the first century Christians.

Christianity has been evolving continually, impacted by the sociological, political upheavals with humanistic perception. As the Gospel spread throughout the Roman Empire from Israel, Christianity was under the philosophical influence of the Hellenistic dualism and later was subject to the political influence when the Romans adopted Christianity as their national religion. Thus, the Christian spirituality evolved into the close relationship with political and economical reality, veering off from the relationship with God and with neighboring communities, embracing the secular reality evading its transformative mission. Salvation by virtue of faith and the glorification of resurrection had become its center piece rather than the devotion to the cross with obedience to God's will. Despite the monastic and Reformation movements to restore the spirituality of Christianity, secularism has become prevailing force pervading the contemporary Christian world.

As Korea opened her door to evangelization, the western missionaries had to cope with the deeply ingrained traditional religions such as Confucianism, Buddhism, and shamanism. During the tumultuous times when the Korean sovereignty was violated by the Big Powers and the eventual forced annexation to Japan as its colony, the Korean converts to Christianity had to compromise with the harshness of political reality, which contributed to the forming of a typical characteristic of the Korean Christianity: individualistic tendency to complacency and evasion of reality.

During the mid-70's when Korea leaped forward with economic development, it was fashionable for the Korean Christianity to put stress on the personal and material success resorting to prayers seeking God's blessings for the welfare of the faithful. Their priority was misdirected from the principle doctrine of the cross and dedication to serve neighbors.

At the juncture of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evangelization, it was inevitable for the Korean Christianity to experience deep reflection and penitence, confronted with a stagnant, retrogressing trend in furthering faith development.

The Korean Christian community in America is traced its root to its Korean origin. Especially secularism focusing on material blessings, compounded with the mushrooming phenomenon of Korean churches is now faced with a serious challenge for change. Therefore, it is imperative to train and discipline the young Korean Christians in the context of their mission to church community and society.

Church and home should play the central role in training our Christian youngsters. Despite the cultural and language barriers, our home should be a place to develop their identity in

their endeavor to nurture their faith. We cannot over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the Korean churches when it comes to the issue of strengthening the faith of our second generation Korean-Americans.

It is our duty to cultivate the mindset of the Korean youngsters so that they might advance vigorously the life application principle of the Biblical teachings in an effort to serve their neighboring communities. Their strife should also be focused on the harmonious relationships with the multi-cultural aspects of the American society. On this principle alone, we believe, our youngsters can become genuine practitioners of the Christian faith.

The Korean youths will not develop the Christian faith by themselves. They will face difficulties in serving the neighbors and sharing common values among different cultural and ethnic groups. They may be confused on the difference between idealism and reality. Practice does not always warrant the achievement of their goal. They need a constant prodding from us. We adult should offer a thoughtful guidance to them so that they may evolve into genuine practitioners of faith.

I conclude my point with an earnest prayer that our second generation Christians may all become a little Christ, adequately matured to fulfill their mission of applying the teachings of Christ to a healthy practice so they may enjoy a blessed life as young Christians.

기독교 영성은 다양한 정의와 관점을 내포한다. 이 다양성은 기독교 영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나타난 영성에서 기독교 신앙이 핵심이 빠진다면 결코 기독교 영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2 천년 전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 분의 삶이며 그 분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고난의 십자가며 영원한 생명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비움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다.

이 복음은 전해지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새롭게 해석되어야 한다. 다원화된 시대 이민자로 살아가는 한인 이민 청년들에게 필요한 영성은 무엇인지 묻는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이들이 영성을 통해 미래사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본 논고는 기독교 영성에 대한 근거를 성서에 국한한다. 성서는 기독교 신앙의 원초적인 출발점이요 근거이기 때문이다. 성서에서 나타난 기독교 영성의 특징은 관계적이며 현실적이고 실천적이라는 것이다.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한다. 영성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한다. 창조주이며 심판자인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알게 하신 것으로부터 기독교 영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영성은 관계적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영성은 존재하는 것이다.

기독교 영성은 현실적이다.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을 통해 현실의 삶에 대한 규례와 의무를 정하고 계신다.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나게 하신다. 또한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임마누엘 사건, 그 자체가 영성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현실이해가 영성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영성은 위대한 창조주와 은혜의 구세주를 오늘의 삶에서 동행하며 경험하는 삶이다.

기독교 영성은 실천적이다. 현실에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연대는 실천으로 나타난다.

레위기법전과 신명기법전 같은 구약의 법전은 실천을 명시하고 있다. 예수님은 그의 온 삶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예배와 말씀뿐 아니라 치유와 축귀와 교제를 실천하여 기독교 영성의 모범이 되셨다. 예수의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과 목숨까지도 포기했다. 믿음은 행동으로 완성되어야 한다는 야고보서는 초대교회의 신앙적 가치관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성서의 영성은 사회적 상황, 정치적 상황, 인간적 이해와 맞물려 역사속에서 변화되고재해석되었다. 이스라엘에서 로마의 문화권으로 복음이 확산되면서 희랍철학의 이분법적 영향을 받았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기독교 영성을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가 아닌 정치적 경제적 관계로 바꾸었고이 땅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사후과 피안의 나라로 바꾸었다. 현실의 변혁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는 세력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십자가보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부활의 영광이 신앙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수도원 운동과 종교개혁을 통하여 본래적 성서적 영성을 회복하고 계승하려는 노력이 있어왔지만 전체적으로는 세속화되는 길을 걸어왔다.

복음은 한국적 상황에서 재해석 되어진다. 유교문화가 생활습관을 지배하고 불교와 샤머니즘적인 종교적 심성 위에 심겨진 근본주의에 바탕을 둔 선교사들의 복음은 구 한말의 서구 열강의 침탈과 한일 합방을 통해 국운을 빼앗기는 정치 외교적 상황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을 통해 개인적이고 신비적이며 현실도피적인 한국교회 기독교 영성의 특성을 형성했다. 나아가 70 년대 이후 경제개발의 시기에 성공과 축복을 강조하는 부흥운동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기는 했지만 십자가와 섬김의 모습은 부족한 영성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편향된 영성은 복음전래 100 주년을 넘기면서 기독교가 정체하거나 퇴보하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여 깊은 자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한인 이민자 공동체는 한국적 영성의 모태 위에 형성되었다. 교회 난립과 분립, 그리고 기복적이고 현세적인 신앙으로 인해 이민공동체에서 교회의 위상도 크게 도전받고 있다. 이민 100 주년을 지나면서 교회와 신앙, 사회와 신앙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새로운 한인 이민자 영성에 대한 이해와 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별히 1 세와 달리 미국에서 나서 자란 2 세 이후의 공동체에서는 이러한 요구는 더욱 절실하다.

한인 이민자 청년의 새로운 영성의 모태는 교회와 가정이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청소년기의 정체성 형성의 가장 기본적인 장이며 신앙을 생활화하는 자리이다. 교회는 가정이 신앙의 자리기 되도록 노력하고 건강한 가정속에서 2 세 청년들이 올바르고 활동적인 신앙적 영성을 형성하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노력은 구체적 삶의 현장에서 실천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다른 인종과 문화를 가진 다문화속에서는 연대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 실천적 나눔과 섬김, 그리고 차이를 넘어선 연대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며 경험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인 2 세 청년공동체는 다원문화사회인 미국과 미래 사회에서 기독교 영성의 실천자가 될 수 있다.

이민 청년들은 저절로 신앙적이 되지 않는다. 섬김과 연대를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지 못한다. 이상과 현실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계획과 실천의 차이도 있다. 그러나 바른 방향과 실천은 점진적으로 성취를 이루어 갈 것이다. 이 글을 통해 제시된 방향과 실천을 통해 한인 1 세 이민자의 2 세들에 대한 높은 기대와 관심이 다문화 사회와 새로운 세대에 합당한 영성의 형성과 실천을 통해 열매로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한국 이민 2 세 청년들이 다문화시대에 화해와 섬김을 통해 이 땅의 작은 그리스도로 성장해 가기를 기대하며 글을

마친다.

ACKNOWLEDGEMENTS

이민목회자로 부름을 받아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현장에 대해 신학적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번 공부를 통해 목회 현장과 신학적 고민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정리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전하도록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는 부모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 교회를 섬기며 이제 그 남은 십자가를 지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는 아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늘 사위를 위해 기도해 주신 장모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가족 이상으로 격려해주시고 기도해 주신 라찬국장로님과 라로리권사님 그리고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는 뉴욕한인제일교회 청년들과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새생명교회 교우들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중도에 낙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어진 과제를 마치도록 격려 해주시며 끌어주신 NYTS 의 백창건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의 목회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묵묵히 지원하는 아내 홍혜균과 사랑하는 영보와 영은에게 남편이요 아빠로서 미안한 마음과 더불어 고마움을 전합니다.

한인 이민자로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의 아픔과 눈물이 씨앗이 되어 세계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믿음의 시대를 만들어내는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그 소명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한인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0 년 5 월 Rocky Mountain 자락 Colorado Springs 에서

심 재성

목　　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한인 이민역사

1 한인이민의 과거와 현재

2003년은 한인 이민 백주년이 되는 해였다.[1] 한인 이민 공동체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한인들은 Korean-American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다원화된 미국 사회의 새로운 주역이 될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한인 이민 2세기를 시작하였다. 한인 이민사는 백년 전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자로 미국에 정착한 이민자들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들이 한국에서부터 가져온 기독교 신앙을 중심으로 한 신앙의 역사[2]이다. 이제 이민 2세기는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Korean -American 2세들과 새로운 기독교 신앙과 문화라는 기초 위에 새롭게 쓰여질 것이다. 지난 이민 1세기의 경험을 토대로 성공적인 이민 2세기를 열어가려면 첫째, 이민 2세인 Korean-American들이 한인 이민 사회와 미주류 사회의 주역으로 자리 매김을 해야 한다. 둘째로 초기 이민자들의 정신적 윤리적 기준이며 바탕이었던 기독교 신앙의 전통이 새롭게 확대 계승되어야 한다.

---

[1] 한인 이민의 기원에 대해 18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는 설과 개인 자격의 이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1903년의 하와이 이주를 한인의 미국 이민의 기점으로 인정하고 있다

[2] 인천 내리 교회에 미연합교회의 존슨 선교사에 의해 초기 노동자들이 모집되었고 103명 중에 54명의 기독교인이 이들의 중심이 되었다.

이러한 당면한 과제 앞의 한인 이민 사회에는 한국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1세대와 미국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2세대간에 리더십의 세대 교체의 문제와 세대간의 문화 갈등, 언어 갈등 그리고 신앙 갈등[3]이 존재한다. 또한 한국의 IMF 이후로 새로운 이민의 수요와 어학열풍으로 미국 이민과 유학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문제는 심화될 전망이다.

한국민은 단일 민족 공동체라는 특별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 공동체는 단일 혈통과 단일 언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단일성은 한민족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의 역할을 하지만 다른 면으로는 배타성과 폐쇄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단일성을 바탕으로 강한 단결력을 가지고 있지만 내부는 상명하복과 계급적 이해가 강한 면도 가지고 있다. 한민족의 단일성은 이민의 길을 선택한 한인들에게 결속력이 바탕이 되면서 동시에 다양성을 쉽게 수용하지 못하는 벽이 되기도 한다.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아주 어려서 이민을 와서 이곳에서 자란 1.5세대와 2세들, 그리고 이중 문화 가정에서 자라는 Half-Korean들은 전술한 부모 세대와는 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 즉 Korean-American으로서의 정체성의 확립의 문제와 가치관을 확립해야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2세들은 갈등을 경험하는 주체이면서 동시에 한인 이민 사회를 이끌어 나아갈 주체이다. 우리의 미래인 이들에게 이민 1세대의 관심과 사랑이 더욱 필요하다.

---

[3] 미국에 있는 동포 사회의 경우도 2세의 신앙 교육이 심각한 위기에 놓여있다. 교포 2세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70%가 교회에 나가지 않고 대학을 졸업하면 90%가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 그야말로 침묵의 탈출(the Silent Exodus)이다. Song, Min-Ho (1997) Construction a Local Theology for a Second Generation Korean Ministry. Urban Mission, no. December (1997): 23-34.

이제 한인 이민 사회는 2 세들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민 1 세대들이 닦아 놓은 토대 위에 한인 사회와 주류 사회를 접목하여 세계인으로서 주역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미국 한인 이민 2 세기를 시작하면서 한인 이민 사회는 청년 세대를 위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사회의 주역으로 세우는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

2. 문제제기

본 교회는 20 년 전에 브롱스에서 거주하는 몇몇 한인들을 통하여 시작되었고 교회 건물은 이 지역의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다. 60 년대 후반부터 70 년대까지 한인 이민자들의 초기의 삶은 재정적인 뒷받침은 충분하지 않고, 영어는 안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적은 탓에 단순 육체 노동에 종사하거나 가족을 동원한 Small Business 가 대부분이었다.[4] 최소한 12 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기에 자녀나 건강 등 다른 문제에는 관심을 가질 시간적 경제적 여력이 거의 없었고, 이런 적응 형태는 80 년 이후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계층의 이민이 나타나면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였는데 브롱스 지역의 한인은 전형적인 이민자들의 삶의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일 가게와 야채가게와 세탁소 등의 노동집약형 업종에서 일을 하거나 소수의 사람들은 가게를 운영한다.[5] 교인의 대부분은 이민 이후에

---

[4] 허원무 김광청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한인 이민 1세들의 정착단계는 이민 후 2-3년 동안 기본적인 생활의 바탕을 마련하는 시기, 4-10년은 정착단계, 11년 이상은 직업의 만족도에 따라 성공적인 이민과 불만족스러운 이민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한다. 권상길, *코메리칸 가정교육*(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9), 28-30.

[5] 민병갑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한인들의 취업 형태는 가게 운영과 한인 가게 취업이 전체 한인 취업의 7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갑, *미국의 소수민* (서울: 가나안 인쇄소, 1990), 175.

처음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6]이었으며 이들은 거의 변동 없이 현재까지 본 교회의 주도적 그룹으로 성장해 왔다. 본 교회는 비슷한 시기에 이민 온 사람들, 그리고 비슷한 연령과 계층의 사람들이 모였고 따라서 교인들은 교회를 통하여 서로의 삶을 공유하였고 신앙은 교인들에게 삶의 능력을 제공하였다. 교회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한인 이민자들의 참여와 기존 교인들의 가족초청 등으로 꾸준한 인원의 증가를 보였고 14 년 만에 웨스트 체스터 카운티의 테리타운에 있는 기존 미국 교회의 건물을 매입하여 이전하였다.

웨스트 체스터 카운티는 98 년도 전 미국의 카운티 중에서 납세성적 1 위에 오를 만큼의 부유한 지역이며 Golf 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뉴욕시의 북쪽에 인접한 고급 주택지와 사무실 지역을 가지고 있으며 인구의 대부분은 전문 직업 종사자들이다. 백인들이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아인들을 포함한 비 백인계열의 인종 소수가 살고 있으며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7] 이 지역에 거주하는 비 백인계열의 사람들은 백인과 결혼한 경우, 또는 동양인 이민 2, 3 세들이 미국 사회에 뿌리내리고 전문직에 진출한 경우, 또는 이 지역에서 야채 가게와 잡화가게 등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웨체스터 카운티는 종교적으로 통일교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인데 백인을 중심으로 한 통일교 신도들과 한인 기독교인들 간의 보이지 신앙적 갈등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

[6] 1984 년 기준으로 한국의 인구 중 기독교인 비율은 27%정도인데 비해 미국 내 한인의 기독교인 비율은 48%정도로 조사되었다. 이는 교회가 이민 사회의 안내와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초신자의 비율이 높은 이유이다. 중앙일보 1984 년 9 월 27 일, 황경락박사편 *샬롬 2 미주 이민교회 관계 신문.잡지 자료철*(뉴욕: 빛과 소금 선교회 출판, 1992)에서 재인용

[7] 2000년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총 4533가구에 11,09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77.44%가 백인이고 7.04%가 흑인, 0.22%가 본토 인디언, 6.49%가 아시안으로 밝혀졌다. http://en.wikipedia.org/wiki/Tarrytown,_New_York

교회 이전 과정에서 웨체스터지역 주민들은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는 등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반대를 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선교적 터전을 건설하는 자세를 가지고 지역 주민을 이해하고 설득하여 그 지역의 역사성을 가진 교회 건물을 구입하였다. 교회 이전 3 년, 기존의 교인들 외에 교회 인근지역 주민 한인들의 증가로 현재 출석 장년 2 백 여명 교회학교 백여 명의 작지 않은 공동체가 되었고 교회의 성장세는 계속되고 있다.

이제 교회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새로운 지역으로의 이전과 정착 과정 속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교회 구성원들의 변화, 건물 구입 후 교회의 새로운 선교적 목표 설정 등의 과제가 그것이다. 현재 전체교인들의 거주 지역을 주 별로 나누어 보면 뉴져지 주 20%(기존 브롱스들이 이주함), 코네티컷 주 30%, 웨체스터 지역 30% 그리고 뉴욕시의 브롱스 20% 등이다. 웨체스터 지역 거주자와 인근 코네티컷 주 거주 교인들은 교회 이전 후에 등록한 새로운 교인들이며 전문 직업에 종사하거나 미국 기업에 진출하여 나름의 사회적 위치를 확보한 경우가 많아 기존의 교인들과는 지역적, 경제적, 문화적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에 기존 공동체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요청한다. 또한 이민의 역사가 쌓여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민 2 세와 3 세까지 공동체 안에 나타나면서 언어와 문화적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교회 공동체로의 변화를 의미하며 이 과정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보다 건설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과제를 가지게 되었다.

본 교회는 99 년 초에 몇 가정이 신앙 노선의 문제로 목회자와 갈등을 겪었고 교회를 떠나는 상황이 있었다. 그 갈등은 목회자와 교인들 사이의 관계 설정에 대한 이견이 원인처럼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신앙적인 갈등, 또는 신앙 관점의 차이가 자리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인

이민교회의 영성은 무엇인가?" "영적인 삶이란 어떤 것인가?" "영적 권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서로 다른 영성 이해는 결국 하나의 공동체였던 지체들이 분열되고 상처를 남기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장년층의 자녀들은 이미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함께 교회를 떠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자신의 성숙한 신앙이 형성되기 전에 신앙적 상처를 경험하는 2 세 3 세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다른 대부분의 한인 이민교회들에서도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이민 사회의 특수성-한국문화와 미국문화,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차이-과 신앙적인 관점의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재미 한인 이민교회와 한인 이민사회의 문제는 본국의 상황 변화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8] 하지만 이민 2 세기를 시작하면서 이민자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들을 신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문화적 시각을 통해 극복해 나갈 때, 이민사회와 이민교회의 역할과 영향력이 증대될 것이다.

3 이민청년

이민교회의 미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연령층은 청년들이다. 청년들은 이민 1 세대인 부모세대와 미국에서 나서 자란 2 세를 연결하는 중간 세대로 언어를 비롯하여 문화와 신앙을 포함한 모든 의 연결고리이다. 이들은 연결자일 뿐 아니라 현재 이민 1 세대가 이룬 것들을 수용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세대간의 리더십 전이가 한인 이민사회에 매우

[8] 이민사회는 인터넷과 신문 방송의 발달로 인해 본국과 거의 동일한 시간대의 문화와 뉴스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는 1 세들의 언어적 한계와 한국에 남아있는 가족과의 관계에 기인하고 있다. 또한 이는 2 세들에게 한국문화의 전달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중요한 관심사이다.[9] 현재 LA 와 NY 을 중심으로 이민 1.5 세들의 영향력이 점차 증대되는 과정에 있지만 이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이민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한인이민교회 내에서 젊은 청년이민자들과 1.5 세와 2 세들의 역할에 대해 논할 때 리더십 이전이나 젊은이의 역할에 대한 이해는 이민사회의 모델을 따라가고 있지만 신앙생활이라는 면에서 구속력은 현저하게 약할 수밖에 없다.

이민교회를 포함하여 미국의 청년들의 교회 이탈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민 젊은이들이 집을 떠나며 교회와 신앙을 떠나는 현상을 '소리없는 탈출 '(Silent Exodus)이라고 표현한다.[10] 이는 이민 1 세대가 지난 100 여년 동안 이룬 괄목할 만한 성장과 업적을 지키고 발전해 갈 미래의 주도적 세력의 부재로 연결되기에 청년과 1.5 세에 대한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이민사회의 청년과 이민 1.5 세에 대한 신앙적 관심과 연구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영성'이다. 80 년대 말부터 교회와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던 '영성'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인의 신앙과 삶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되었다.[11] 영성이라는 주제 안에서 한인 이민사회와 한인 이민교회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원천을 회복해야 한다. 영성은 이민 교회의 신앙적인

---

[9] 같은 아시아 민족의 경우를 살펴보면 중국 이민자들은 초기부터 미국정부의 공개적인 차별의 토대로 형성된 차이나 타운을 통해 공동체의 리더십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일본 이민자의 경우에는 세계 2 차대전 당시 수용소 생활을 통해 영어를 구사하는 2 세들에게 자연스럽게 리더십의 이양되었고 공개적인 이민공동체의 형성보다 보이지 않는 지역적 정착으로 나타나고 있다.

[10] 이 표현은 1996 년 「Christian Today」지에 헬렌 리(Helen Lee)씨가 기고한 "Silent Exodus, Can the East Asian Church in America Reverse the Flight of Its Next Generation?"이라는 기사에서 처음 인용되었다. 권상길, *디아스포라 2 세 교육목회*(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9), 21.

[11] 가난의 영성, 폭력의 영성처럼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으며 힌두교의 영성, 인디언의 영성처럼 다원주의적 분야에 까지 사용되고 있다. 송인규, *아는만큼 깊어지는 신앙*(서울: 홍성사, 2009), 135.

차원 뿐 아니라 이민사회를 새롭게 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영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신앙공동체의 전체적인 이해가 명확하지 않다. 다양한 의미로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는 영성의 범람 속에서 오히려 빈곤해진 기독교 영성의 바른 이해와 실천적 삶을 통해 이민교회의 변화를 탐구하기로 한다.

이러한 전체적인 이민사회와 교회의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본 교회의 청년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사명이 있다. 이는 초창기부터 본 교회에서 자라난 1.5 세와 2 세들이 본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신앙적 존재로 자리매김해 가는 과정이다. 또한 신앙 안에서 후발 이민자로서 기존의 타민족 공동체와 바람직한 관계를 설정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사명이다. 이론적인 논의가 아니라 현실의 삶 속에서 지금 실천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본 교회가 다양한 층의 교인들로 변모함에 따라 교회 청년들도 다양한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미국에서 태어난 2 세들, 어려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 1.5 세들, 중, 고등학교 이후 이민을 온 청년들, 그리고 유학생 그룹 등이다. 이들은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민자로 적응해가는 삶의 방법도 상이하다.[12]

필자가 담당하고 있는 청년부는 하나의 모델로서 한인이민교회의 변화와 발전을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그룹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청년부 사역은 본 교회의 미래뿐 아니라 한인 이민 교회의 미래에 대한 대안과 희망을 탐구하는 현장의 축소판이라고 믿는다. 이민자의 미래를 탐구하는 대안 그룹으로 청년부의

[12] 1.5세의 정착단계는 이민 1-2년의 열정과 흥분의 단계, 3-6년의 이상과 현실 파악의 단계, 7년 이상의 상반된 적응의 단계로 나타난다. 2세들의 적응단계는 정체성 혼미의 1단계, 정체성 유실의 2단계, 정체성 유예의 3단계, 정체성 확립의 4단계로 나누어진다. 1.5세와 2세는 1세와 또 다른 적응 단계를 보여준다. 권상길, *코메리칸 가정교육*(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9), 30-40.

변화와 성장에 있어서 '기독교 영성은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가 필자가 관심하는 문제이다.

교회 공동체의 변화와 확장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다. 그것은 교회의 신학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를 향한 변화이어야 하며 기존의 제도와 관행 속에 있어온 차별과 억압의 요소들을 극복하는 시도들을 통하여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인 이민교회와 한인 이민공동체에는 변화해야 할 관습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은 남성 중심의 생각이다. 남성과 여성의 역할 규정을 통한 차별과 억압은 오랜 시간 동안에 쌓여온 것이며 보이는 제도 뒤에 보이지 않는 남성 중심의 유교-기독교적 이데올로기와 관습, 그리고 신학이 존재한다. 이 논문은 실천적 영성에 대한 고찰과 체득의 과정을 통해 열려진 교회 공동체를 지향하는 목표를 가진다. 특별히 영성과 삶의 이분법적인 이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이해를 제시할 것이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성취할 희망을 가로막는 장애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몸으로서 그리스도 교회의 모습과, 교회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지침과 행동을 함께 탐구하고자 한다.

제 2 절 문제 분석

미 이민국 연례 보고서에 의하면 70 년부터 84 년까지 한인 이민자 중에서 10-30 세까지의 연령이 전체 이민자의 5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13] 또한 이 자료에 의하면 20-29 세의 이민자 중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2-4 배에 이른다.

이는 한인 이민자 중에 청년의 비율이 높으며 인생의 정체성의 형성기에 이민을 경험하는 숫자가 많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한국사회의 높은 교육열을 빼놓을 수 없다. 영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글로벌 시대에 대한 대표적 모습으로 인식되면서 한국사회에는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전 사회적으로 확대되어 미취학아동부터 대학원이상까지 모든 학생들의 조기유학이나 영어권 나라에 연수가 보편화되었다.[14] 영어교육에 대한 수요는 미국에 가장 많으며 한인사회 내에 다양한 청년층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되고 있다.

먼저 본 교회 청년부의 역사를 살펴보자. 본 교회의 청년 모임은 20 년 전 교회가 창립될 때 교회에 모여든 미혼자들의 공동체로 시작되었다. 한국에서 온 젊은 이민자와 남미에 이민을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제 2 의 이민을 시도한 젊은 그룹들이 함께 모여 일에 대한 정보도 교환하고, 결혼 대상자를 찾기도 하고, 삶의 애환도 함께 나누는 모임으로 시작되었다. 남미라는 특정 지역 출신의 동질성, 미혼이며 미국이라는 새로운 이민생활의 시작, 그리고 신앙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이 모임은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였고 그 모임의 구성원들은 지금까지 단단한 결속력을 과시하는 교회의 핵심 그룹이 되었다.

---

[13] 민병갑외 9 인공저, *미국 속의 한국인*(서울: 유림문화사, 1991), 52.

[14] 국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8 년 30 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자녀를 유학보내는 이유'에 관한 설문에 의하면 부모들은 대학생 44.1% 대학원생 52.5%로 자녀에게 국제적 안목을 키우는 것을 유학의 목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했다. 국가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is.kr/ 보건사회복지/사회/사회조사/교육/2008

교회 공동체가 성장 속에 안정을 이루어가고, 개인의 삶도 안정되어 가면서 아이들에 대한 교육 문제는 교회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되었다. 부모세대는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기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였지만 곧 이민교회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15] 교육적인 프로그램에 한계가 있었고 수동적으로 부모들의 손에 이끌려 온 아이들에게 신앙을 심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마지못해 신앙생활을 하던 1.5 세 2 세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의 품을 떠나 스스로 독립하는 시기가 된 이후 더 이상 한인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16]

1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이렇게 2 세들이 한인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다양하다. 본인이 1.5 세로 차세대를 위한 목회를 하고 있는 권상길목사는 이러한 이유를 몇 가지로 분석하고 있다.[17]

1) 문화적 이질감

개인의 의사와 독립심을 중요시하는 북미문화와 '우리'라는 집단의식이 강하고 개인의 가치를 소속감에서 찾으려는 한국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젊고 자유롭게 생각하는 2 세들에 대한 편견을 만들고 이

---

[15] 이러한 한계는 가장 먼저 언어의 한계이다. 한글보다 영어가 편한 아이들에게 영어로 교육을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다른 한계는 문화적인 한계이다. 개인적인 자유를 인정하고 관점의 차이를 인정하는 교육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어른에게 복종하고 공동체 안에서 순종적으로 따라가기를 기대하는 부모세대의 가치관과 부딪치는 한계이다.

[16]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면서 가정을 떠나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더 이상 교회와 한인 문화적 울타리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 통계적으로 보면 한인 2 세들은 고등학교를 졸업을 전후하여 70%가 한인교회를 떠난다고 한다. 더 안타까운 것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면서는 90%가 한인교회를 떠난다는 사실이다. 권상길, *디아스포라와 2 세 교육목회*(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9) 21.

[17] Ibid. 24-36.

편견은 세대간의 갈등을 만든다. 결국 2 세들은 교회공동체와 한인공동체를 떠나게 된다.

2) 가정에서의 영적 교육 결여

한인 이민자들은 자신들의 삶에 너무 바쁘며, 언어적 문제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자녀들을 가정에서 양육하는데 실패한다.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으로 모든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부모도 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에서 신앙 및 가정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의 신앙교육도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18] 자신의 부모들에게서 신앙과 일치하지 않는 삶을 보면서 신앙공동체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떠나게 된다.

3) 한인교회의 끊임없는 분열과 다툼

1994 년 UCLA 에서 LA 지역 한인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회 분열을 경험한 횟수'를 설문 조사한 결과, 68%가 1 번, 30%가 2 번 이상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적이 있다.[19] 한인 이민교회는 서로 단합하고 감싸주는 모습보다 교단과 이념을 중심으로 쉽게 분열하고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20] 이러한 모습은 2 세들에게 한인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여 교회를 떠나게 되는 원인이 된다.

4) 한인 이민교회의 불확실한 미래방향

---

[18] 미국 한인가정에서 학생들이 보내는 시간을 분석해 보면 일년을 기준으로 학교에는 주 5 일 하루 평균 7 시간으로 계산하여 1820 시간, 가정에서는 하루 8 시간으로 2920 시간(수면시간 2555 시간 제외) 그리고 교회에서는 일주일 1 시간으로 52 시간이 된다. 이러한 분석은 가정에서의 교육과 관심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곳임을 보여준다. Ibid. 26.

[19] 2007 년 9 월 5 일자 *미주 뉴스앤 조이* Iblid. 27.에서 재인용

[20] 민족이 이념에 의해 분열되어 있는 한반도 상황은 다른 민족보다 더 강력한 이념적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특별히 한국전쟁을 경험한 이민세대들은 다른 이념을 용인치 않음으로 인하여 많은 갈등을 만들어 내었다.

한인 이민 2 세들은 한인교회가 주류사회와 동화하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고 있으며 북미 사회에서 교회로서 가지고 있는 사회적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교회는 1 세들에게 사회적인 안도감을 느끼는 도피처이자 안식처로서만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은 2 세들에게 한인 이민교회의 비전을 전혀 찾을 수 없게 한다. 1.5 세와 2 세들을 중심으로 사회적으로 영향력있는 한인교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21] 결국 이러한 불확실한 한인이민교회의 미래는 청년들을 교회로부터 떠나게 한다.

5) 매력적인 세속주의

교회는 더 이상 청소년들에게 매력적인 장소가 아니다. 세상 속에서 재미있는 놀이와 문화가 가득한데 굳이 교회에 올 이유가 없다. 스스로 선택할 수 없을 때는 부모에 이끌려 교회에 오지만 실제적으로 기독교적 사고를 가진 신앙적 인간으로 양육되고 있지 않다. 또한 대부분의 청소년 문화는 기존세대로부터 인정 받기 보다는 잘못된 문화로 배척 받고 있어서 청소년들은 졸업과 동시에 교회를 떠나게 된다.[22]

6) 그릇된 민족주의 사고

한인 1 세들은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이민자로 뿌리내리고 살아야 하는 미국의 문화와 전통을 경시하며 동화하지 않으려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단일민족이라는 자부심으로

---

[21] 2009 년 현재 미국내 한인이민교회는 3500 여개를 상회하고 있고 한인 이민자의 숫자가 150 만명 이상(서류미비자 포함)으로 추정되며 한인 3 세와 4 세까지 등장하는 이민 현실 속에서 주일 11 시 예배를 영어로 드리는 예배는 1.5 세가 담임하는 LA 사랑의 교회가 유일하다. 영어회중과 한인 2 세들은 아직도 한인 이민교회에서 주체적 신앙그룹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2] 객관적 기준에 의하지 않고 어른들의 시각에 의한 일방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기에 2 세들은 그 판단과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다문화가정[23]에 대하여 배타적인 감정과 차별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 미국에 사는 모든 이민자는 서로 다른 문화와 인종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잘못된 민족주의는 타 종교에 대한 배타적인 모습과도 연결되어 나타난다. 한국인의 특성과 한국적 신앙의 모습을 가지는 것은 긍적적이지만 지나쳐 차별과 배타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2 세들과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되고 있다.

7) 교회 조직의 구조적 한계와 지도력 발휘부족

교회도 이민사회의 내의 기관들처럼 여러 가지 관계와 조직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바탕 위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신앙 안에서 유기적 관계는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한인 이민교회는 2 세들을 포함하여 차세대에게 1 세대들의 신앙적인 유산을 물려주는데 실패했다. 또한 2 세대들과 건강한 소통에 여러가지 이유로 실패하고 있다.[24] 결국 2 세들은 자신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며 봉사할 수 있는 다른 조직이나 교회를 찾아 한인 이민교회를 떠나게 된다.

8) 1 세와 2 세가 느끼는 교회의 필요성의 차이

교회관의 차이이다. 1 세와 2 세가 교회에 대한 기대와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2 세들과 젊은이들이 이민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된다. 간단히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3] 1975 년 이후 미국 이민은 미군과 결혼한 사람들을 통한 가족초청이민이 그 주류를 이룬다. 그러나 외국인과의 결혼에 대해 보수적인 문화적 반발이 한국인들 속에 강하고 더 나아가 백인과 흑인 그리고 남미사람들에 대한 다른 인식으로 인한 차별도 2 세들에게는 이해하지 못하는 잘못된 민족주의 사고의 전형이다.

[24] 대부분의 한인 이민교회는 교회의 회의를 영어로 통역하지 않고 회의자료를 영어로 만들지 않는다. 이는 2 세들과 차세대들이 회의로부터 배제되는 원인이 되어 이들이 사회에서 발휘하는 능력과 영향력을 교회 내에서 행사할 수 없게 한다. 언어 문제만 아니라 부서 조직과 대표성에 있어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

1세대들의 교회의 필요성	2 2세대들의 교회의 필요성
1 영적인 성장 2 다른 한국인들과의 교제장소 (민족성) 3 한국적 가치관과 문화의 보존,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4 사회적 인정과 지도력 지위를 얻기 위한 장소 5 최근 이민자들의 필요 충족을 위한 장소(직업, 상담)	1 1 영적인 성장 2 교제의 장소 (한국인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 3 자신들의 한국인 정체감을 찾기 위한 장소 4 평등의 장소 5 외국인을 데려올 수 있는 장소 (복음을 전파하는 장소)

이민 1 세대에게 교회는 사회생활의 중심 공동체이다. 즉 이민 교회는 1 세대에게 신앙적 의미 뿐 아니라 사회적 필요를 채우는 공동체이다.[25]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크고 모이는 횟수나 집중도가 크다. 그러나 2 세들은 교회는 신앙생활의 장소이며 신앙적인 목적이 중요하기에 1 세대 중심의 교회에서 보게 되는 비신앙적인 모습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된다.

9) 이민자들이 교회를 통해 충족하고자 하는 1세대의 사회적 필요[26]

(1) 친밀한 교제

[25] 2008 년 10 월 2 일 미주 중앙일보 기사에 의하면 재미 한국 전국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73%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그 가운데 72%는 한인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답했다. 한인교회를 출석하는 응답자의 대부분은 1세로 집계되었다.

[26] 이민교회의 사회적 필요는 독립공간에 대한 필요로 연결되어 많은 한인 교회들이 자체 건물의 구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음식, 교육, 문화적 필요라는 긍정적 의미도 있지만 이로 인하여 헌금강요나 주변 이민자들과의 갈등처럼 파생되는 부정적 문제들도 한인교회의 선교에 악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1 세대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한국말과 한국음식을 먹으며 친목을 도모한다. 교회는 최소한 일주일에 1 회 이상 모이고 교제하는 이민사회의 유일한 모임이기에 그 결속력도 강하다. 함께 모여 사업의 정보를 교환하고 친구를 만나고 고민도 서로 나누는 모임이기에 이민을 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전의 종교와 상관없이 교회에 출석하는 경우가 많다.

(2) 자녀들에게 한글과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것

이민교회의 대부분이 한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글교육을 통해서 부모와의 대화의 폭이 넓어진다. 또한 구정과 추석 그리고 삼일절과 광복절 같은 한국의 명절과 기념일을 지키면서 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3) 이민자의 필요를 지원하는 곳

이민교회는 예배와 친교를 넘어서서 이민자의 다양한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다. 이민교회는 지금까지 한인 이민자가 이민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모든 것이 한국과 다른 이민생활의 어려움과 필요를 이민교회는 지원하고 있다. 공항에서 맞이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주거, 직업, 교육, 문화, 신앙의 모든 필요가 교회에 의해 지원되어 왔기에 이민 1 세대에게는 꼭 필요한 곳으로 인식되어 왔다.

(4)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곳

이민 이전의 가졌던 지위와 모든 혜택을 박탈당한 채 살아가는 이민 1 세대들은 언어와 문화가 낯선 이국 땅에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한다. 그래서 많은 이민자들이 사회에서 얻지 못하는 지위를 교회에서 얻으려는 경향이 있다. 신앙적인 성숙과 사명감이 중요한 교회의 직분이 신앙과 관계가 없는 사회적 기준과 요구를 통하여 이루어 질 때 자질시비와 헌금강요와 같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민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교회를 찾는 한인 1세들의 목적과 동기가 옳지 않기 때문이다. [27]

이상처럼 다양한 이유들에 의해 이민 1 세대는 교회를 찾고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여 교회 중심적인 이민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아시아 타 이민자들과 다른 한인 이민의 특징이다.[28]

이런 상황적 특징과 한인 2 세들의 교회 출석은 연결되어 있다. 부모에 의해서 2 세들은 타의로 교회에 오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2 세들에게는 처음부터 이민교회와 기독교 신앙에 대한 확신과 애정이 부족하고 부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되면 교회를 떠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2 청년부의 현장

본 교회는 지금까지 약술한 한인 이민교회의 전형적 모델이다. 이민 1 세대인 부모들이 자신들의 삶에 너무 바쁘고 지쳐서 자녀의 교육이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으나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한인 이민교회도 기본적인 교회 공동체의 존립기반이 확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에 대해 투자할 재정과 인력이 넉넉하지 않았다. 결국 부모와 한인 이민교회가 가진 한계 속에서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들은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실패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1.5 세와 2 세들은 성인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한인공동체와 교회의 신앙으로부터 이탈한 채로 살아가게 된다.

---

[27] 권상길, *디아스포라 2 세 교육목회*(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9), 35.

[28] “The Structural and Social Functions of Korean Immigrant Churches in the United States"(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1992) p. 1370-1394. Ibid. 36.에서 재인용

결국 본 교회는 초기에 청년부를 구성하고 있던 사람들이 결혼하고 정착해 감에 따라 동질성을 가진 새로운 회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커지고, 교회 내에서 자라나는 2 세들이 전술한 신앙적인 갈등과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교회를 떠나면서 청년부는 유명무실한 상태로 존재하게 되었다.

필자가 3 년 전 청년부 책임자로 왔을 때 청년부 모임은 없었고, 소수의 1.5 세 2 세들[29]은 그들 만의 배타적인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다.[30] 대형교회가 아닌 중소형 사이즈의 교회의 청년그룹에서는 동질성을 가진 그룹을 찾기가 어렵다. 영어권과 한글권이 다를 뿐 아니라 신앙관의 차이, 삶의 환경에 따른 문화의 차이까지 다양한 변수를 가진 다양한 개인들이 하나로 융합되지 못하고 있었다.

현재는 주중에 학교에 기거하며 공부하는 학생들 10 여명을 포함하여 약 30 여 명의 청년들이 매주 예배에 참석하며 활발한 모임으로 성장하였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청년이 청년부에 적응하는데 약 6 개월에서 1 년 정도의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문화와 언어의 문제를 상당히 극복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다.

청년공동체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질문했던 것은 이민사회의 다양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다양한 청년구성원을 하나로 묶어낼 공통의 분모를 찾는 일이었다. 그것은 실천적 영성이었다. 언어와 문화와 생각이 서로 달랐지만 결국 교회의 신앙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신앙적인 시각과 삶에 대한 원칙을 공유해야 한다고 믿었다. 기술상의 방법이 아니라 함께 할 가장 중요한 근거는 기독교 영성(Spirituality)라 믿고 영성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

[29] 가장 대표적인 그룹이 목회자 자녀와 교회의 중직들 자녀들이다. 이들은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관계 속에 있거나 또한 나름대로의 분명한 신앙관을 가지고 남아있는 그룹이다.

[30] 배타적이라는 말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주로 사용되지만 여기에서는 상처를 받고 이민 1세대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을 가진 2세들의 신앙적 자세를 표현하는 말이다.

목표로 삼았다. 영성은 기독교인의 신앙과 삶을 아우르는 영역이며 능력이기에, 이에 대한 신학적인 성찰과 실천적 노력을 함께 해가며 공동체의 형성을 시도했다.

또한 이러한 신앙적인 목표 뿐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관심을 기울였다. 모두가 한국인이라는 뿌리를 가지고 있기에 한글과 한국 문화가 공동체 형성의 바탕[31]이 되도록 고려하였고, 이를 근거로 신앙과 행동은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였다.

[31] 이민자에게 중요한 삶의 기초는 정체성이다. 정체성은 뿌리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며 뿌리교육의 중요한 방법의 하나는 언어교육이다. 세대간의 소통과 서로 다른 문화의 공통점으로서 한글사용은 필수적이다. 권상길, 코메리칸 가정교육(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9), 61-63.

제 2 장 성서적 분석

제 1 절 한국 교회의 영성 이해

한국교회와 교인들은 영성에 대해 말할 때 가장먼저 성령을 떠올린다. 한국 교회가 선교 2 세기에 돌입하고 이민 2 세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한국 교회의 성령 이해를 시대별로 살펴보며 영성 이해의 바탕을 살펴보자

1907 년을 전후하여 한국 교회는 처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실제 신앙생활에서 체험하고 확인하면서 성령이 개인과 신앙생활과 교회의 발전과 부흥에 있어서 기본이 되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터득하는 최초의 기회를 가졌다. 한국 교회의 신앙적 특성을 형성한 이 성령 운동은 한국 선교가 시작된지 20 년 만에 일어난 운동으로서 이 대 부흥 운동으로 한국 교회는 완전히 이 땅에 뿌리를 내리면서 교회가 질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급속한 발전을 하게 되었다.[32] 그러나 1919 년 3.1 운동에 앞장섰던 한국 교회는 안팎으로 무서운 시련과 여러 가지 도전을 받게 된다.[33] 이로 인하여 1907 년 경험한 성령의 살이 움직이는 체험의 신앙 대신에 형식주의와 교조주의에 빠지게 된다.

1930 년대와 40 년대 한국 교회의 성령 이해는 3.1 운동 이후 한국 민중과 교회가 당한 극심한 박해와 위협으로 인해서 이용도목사로 대표되는 묵시문학적 이해와 내세적인 신인 합일의 은사, 김익두목사의 사역으로 대표되는 병을

[32] 김성재편, *성령과 영성*(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9), 17. 송길섭,'*한국 교회의 성령이해*'

[33] 이 도전이란 1)경제적 공황 2) 사회주의의 도전 3) 교회에 대한 일제의 계속적 억압 4) 반선교사 감정 등이다. Ibid., 19.

고치거나 악마를 추방하는 능력 또는 주기철 목사처럼 순교자의 믿음을 통해 고난을 끝까지 견디는 능력으로 이해되었다.[34]

1950 년대로부터 70 년 이전까지 성령은 주로 기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자, 기적적인 구원을 베푸는 능력자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미국 교회의 선의의 원조는 성령에 대한 물질적 이해의 시초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1970 년대는 세속화 물결이 교회에도 밀려들어 부흥과 성장의 원동력을 제공하였지만 물질적 축복을 강조하는 기복 신앙의 흐름을 형성하였다. 또한 물세례와 불세례-체험적 세례-를 구별하는 이원론이 교회에 등장하게 된다.

급속한 경제 성장을 경험한 한국 교회에는 이제 서구형 신앙의 문제가 등장하여 레저형 교회와 주 5 일 근무제를 겨냥한 현실 적응형의 교회와 신앙이 대두되면서 전통적인 성령 이해가 약화되고 있다.

한인 이민의 역사와 한국 이민 교회의 역사는 이러한 한국의 시대적 변화를 철저하게 경험하면서도 본국의 역사나 미국의 역사에서 늘 주변인으로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 이민 2 세기를 맞아 축적된 인적 자원과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세계인의 파트너로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하여 신앙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후발 이민자로서의 주변성[35]을 극복해야 한다. 시대의 변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이해는 미래의 우리의 삶을 규정할 것이다. 한인 이민 교회의 모든 목회자와 공동체는 하나님의 요청과 시대적 요구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하는 책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34] Ibid., 21.

[35] 주변성(marginality)라는 용어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 그것은 이민 2 세대의 고충을 나타내는 말이었다. 즉 이민자의 문화적 이질성 속의 내적 갈등을 의미했으나 점진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로 발전되었다. 린다 M.글레논, 이수자역, *여성과 이원론*(서울: 이화여대 출판부, 1990,) 186-187.

미국에 있는 한인 이민자의 총수는 2000 년 현재 123 만 명에 이른다.[36] 또한 이 가운데 70%정도가 기독교인이며 50%정도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37] 기독교인의 비율이 높은 것은 재미 한인 이민의 역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신앙인들이 주축이 되었던 초기 이민자들은 주체적으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였고 이는 곧 한인 공동체의 모태가 되었다.

따라서 출발부터 재미 한인 기독교회는 민중 이민자들을 보호하며, 권익을 옹호하는 현장의 공동체로 형성되었고, 한글 교육과 문화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 센터의 역할, 부녀자와 노인을 위한 복지 센터의 역할, 본국의 독립을 후원하는 정치적 공동체의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였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전쟁 복구 지원, 경제 개발의 후원, 민주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들을 후원함으로써 조국을 위한 일에도 소홀하지 않았으며, 미국 내에서는 반 이민법 투쟁, 입양아 문제, 소수 민족의 권익을 위한 노력 등 이민 사회의 중심 이슈에도 보이지 않게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한인 이민자들에게 신앙은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원동력이며, 조국을 지원하는 센터였으며, 우리의 문화와 얼을 지키는 구심점이었다. 교파와 교리, 예배의 형식이나 제도의 중요성보다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급박하였고 중요하였다. 그 바탕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자리하고 있었다. “영성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간 존재적 양식의

[36] 미국내 전체 한인은 순수 한인 107 만 6 천 872 명에 혼혈 한인 15 만 1 천 555 명을 포함한 122 만 8 천 427 명으로 조사되었다. 한인봉사단체인 한미연합회(KAC) 센서스정보센터가 2000 년도 미국 인구조사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자신을 한인 이외의 다른 인종이라고 표시한 혼혈 한인은 15 만 1 천 555 명으로 미주 전체 한인의 12.3%를 차지했다. *조선일보* 2001 년 12 월 14 일

[37] 여러가지 자료에 따라 이 비율과 숫자는 달라진다. 또한 지역적 편차도 무시할 수 없다. 한국인의 숫자가 작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교회 출석비율이 높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교회 이탈현상이 심한 것이 현실이다. 민병갑, *미국의 소수민족,* (서울: 가나안인쇄소, 1991), 169.

표현”[38]이라면, 이러한 영성의 핵심은 하나님 정신의 체험하는 일을 일컫는다.[39] 이러한 면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일상의 삶, 공동체적 실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초기 이민 기독교인들에게 영성이란 무엇을 의미하였을까? 초기 이민자의 고달픈 일상적 삶 속에서도, 신앙 공동체의 힘을 밑바탕으로 민족 공동체 회복에 투신하고, 이 땅에 정의와 평화를 바탕으로 굳건한 삶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었다. 예배와 삶의 조화, 자신들의 신앙과 삶의 일치, 그리고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미래의 소망을 확신하는 등의 모습은 아름다운 영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1970 년대 말부터 몰려들기 시작한 한인 이민자 중 다수의 기독교인들은 당시 한국 교회의 성장 중심, 그리고 현실 도피적이고 신비주의적 영성의 특성을 간직한 채로 몰려들기 시작하였고 재미 한인 교회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고 교회의 급속한 증가가 이루어졌다.[40]

대형 교회 지향과 교단 강조는 재미 한인 신앙 공동체의 전통을 변질시키게 된다. 교단 강조는 무인가 신학교와 무자격 목회자의 양산으로 연결되고 대형 교회 지향성은 교인 쟁탈전과 기복 신앙의 교회 형태를 확산시켰다. 나아가 교회의 연합 사업이나 사회에 대한 섬김의 실천은 교회의 관심에서 밀려났다.

---

[38] 달라스 윌라드, 엄성옥역, *영성훈련*(서울: 은성, 1993) 5 장 ‘생명의 본질’참조

[39] 이정배, *신학의 생명화 신학의 영성화*(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99), 151.

[40] 2002 년 10 월 현재 미국 내 한인교회는 3197 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주내 교계 언론인 크리스천 투데이가 이민 100 주년을 맞아 제작한 ‘2003 년 해외 한인교회 주소록 ‘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서 한인들의 최대 밀집지역인 캘리포니아에만 1067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리스천 투데이,* 2003 년 1 월 3 일 참조

이 후 한인 교회들에게 영성은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를 우리의 삶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신비적이면서 동시에 현실적 연관성을 상실한 고립적이고 분파적 영성 이해가 확산되었다.

A. H. Maslow(1908-1970)은 "인간에게 생리적인 욕구가 기본적인 욕구이며 그 다음으로 안정, 인정, 자존, 자기 실현 과정이다"라고 했는데, 경제적 안정과 이민 역사가 쌓이면서 재미 한인 교회는 이민자들이 자신의 성취를 드러내고 인정받는 장소로 둔갑하고 있으며 이는 목회자와 갈등을 야기시킨다. 이제 한인 교회는 '신학 혹은 신앙적 노선의 차이점에서', '지방색의 분열', '개인의 이해관계에서', '특정 인물이나 사건 중심의 세력 확장' 분열을 계속하고 있다. 이 만길 목사는 재미 한인 교회의 현실 타파를 위해, 가치 기준의 재 설정, 즉 주변성의 극복과 교회의 정체성 확립,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세상에 대하여 정의 실현과 봉사를 겸하는 신앙적 공동체 실현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제 2 절 영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

영성(靈性, Spirituality)은 이 시대 신학과 신앙의 중요 화두 가운데 하나이다. 영적인 차원에 대한 관심이 신앙과 신학에서 점증하고 있으며, 특별히 이민자의 상황은 영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탐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전통적 영성의 몰락, 교회 예배의 황폐화, 생태계 위기 등의 시대적 상황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되묻고 있다. 또한 부모 세대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신앙으로부터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이민 2 세대에게 영성은 단절을 극복할 가능성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41]

그러나 영성(Spirituality)은 교회 내에서 빈번히 사용되면서도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단어가운데 하나이다. 영성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는 끊임없는 이단 시비를 불러오고 신학과 신앙의 혼란을 일으켜 결국 기독교의 정체성과 생명력을 약화시키고 있다.[42]

영성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이해는 영성훈련과 영성생활의 혼란으로 이어진다.[43] 특징적으로 개신교는 성서 중심적 신앙-말씀의 영성-을 강조하며,

---

[41] 김성재편, *성령과 영성*(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9), 129. 박종화교수는 "우리 시대 영성신학 또는 영성신앙을 논의하게 된 것은 첫째, 에큐메니칼 운동의 측면에서 개신교와 카톨릭 그리고 정교회가 하나되는 뿌리로서의 영성입니다. 둘째, 교회생활과 사회참여를 통전시키는 신앙이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인격을 함께 수련하는, 카톨릭에서 말하는 수덕신앙과 정교회의 내면적 자기정화 신앙으로서의 영성입니다. 넷째는 근대 계몽주의 이후 합리주의에 사로잡힌 그리스도교의 자기성찰, 그리고 새롭게 전환된 시대 곧 종교다원시대, 생태/생명문화 시대에서 그리스도교의 자기 됨을 추구하는 것으로서의 영성입니다. 다섯째로 영성은 그리스도교 자기 됨의 회복 곧 새로운 종교개혁과도 같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의 영성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봅니다."라고 우리시대 영성 탐구의 필요에 대해 적절히 표현하였다.

[42] 이단시비는 신앙과 신학의 분열, 그리고 교파의 분열로 끝맺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종교다원화시대에 있어서 전통적인 신 이해의 변화와 다양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는 시비의 판단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43] 영성에 대한 오해와 혼란은 92 년도 이장림의 '다미 선교회'사건, '영생교회'살인 사건 등을 통해 우리 삶의 영역에까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일부 교회에서는 '소유적 영성이해',

카톨릭에서는 전통적으로 기도와 단식과 자선-참여적 영성-의 훈련을, 정교회에서는 예전중심의 영성을 강조하고 있다.[44]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도 한국인의 영성이해는 개인주의적, 신비적, 미래지향적 특성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제는 기독교의 영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이요 주어지는 은사임을 강조하는 방향전환이 필요하다.[45] 즉 공동체적, 현재적인 삶 속의 영성의 회복이 요청된다.

영성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이 영성은 우리의 신앙과 현실을 연결하는 고리이다. 즉 한 사람의 신앙은 그 자신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동시에 그 사람의 삶은 그 자신의 신앙의 형성과 발전에 영향을 준다. 신앙과 삶, 이 분리될 수 없는 두 요소의 관계성이 한 사람의 신앙과 삶에 긍정적 영향 혹은 삶을 왜곡하는 방향으로 인도하기도 한다.

본 교회 청년부에 매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한 여자 청년이 있다. 부모님은 그녀가 어려서 먼저 미국에 이민을 왔으며 10 년 이상 떨어져 살다가 약 5 년 전에 미국으로 와서 부모와 함께 살게 되었다. 부모님과 같이 살게 된 기쁨도 있지만 또한 갈등도 있었다. 어려서부터 이유 없이 아프고 무기력해 질 때가 많았던 자신의 건강에 대한 부모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상처, 그리고 세대 차에서

또는 '성령체험' 등이 전가의 보도처럼 신앙의 기준이 되고 남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일까지 빈번히 발생한다.

[44] 김성재편, *성령과 영성* '그리스도교 영성과 영성훈련'(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9), 131-136.

[45] Ibid. 9-10. 김성재교수는 "구약의 '영성'은 인간이 타락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며, 신약에서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예수처럼 자기를 비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고 지적한다.저자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 "영성은 인간적인 것을 넘어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신적인 존재가 되려는 탐욕을 벗고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되는 것이다"라고 지적한다.

오는 자신의 미래 계획에 대한 이해의 부족, 그리고 부모를 대신해서 영어로 해결해야 하는 많은 일들 속에서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일들 등은 대표적 갈등이었다. 그녀는 미국 생활을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다. 학업과 이민 생활에서 오는 어려운 문제들에 도움을 받기를 원해서였다. 처음 나가던 교회에서 그녀는 기독교인은 모든 문제를 신앙으로 이겨야 하며 문제의 원인은 부모님이 비기독교인 때문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그녀는 끊임없는 기도, 성경 읽기와 같은 신앙적인 노력이 갈등과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이라 믿게 되었고 그녀에게 영성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초능력적으로 해결해 주리라는 확신이다. 그러나 아직 부모님은 신앙인이 되지 못했으며 기존의 갈등에 신앙적인 갈등까지 더해져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되었다.

많은 한인들이 이러한 초능력적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을 보장한다는 믿음이다. 즉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성이 놀라운 이적적 능력이나 신비한 영적 체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여 기도원을 찾거나 영적인 능력을 가졌다는 사람들을 찾아다닌다. 목회자는 영적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40 일 금식이나 특별한 신비한 체험을 강조한다.

이러한 영성 이해는 편협된 영성 이해가 아닐 수 없다. 신앙의 신비적 능력이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 부인하려는 것이 아니다. 영성에 있어서 이러한 신비적이고 하나님과의 합일에 대한 특징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신비한 면에만 관심한다면 신앙안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자신의 응답과 책임을 도외시하여 결과적으로 우리의 조화로운 삶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하나님만을 강조하는 영성, 지구촌적 삶의 환경 가운데 개인만을 강조하는 영성, 신앙과 삶 가운데 신앙만을 강조하는 영성은 예배의 형식화, 생태계 위기, 기독인의 삶의 영향력 약화를 초래하였다. 한인 이민자들의 삶에서 이런 영성 이해는 현실 상황에서 부모 세대의 전통과 문화로부터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2 세들에게 신비적 신앙-현실의 문제에 무책임적인-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벽을 만들고 있다.

새로운 21 세기의 영성 신학은 종교 철학적인 존재 신비주의와 기독교적인 인격주의적 신학 전통의 화해와 통전을 요청하고 있다.[46] 이러한 영성 이해의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의 공통의 뿌리로서의 영성이다. 중세의 기점으로 인정되는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의 분열과 중세와 근대의 기점으로 인식되는 종교개혁을 통해 갈라선 카톨릭과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는 각기 상이한 강조점을 가지고 있다.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의 영성신학의 특징은 말씀 중심이 되었다.[47] 카톨릭은 공동체적 영성을 가지고 있다.[48] 또한 정교회는 예전 중심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다양한 신앙 전통을 통합할 교회의 뿌리로서의 영성을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둘째, 신앙과 인격, 교회 생활과 사회 참여, 그리고 인간과 자연을 통전시키는 영성의 역할이다. 이러한 이해는 현실의 문제에 대한 기독교인의 삶의

---

[46] 김경재, *영성신학서설*(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175.

[47] 말씀 중심의 영성훈련이란 성서 중심이라는 뜻이 되었고, 성서해석과 설교 중심의 예배 종교, "귀의 종교"가 되었다. 또한 이러한 영성의 특징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결단과 응답함으로 선다"는 의식이 강하므로 주관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 신앙에로 치닫을 소지가 언제나 처음부터 내재해 있다. Ibid. 170-172.

[48] 카톨릭은 공의회를 믿는다. 모든 우주적 교회가 하나라는 바탕으로 공동체적이고 보편적 교회를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모든 수도회들의 기원도 영적 자율성을 향한 공동체 운동에 있다. 루이스 두프레, 돈 E. 세일러즈 편집, *기독교 영성 3,* 엄성옥.지인성역(서울: 은성출판사, 2001), 11.

책임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하기에 한국 교회에 뿌리깊은 이원론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49]

셋째, 남성과 여성, 부자와 가난한 자, 강자와 약자 사이의 억압과 대립, 그리고 갈등을 치유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성이다.[50]

이러한 새로운 영성 이해는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 신비와 현실 양자를 통합하여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역동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미국 사회 내의 한인 신앙 공동체의 신앙적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사명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별히 한인 2 세 청년 공동체에 기독교의 새로운 이해를 주게 될 것이다.

---

[49] 1970 년대 이후 한국교회에 세속화 물결이 밀려들어 부흥과 성장의 원동력을 제공하였지만 물질적 축복을 강조하는 기복신앙의 흐름을 형성하였다. 또한 물세례와 불세례를 구별하고 세상과 교회를 구별하는 강력한 이원론이 교회에 등장하게 된다. 김성재편, *성령과 영성*(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9), 송길섭,'*한국 교회의 성령이해,*'21-24.

[50] 성령을 신학의 핵심 주제로서, 곧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 속에 내재하는 하나님의 생기 넘치는 임재로서 적극적으로 이해하게 된 배경에는 급변하는 새로운 현실 속에서 신학의 자기 비판적 성찰이 자리하였기 때문이다. 본래 성령이 초대 교회 공동체 때부터 교리 체계로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 현실성과 관계되어 왔던 것임을 새롭게 통찰해 낸 것이다. 또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지구환경에 대한 직간접적인 책임이 인간중심(우월)주의를 근거지은 기독교 전통에 있다는 생태학 일반의 비판 Lynn White. Jr,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 Science 155(March 10, 1967) 1203-1207.; H. Jonas, *The Phanomenon of Life*, (Chicago, 1982) 8-13.] 에 대한 기독교 신학자들의 반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지주의 사상과 플라톤 철학과의 대립 및 수용의 관계에 있었던 기독교는 정신/육체, 인간/자연, 남자/여자, 거룩/세속간의 가치서열적 입장에서 성령을 말해왔던 바, 생태계 위기에 대한 책임적 신학이 되기 위하여 자연 그 자체를 성령이 활동하는 세계 내의 원초적 존재 모형 [Mark I. Wallace, *Fragments of the Spirits*, (New York: Continuum Press, 1996)] 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Ibid., 이정배,'*생태학적 성령론과 생명문화*'513-515.에서 재인용

제3절 성서적 영성 이해

한국인의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영 이해는 한국인의 영 이해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우리말 사전의 영이란 풍습으로 섬기는 모든 신들, 즉 신령을 뜻하거나, 육체를 떠나서도 존재하며 인간 활동의 근원으로 생각되는 정신적 실체라고 여겨지는 영혼을 뜻한다. 즉 한국인은 영을 인간의 유한성을 극복한 존재, 비육체적이기에 비현실적 존재, 그리고 불멸하는 삶의 근원으로 이해하고 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영이해를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에 때로는 오해와 비 신앙의 모습까지도 파생된다.

1 성서의 영이해

성서에서 성령(聖靈) 혹은 영(靈)은 구약성서의 ‘루아흐’(r^uah)와 신약성서의 프누마(pneuma)에 관련된 말이다. 그러나 성서에서 성령(聖靈) 혹은 영(靈)의 의미, 그리고 교회의 영(靈)이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이를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성서는 다양한 영 이해를 보여준다. 구약에서 영을 뜻하는 단어 ‘루아흐’는 30 여 가지 이상의 우리말 대응 낱말들로 번역되었다. 초기 단계의 이스라엘 종교사에 있어서 이 ‘루아흐’는 ‘하느님께로부터’(m^e'et' eloh^im, m^e'et YHWH) 나오는 어떤 힘으로 파악되었으나 후기 예언자들에게로 오면서부터 하느님의 현존으로 하나님의 영은 곧 하느님의 존재와 동일시되는 듯한 것이 함축되어 있다.(사 40:13; 63:10-14) 나아가 종말론적 기대의 대상으로서 하느님의 ‘루아흐’ 이해가 나타난다. 성서에서는 ‘루아흐’가 주로 자연계의 바람, 사람 안의 생명력, 하나님의 능력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51] 신약에서 영을 뜻하는 '프뉴마'는 당시의 사회에서 주술사들이 조작하는 초자연적인 영을 의미하기도 했지만 기독교회 안에서 독립적이며 인격적인 것으로 살아서 행동하는 우주적이고 구원적인 영이나 신으로 의인화되었다.[52] 성서의 영 이해는 시대적으로 그리고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기도 했지만 본질적으로 인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53]

둘째 이스라엘 영 이해는 '역사성'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성서의 영은 하나님을 사람들의 삶의 차원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내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서의 영은 역사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실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며 통로인 것이다.[54]

셋째는 하나님의 영은 개인적 차원보다는 공동체 속에서, 그리고 폐쇄적이기보다 오히려 신비한 비밀을 드러내는 개방적 차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영성은 소유개념이나 능력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과 관계성의 능력으로 이해된다.[55]

---

[51] 첫째는 자연계의 루아흐(바람)이다. 둘째는 사람 안에서 작용하는 루아흐인데 1)숨, 2)생명력, 3)정서의 자리, 4)의지와 성품, 5)활기와 용기 등의 의미로 쓰였다. 셋째는 하나님의 루아흐인데 1)사람을 황홀상태로 몰아넣는 루아흐, 2)말씀을 주는 루아흐, 3) 각종 능력을 주는 루아흐, 4)기술을 주는 루아흐, 5)창조하는 루아흐, 6)하나님의 악령 등의 의미로 쓰였다. 김성재편, *성령과 영성*(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9), 민영진, "*구약성서의 영이해*", 219-243.

[52] 김희성, *부활 신앙으로 본 신약의 성령론*(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2000), 17.

[53] 협성신학연구소 편, *기독교 신학과 영성*(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1995), 박해령, "*구약성서의 영성 이해*", 51-52.

[54] 구약성서의 보도에 의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보내어 기름부은 사람이나 사사들, 예언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치했다.(사 30:1, 31:3, 겔 11:19, 18:31, 36:26)

[55] L. Klenicki, "*Exile and Return: Moments in the Jewish pilgrimage to God*" in L. Klenicki & G. Huck eds., *Spirituality and prayer: Jewish and Christian Understandings* (New York: Paulist Press, 1983), 1-18. 그는 구약성서의 영성을 두차원, 즉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성서의 영의 이해는 고정화되어 있기보다는 역사 속에 내재하시고 활동하는 모습으로서의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있다. 즉 올바른 영성 이해는 하나님의 활동하심에 대한 인간의 연관성에 모아져야 한다.[56] 성서의 다양한 영의 이해를 바탕으로 U. T 홈즈는 "영성은 인간의 관계성 형성능력(a human capacity for relationship)이며, 그 관계의 대상은 감각 현상을 초월하는 존재이며, 이 관계는 주체의 노력과는 별개의 것으로 확장된 또는 고양된 의식으로서 주체에 의해 인식되며, 역사적 상황 속에서 본질을 받고, 세계 속에서 창조적 행위를 통해 그 자신을 드러낸다"[57]고 정의한다. 즉 영성이란 하나님과 또는 하나님의 다른 피조물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열려진 우리의 개방성(our openness to relationship)"인 것이다. 또한 영성은 창조 세계 속에서 지배 구조가 아닌 공생의 관계를 회복하며, 생명의 가치를 회복하고 고양하는 데에 있다. 영성은 통전적 생명 이해를 바탕으로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롭고 조화된 삶으로 인도하며, 창조 정신의 회복을 통해 창조물들 사이의 단절과 지배-종속 체계를 종식하고 조화와 생명 가치를 고양하는 능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영성 이해는 초월적이고 신비적이며 개인적인 한국적 영성 이해의 특징과는 달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행되어지는 하나님의 활동에의 참여로 귀결되어야 한다.

계약적 관계성(covenantal relationship)과 하나님 경험, 그의 부르심, 현존의 일상적 실현(daily actualization)과 개인, 공동체의 실존(individual and community existence)속에서의 그 실천의 차원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았다 협성신학연구소 편, *기독교 신학과 영성*(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1995), 박해령, "*구약성서의 영성 이해*", 47.에서 재인용

[56] 최영실 교수는 "그리스도교의 영성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이 땅에서 활동한 예수 그리스도와 초대 교회 교인들이 삶을 직시하고, 그들의 삶을 따르는 것이다. 그것은 세상의 미혹하는 영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이웃과 사회에 덕을 세우며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다"고 말한다. 김성재편, *성령과 영성*(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9), 최영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 245.

[57] U.T Homz, *목회와 영성*, 김외식역(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29.

앞의 청년의 이야기에서 그녀는 신앙이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삶 속의 응답을 통한 신앙의 변화에는 미온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즉 자신과 하나님과의 신앙적 관계를 확실하게 유지함으로 부모님을 변화시키려는 생각은 자신과 부모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 자신의 신앙적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면을 간과하는 영성의 편협성이 문제가 된다. 많은 한인 이민자들이 신앙을 통한 초월적 응답과 삶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삶의 변화를 통한 신앙적 성숙에는 소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 영성의 강조는 삶이 신앙에 주는 영향력, 즉 응답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개인주의적, 신비적, 미래지향적 특성이 강조되는 한국인의 영성 이해는 신앙의 능력과 체험만을 강조하여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실천적 영성의 능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기독인의 삶을 왜곡해 왔다. 삶 속에 신앙의 올바른 실천을 통해 우리의 영성이 확인되고 성숙된다는 현재적 삶 속의 영성, 공동체적 영성을 회복할 때이다. 기독교의 영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이요 그 부르심에 대한 삶으로부터의 응답임을 강조하는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2 신약성서에서 나타난 용법을 통해 본 영성의 의미

신약 성서에서는 영성이라는 단어 자체는 나타나지 않는다. 형용사 형인 ‘신령한’이라는 단어가 신약의 여러 곳에 등장할 뿐이다. 신령한은 프뉴마티코스(πνευματικοζ)를 번역한 것으로 ‘성령의 영역에 속하는’ 혹은 ‘성령을 구현하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신약성경에서

사용되는 ‘신령한’이라는 단어의 용법을 송인규는 크게 세가지 범주로 나누고 있다.[58]

첫째는 ‘신령한’이라는 단어는 영의 존재를 인정하는 존재론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 대상이 인간이든지, 신적 존재이든지 영의 존재를 사용하고 설명할 때 사용되고 있다. 이 경우 ‘신령한’이라는 단어는 ‘영에 대한’(concerning spirit)이라는 의미로, 영이라는 실체를 염두에 두고 어떤 존재를 묘사 할 때 등장한다. 그러므로 영이라는 단어는 영적 존재를 표현하는데 다양하게 사용됨을 기억해야 한다.

(1)인간의 영을 묘사하는 경우

고린도 전서 2 장 11 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2) 천사를 묘사하는 경우

히브리서 1 장 14 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3) 사탄을 묘사하는 경우

에베소서 2 장 2 절: 그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4) 하나님을 묘사하는 경우

요한복음 4 장 24 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

[58] 송인규, *아는만큼 깊어지는 신앙*(서울: 홍성사, 2009), 137.

둘째는 어떤 사물이나 대상 혹은 사태가 그 기원상 영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의미로 기원론적 의미를 가진다.[59] 이 경우 언급되는 '신령한' 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는 어떤 사물이나 대상 혹은 사태가 그 기원상 영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뜻이며 바울의 서신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용법은 존재론적 의미와는 다르게 모두 다 '신령한' 선하고 좋은 것에 대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1) '어떤 것은 신령하다' 의 경우

로마서 7 장 14 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2) '신령한 것' 이라는 표현

고린도전서 2 장 13-14 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3) 신령한 다음에 명사를 대동하는 경우

로마서 1 장 11 절: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함이니

에베소서 5 장 19 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

[59] '신령한'이라는 단어의 용법은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 영적 존재에 의해 신령해 지는 상태를 설명하는 용법이 있고 둘째, 영적 기원에 의해 '신령한 것'으로 구별하는 용례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신령한' 다음에 명사가 와서 그것을 설명하는 용법으로 사용된다. 예로 신령한 몸(고전 15:44), 신령한 노래(엡 5:19)가 있다. Ibid. 140-145.

셋째는 ‘신령한’이라는 단어가 어떤 존재나 사람의 영적 성숙의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60] 이 경우의 ‘신령한’은 ‘신령한’자로도 표기할 수 있는데,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상당한 정도의 영적 성숙이 나타날 때 붙이는 말이다. 기원에 관한 ‘신령한’의 용법은 영성의 삶에 있어서 특별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삶의 훈련과 열매라는 차원과 연관되 있는 판단론적인 ‘신령한’의 의미는 영성의 삶을 추구하는 이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고린도 전서 14 장 37 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갈라디아서 6 장 1 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러한 ‘신령한’의 의미를 바탕으로 ‘신령함‘에 대한 성경의 주요한 가르침은 이렇게 요약된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다. 그러므로 영적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을 바로 이해할 수 없다. 나아가 ’신령한 삶’ ‘영적인 삶’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61]

이러한 관계성은 다음의 몇가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풍성해 진다. 1) 참된 영성의 출발점은 중생이다. 2) 참된 영성의 목표는 신령한 자로 성숙해 가는 것이다. 3) 참된 영성의 형성은 성령께서 부여하신 자원을 올바로 활용할 때 이루어진다. 4) 참된 영성의 표징은 사랑이다. 5) 참된 영성의

---

[60] 갈라디아서 6 장 1 절에 사용되는 '신령한‘의 용법은 범죄한 자를 대하는 태도가 신앙인의 판단력과 성숙한 태도의 기준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Ibid. 147.

[61] Ibid. 150

원동력은 성령충만에서 생긴다. 6) 참된 영성의 실상은 그것이 하나의 삶, 곧 성령과 동행하여 사는 삶의 차원에서 존재한다.[62]

[62] Ibid. 154-158

제 4 절 성서에 나타난 영성

성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쓰여진 책이다. 성서는 구체적인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와 그에 따른 평가, 개선, 그리고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시대와 환경을 초월하여 추구되어야 할 신앙의 가치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간의 응답과 하나님의 재응답을 묘사하고 있다. 성서 안에 나타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대표적인 영성의 모습을 찾아보자

1 **예언자의 영성**

구약성서에 나타난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들이다. 즉 예언자는 "백성 앞에서"[63]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이다. 그렇기에 예언자들이 사회 정의를 외쳤지만 그들의 선포는 "야웨께서 말씀하신다"는 신 중심주의(Theo-centrisme)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64] "하나님의 관점"이야말로 예언자들의 사상을 평가하는 가장 근원적인 척도이다.

이러한 예언자 정신은 야웨 신앙의 핵심으로 예수의 사역에 중심을 이루고 있다. 시대마다 예언자들은 신의 메시지를 오늘의 언어로 대변했다. 아모스의 "정의"와 호세아의 "사랑"과 예레미야의 "마음의 회개, 그리고 "겸손"을 표방한 이사야와 "인간의 길"을 표방한 미가의 예언은 하나님의 관점을 대변하고 있다.

---

[63] 예언자들은 흔히 백성이나 군중이 모이는 성전에서 신탁을 발설하고 설교했다. 아모스는 베델 성전에서 설교했고(아모스 7:10-17), 이사야는 히스기야왕의 공식 대변인으로서 백성을 대했으며(이사야 36-39 장, 열왕기하 18:13-20:19), 예레미야도 군중이 모이는 성전에서 신탁을 선포했다.(예레미야 7:1-15)

[64] 37 서인석, *성서의 가난한 사람들*(서울: 분도 출판사, 1985), 125.

그들은 자신들의 시대의 죄악을 고발했는데 이는 바로 그 죄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패시키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예언자들은 바로 이 인간의 죄악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총을 선포했다. 즉 예언자들의 관심이었던 백성이 삶을 바로 세우기 위해 예언자들의 기능은 하나님의 계획과 백성의 생활을 연결하여 대화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65]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인 의로움과 도덕성을 기준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촉구한다. 향락주의와 이기주의로 모두가 평등한 하나의 백성,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을 저버리고 폭력으로 약탈을 일삼고 불행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며, 이주민들의 권리를 빼앗으며 학대하는 사회 지도층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다.

아모스는 구약의 예언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고 사회정의를 외친 대표적인 예언자 이다.[66]

예언자 아모스는 북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 세, 그리고 남 유다는 웃시야왕의 통치로 제 2 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불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전하고 있다. 이러한 아모스의 선언은 반국가적인 것으로 여겨졌으며 죽음의 위협을 받았다. 그는 종교적 특권 의식과 오만에서 벗어날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촉구하며, 사회에 정의와 공법이 구현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서는 것임을 역설한다. 이러한 아모스의 비전은 '종교적인 영성' 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서인석교수는 주장한다.[67] 이스라엘의 정치적 번영이 하나님의

---

[65] Ibid., 133.

[66] 게오르그 L. 로빈슨, *메시야 이전의 열두 선지자*, 김남준역(서울: 도서출판 겨자씨, 1991), 53.

[67] 아모스의 비전은 이스라엘의 역할을 '정치적인 것'보다 '종교적인 영성'에 두고 있다. 즉 하나님은 사랑이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번영보다는 이스라엘의 몰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정의-가나안 진입 초기에 선포된 평등 사회를 추구하는 정의-에 기초에 있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며 이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 사회를 정의에 기초해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바르지 못한 관계가 사회의 올바른 관계를 파괴하였으며, 사회 속에 정의를 세우는 일이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이다. 함축적으로 표현하면 예언자들의 영성, 즉 야웨신앙은 사회적 평등주의와 분리될 수 없으며, 가나안 진입 이후에 이스라엘 본래의 평등사회를 지키려는 끊임없는 노력이었음을 인식해야 한다.[68]

이처럼 아모스를 비롯한 예언자의 영성은 신앙과 사회 정의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기회를 갖지 못한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신 자본주의의 경제적 흐름 아래 IMF 의 위기를 겪은 한국 사회에도 이러한 예언자 정신이 되살아나야 한다. 부익부 빈익빈의 분배 구조가 영속화되고 부정과 부패가 정치와 모든 삶의 영역에 가득한 사회에 대해 하나님의 정의와 회개를 촉구해야 한다. 영성이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정의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또한 교회도 예언자 전통을 계승하여 오늘의 교회 내에 깊숙이 침투한 경제 지상주의를 경계하고 나눔의 실천에 보다 앞장서고 구조적인 사회악을 변혁하는 주체로 서야 한다.

2 예수의 영성

종교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것에 있다고 서인석교수는 주장한다. 서인석, *하나님의 정의와 분노-예언자 아모스*(서울: 분도출판사, 1982), 47.

[68] 안병무, *사회학적 성서해석*(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민영진 '*구약성서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예수의 사역의 중심주제는 눅 4:18-19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에 선언된 것처럼 해방의 복음이다. 특별히 사회적 기준이 되었던 율법의 가치 기준에 의해 천시되고 경제적으로 가난했던 사람들[69]에게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그들을 얽매고 있던 율법의 멍에, 도덕의 기준, 그리고 사회적 부당한 대우로부터 억압당하고 소외된 자신들의 삶을 회복하고 당당히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에 예수는 사역의 초점을 두었다. 삭개오와 창녀, 죄인과 문둥 병자가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고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났다. 예수의 해방은 결국 하나님과 이웃과의 정상적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과의 싸움인 것이다.

이 본문에 나타난 예수의 사역은 몇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는 해방의 사역이다. 포로된 자와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언하는 것이 예수의 사역의 초점이다. 그러나 예수의 사역을 보면 이 해방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특별히 정치적으로 실천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 정의에 관한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은 “이웃이 되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70]이다. 예수의 해방의 복음은 먼저는 사회적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행하는 것, 인종의 장벽을 허무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하며 생명의 가치를 고양하는 것을 통해 기존의 억압 구조를

---

[69] 예수 당시의 가난한 사람들이란, 그들이 처한 물질적, 도덕적, 사회정치적 상황에서 상류층의 사람들에 의해 경멸받고 벌받고 경원시 당하면서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사람들 모두를 말한다. 안병무 편, *사회학적 성서해석*, Georges Casalis, '*가난한 자들의 복음*'(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135.

[70] 글랜디온 카니& 윌리엄 롱, *예수 영성*, 엄성옥역(서울: 도서출판 은성, 1999), 198.

해체하도록 사회 지도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도전하고 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선언함으로 물욕과 기득권에서 벗어나 참 공동체가 실현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수의 해방의 사역은 종교와 사회적 영역을 포함하여 사회의 모든 부조리와 병폐를 파헤치고 지적하며 그것의 갱신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던지는 이스라엘의 예언자와 선지자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71]

둘째는 예수의 치유 사역이다. 예수의 치유 능력은 그 분의 풍성한 인성, 인간이 마음 속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과 욕구를 순식간에 분별하는 능력에 기초하고 있다.[72] 이 말은 곧 치유 사역이 예수의 초능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관심과 치료받을 사람들의 영적 능력과 자원하는 마음과 연합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성서에 나타난 주요 치유 기사들을 살펴보면 예수와 환자 사이의 영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단지 병의 치유에 모든 초점이 모아진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관계성 속에서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고 영적인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73] 예수의 치유 사역에서 나타나는 영성은 이처럼 예수와 환자 사이의 영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관계성에 바탕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말씀 선포의 사역이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비난에 직면하고

---

[71] 류기종, *예수의 영성*(서울: kmc, 2009), 84.

[72] Ibid. 158-160.

[73]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과 삭개오 사건, 야이로의 딸이 고침받는 사건,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받는 사건, 수가성의 여인, 눈뜬 열 소경 중에서 감사한 한 소경의 이야기 등 모든 예수의 치유 사역에는 영적인 교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는 능력만 나타나면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현실을 바라보며 예수의 말씀 선포의 사역을 주목해야 한다.

예수에게 말씀은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는 도구[74]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통로였으며,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때 바른 길로 인도하는 능력이었다. 예수의 사역은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에게 성경은 체화(體化)된 말씀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선언한다. 예수는 말씀을 충분히 알았고 말씀을 따라 살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75]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바른 관계가,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의 말씀 선포의 사역은 보여주고 있다.

종말론적인 새 창조의 비전 위에서 예수의 영성이 어떠한 외적 행동으로 나타났는가를 표현할 때 "비움"(self-empting)과 "순종" (obedience)으로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76] 우리는 예수의 자기 비움이 내적인 정화의 차원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종으로 자신을 주는 십자가의 삶을 통해 나타났다. 또한 당시의 다른 종파의 사람들이 율법에 대한 순종을 영성 생활의 최고 수단으로 생각했다면 예수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격적 응답으로 순종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 계시는 일방적 의사 전달이 아니라 인격적 관계에서 주어진 것이었다. 이 계시는 우리의 인성을 거역할 때가 많아

---

[74] 예수께서 처음으로 말씀을 사용하신 것은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던 때이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하심으로 사람의 요구를 채우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큰 능력임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75] 류기종, *예수의 영성*(서울: kmc, 2009), 76-77.

[76] 협성신학 연구소편, *기독교 신학과 영성*(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1995), 김영봉, "*예수의 영성*" 115.

결국 유혹으로 연결되는 때가 많았지만 최후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다.

예수의 영성운동은 첫째는 이 세상, 곧 나 개인과 가정과 사회, 나아가 전 인류사회에 천국을 실현할 것인지 그 내용과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둘째는 그것을 다만 말과 사상으로만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즉 자신의 인격적 모습과 삶의 모범을 통해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이다.[77]

그리고 이 모든 예수의 사역의 결론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으로 주신 위임을 통해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도 예수의 영성을 우리도 소유할 수 있다.

3 바울의 하나됨의 영성(공동체적 영성)

바울 시대의 헬레니즘은 영을 비인격적이고 비역사적인 존재로 이해하였다. 즉 소유의 대상이며 개인의 목적을 위해 수단을 삼을 수 있는 존재로 이해하였다.[78] 그러나 바울은 기독교의 성령을 당시 헬레니즘의 비역사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영 이해의 연장선상에서가 아니라 역사와 공동체 안에서 일하고 투쟁하는 인격적이고 역사적인 영으로 이해하였다. 즉 성령에 잡히면 잡힐수록 현실의 역사와 공동체에 책임적이 된다고 이해한다.[79] 이러한 바울의 성령 이해는

---

[77] 류기종, *예수의 영성*(서울: kmc, 2009), 25.

[78] 사도행전 8 장 18-24 절의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에서 초대 교회에 헬레니즘의 성령 이해의 단면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성령을 나타내는 데에도 상당히 절제하고 있으며, 성령의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공관복음서의 기자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지만 바울이 헬레니즘의 강력한 영향아래 있던 이방지역의 선교를 담당하고 있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79] 김성재편, *성령과 영성*(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9), 김재성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바울의 성령해석*' 339-340.

바울의 영성이 구체적 교회와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80] 당시의 교회는 강한 자와 약한 자, 부자와 빈자, 열광주의자들의 등장으로 분열의 징조를 보이고 있었다. 그렇기에 바울은 성령의 담지자로서 개인보다 공동체성[81]을 강조하며 신비주의를 경계하기 위해 성령과 역사적 예수의 일치성을 강조하여 그리스도 중심의 영성을 보여준다.

바울의 선교 사역을 통해 얻어진 많은 교회들은 갈라디아서 3 장 28 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는 선언대로 세상의 구별과 장벽을 무너뜨린 새 공동체로 세움을 입었다. 그러나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율법을 알지 못하던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은 계속 발생되어 예수 안에서 하나인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였다. 바울 서신의 대부분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 기록되었다.

로마서 16 장에 나타난 서바나가 바울의 복음 전파의 종착지임을 감안할 때 유대로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한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 꿈꾸던 마지막 목표는 무엇이었을까? 'Pax Romana'처럼 당시 무력으로 세계를 통일한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땅 모든 차별과 억압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됨을 누리는 보편적 인류 공동체를 실현을 바라보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다시 오신다는 그 분을 바라보며 그 복음이 영으로 인류를 하나되게 하는, 실낙원의 회복을 그가 바라보았다면 바울의 모든 생각과 삶은 전 인류과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하나임을 선언하며 확인하려는 공동체적 영성이라고 확언할 수 있다.

---

[80] Iblid., 339.

[81] “여러분은 성령의 전입니다”(고전 3:16)라는 표현에서도 성전을 단수로 표현함으로 개개인보다는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는 이러한 사역을 위해 철저하게 예수를 본받았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아 역사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82]" 한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영성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철저한 자기 희생의 존재 양식을 따라 사는 것"[83]이다.

[82] William M. Thompson, *The Jesus Debate: A Survey and Synthesis*(New York: Poulist, 1985)

[83] 황현숙, *이웃 사랑의 계명과 디아코니아,* 기독교 사상, 1993 년 10 월호 10-17.

제 5 절 성서에 나타난 영성의 특징

지금까지 살펴본 성서의 배경과 역사 속에 나타난 영성의 특징은 크게 세가지로 그 특징을 요약할 수 있다.

1 관계성

성서에 나타난 영성의 핵심적 특징은 '관계적' 이다. 내 자신과 타자와 환경 그리고 창조주를 포함한 모든 신앙적 대상과의 관계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84]

성서에 나타난 '영성' 또는 '영성적' 이라는 말과 개념은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형성' 에 집중된다.[85] 더 나아가 사람들 사이의 인간관계와 자연세계를 포함한 피조 세계와 올바른 관계에도 영성의 관심이 모아져 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왕국건설 이후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도록 선포하고 있다.
예언자들이 추구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출발한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영성의 관계성, 예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제자들이 삶으로 보여준 관계성에 주목하여야 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천국이 죽어서 들어가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현재적 삶, 매일의 삶에서, 영적 생명의 빛이고 생명자체이신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84]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할 존재라고 김중기교수는 지적한다. 김중기, *삶에 적용하는 구약*(서울: 두란노, 2009), 23

[85] 류기종, *예수의 영성*(서울: kmc, 2009), 9

내주를 나의 삶에서 누리는 것으로 이해했다.[86] 즉 믿음으로 영원과 지금을 연결하여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 장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이들이 지체가 됨으로 하나의 몸을 이룬다고 기록하며 공동체는 영성의 특징임을 보여주고 있다.[87]

2. 현실성

성경에 나타난 영성의 특징은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나타난다.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계약은 곧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악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88] 믿음은 현실의 문제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요구하는 것이다. 구약의 모든 율법은 현실의 문제에 대한 것이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으로 선택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종교가 이러한 길에서 벗어날 때마다 도전하였고 하나님의 정신을 대변하였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예수의 사건임을 천명한다. 이 땅으로부터 저 세상으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와 동행하는 것이 신앙적 삶인 것이다.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누가복음 4 장 126-21 절의 말씀은 그의 사역의 초점이다. 예수는 이사야의

---

[86] 류기종, *예수의 영성*(서울: kmc, 2009), 128.

[87] 황두용, *지성에서 영성으로*(서울: 대장간, 2001), 20.

[88] H.C 키, 서중석.김명수역, *그리스도교의 기원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89.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마음속으로 상상하고 꿈꾸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을 뿐 아니라 그 꿈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룬 것이다.[89]

예수의 영성의 핵심은 그가 현실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고 신앙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다.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초대교회와 성도들도 예수를 통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초대 기독교는 로마제국의 박해에 대해 천국소망을 유일한 무기로 맞선 것은 아니다.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삶이었다.

3 실천성

성서적 영성의 특징은 실천성에 있다.

예수의 공생애는 기도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백성들의 삶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는 삶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에 옮기는 행동하는 영성, 그것이 바로 예수의 영성의 가장 큰 특징이며, 동시에 기독교 영성의 가장 아름다운 꽃이요, 모든 보화중의 보화라고 할 수 있다.[90]

또한 예수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대상과의 연관을 전제하고 있기에 그 말씀이 열매로 나타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이 된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언급들이 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이러한 구체적 실천의 요구에 대하여 당연하고 최선의 삶으로 응답하였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다. 그는 늘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명을 기억하며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으며 성도들에게 이러한 삶을 부탁하였다.

---

[89] 존 디어, 김준우역, *예수의 평화 영성*(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00), 40.

[90] 류기종, *예수의 영성*(서울: kmc, 2009), 103.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 장에서 κατεργάζομαι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대비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자연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열매는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이지만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하고 실천되어야 할 열매들이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 장 12 절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고 지적하는데 이때 '이루라' 의 희랍어 단어 'κατεργάζομαι'는 구체적인 행위를 함축하고 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되지만 분명한 삶의 열매를 통하여 완성된다는 것인데 골로서새 4 장 17 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야고보서 2 장 18 절에도 '너희 믿음을 보이라' 고 기록하는데 '보이라' 의 희랍어 단어 'δείκνυω' 도 구체적 행위로 증거를 제시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믿음과 행위를 잘 조합된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

현대는 다원화 시대이다. 서로 다른 종교와 문화와 언어가 어깨를 마주하고 존재한다. 특별히 미국에서 살아가는 한인 이민자들은 대표적인 다원화 사회로서의 미국을 인정해야만 한다. 미국의 이민자 정책이 Melting Pot[91] 이든 Salad Bowl[92] 이든 간에 미국 안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문화의 다양성은

---

[91] Melting Pot Theory는 18세기와 19세기 유럽에서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탄생되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미국이라는 새로운 대륙에서 하나가 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미국의 문헌 중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은 Prior to Zangwill으로 J. Hector St. John de Crevecoeur의 *Letters from an American Farmer* (1782)에 등장한다. http://en.wikipedia.org/wiki/Melting_pot에서 인용

[92] Melting Pot Theory가 미국의 단일성에 대한 강조라면 미국안에서 다양한 인종이 서로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를 지켜가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다양성임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Melting Pot 이론과 Salad Bowl 이론은 미국의 문화를 가장 잘 설명하는 개념으로 자리잡았다.

존중되어왔다. 그러므로 이 미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인들은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의 문화를 형성해 가야 한다.

더구나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해 주류 사회와 동떨어진 1 세대와 달리 청년들의 세대는 서로 공존과 교류의 세대이다.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공유하며 살아가는데 바울의 공동체적 영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한인 교회 공동체는 예배 중심에서 생활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생활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 교회 안에서의 예배를 강조하면 현실과 신앙의 분리로 인하여 균형있는 영성의 삶을 살 수 없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정의와 해방, 그리고 공동체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진정한 회복도 이루어지기 어렵다.

공동체적 영성은 개인적이며 이원론적인 영성-육은 제한적이고 영은 영원하며, 육은 불완전하고 영은 완전하다-을 극복하게 한다. 우리의 삶에서 정의와 해방, 그리고 공동체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진정한 회복도 이루어지기 어렵다. 하나님은 초월자가 아니라 나의 삶에 함께 계시며 신앙이 하나님-인간, 인간-자연, 자연-하나님 사이의 생명적 관계성으로 이해되고, 기독교적 가치의 실천과 삶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응답으로 이해하게 한다.

앞의 청년은 자신의 삶에서 부모님과의 갈등을 하나님의 신비적 능력에 맡길 것이 아니라 현식 속에서 끊임없는 노력과 신앙적 응답을 통해 극복해 가야 한다.

성서적 질문

1 원산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1907 년의 대 부흥 운동이 한국 교회사에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 기원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는 죄의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복종, 그리고 방언 등의 신비 체험과 말씀 공부의 특징을 나타나며 정교 분리로 요약되는 초대 한국 교회의 영성을 형성했다. 이러한 영성은 신앙과 현실을 분리하는 한국 교회의 전통을 만들었다. 그러나 일제의 압제에 대해 해방을 선언한 1919 년의 삼일운동은 초대 한국 교회의 보수적 영성의 한계를 극복하는 기독교 중심의 해방운동이었으며 이는 한국 교회의 **참여적 영성**의 큰 흐름을 일구었다.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임들이 당시의 역사적 사회적 상황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탐구하여 그 선포가 오늘의 역사적 사회적 상황에서 갖는 의미를 밝히는 **성서연구**는 현실과 분리된 교회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공동체로 변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가?

2 "노동이 기도이다"라는 명제는 해방신학과 민중신학 등 제 3 세계신학에서 서구의 초월적 신 이해의 한계에 도전하는 상징적 표현이며 정형화되고 이원론적인 영성 이해(영은 불멸의 존재로 인간 안에 있다는 이해)를 극복하려는 새로운 해석이다.

영성이 하나님-인간, 인간-자연, 자연-하나님 사이의 **생명적 관계성**으로 이해되고, 기독교적 가치의 실천과 삶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 응답(관계성)**으로 이해된다면, 이러한 영성 이해는 전통적 예배공동체에서 생활공동체로의 변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제3장 신학적 분석

제1절 영성 이해의 올바른 출발을 위해

새 천년이 시작되었다는 기대와 흥분으로 맞이하는 첫 여름 수련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놓고 청년 임원들과 토론을 하였다. 자신들을 위한 계획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데 청년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선교 여행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선교 여행을 위한 프로그램과 재정적 준비, 그리고 신분상의 문제점 등을 이유로 내년으로 미루게 되었고 올해는 선교 여행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자체 수련회로 계획하게 되었다.

그리고 선교 여행을 원하는 청년들은 학생들의 멕시코 선교 여행에 동참하였다. 그런데 한 청년 회원이 개인적으로 찾아와 청년부 수련회 기간 동안에 다른 종교에서 진행하는 선교 여행에 참석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한인 3, 4 세들을 찾아가 돕는 프로그램인데, 문화적 사역이기에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것이다. 일차적으로 본 교회의 프로그램에 참석하기를 부탁하였고, 이차적으로는 그 단체의 신앙적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신앙은 신앙이고, 이것은 신앙 차원이 아닌 봉사 활동이며, 문화 사역이기에 종교 교리적 입장에서 불참을 종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몇 번의 갈등이 노출된 후에 성과없이 대화는 종결되었고 그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다.

대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첫 번째로 생각하게 된 것은 대부분의 교회 내의 대화가 일방적 전달의 과정을 가진다는 것이었다.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남성의 우위를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한국인의 보편적 상황이며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와 평신도의 관계에 있어서도 목회자가 더 높다는 유교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계급적 이해를 가지고 있다.[93] 따라서 남성의 이야기가 더 권위를 가지고, 목회자의 이야기에 평신도는 수용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남성과 목회자가 겸해지는 일반적 교회 상황은 거의 일방통행의 대화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교회에서 목회자와 평신도간에 견해의 차이가 발생할 때 거의 대부분 목회자의 견해에 따르게 된다. 또한 목회자나 지도자는 아래로부터의 의견 수렴에 익숙하지 않아서 대화의 통로가 자연히 막히고 일방적인 대화만이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남성우위와 계급적 이해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면서 교회 내의 대화가 교인과 교인, 평신도와 성직자간의 갈등을 유발하게 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둘째, 목회자와 교인들이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장단을 논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인식이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교회 내의 대화는 신앙 문제에 국한하며 정치적이나 다른 주제는 쉽게 허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교인의 정치 참여와 사회 활동에 대해서도 교회는 뚜렷한 신앙적인 비전과 기준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될 때 교회는 종교 활동의 장으로 국한되고, 신앙은 내세와 종말을 강조하는 신비적 색채가 강조된다.

셋째, 종교 다원의 상황에서 생겨난 배타성이다. 한국 교회가 다원적 종교 상황 속에서 후발 종교로 출발했으며, 보수적인 선교사들의 신앙, 그리고 조선 말기 일제 강점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철저한 정교 분리와 타종교에 대한

---

[93] 교회의 기구적 조직이 위계적이고 권위주의적이기 때문에 올바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다. 한국기독교학회편, *교회와 코이노니아*(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남재현, *의사소통 공동체로서의 교회*, 261.

배타적 원칙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것은 한국 교회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2003 년 현재 한국 기독교회는 전체 인구 중에 25%를 점할 만큼 큰 종교 집단이 되었다. 그러면서도 한국 사회 내에 기독교인과 비 기독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과 반 기독교인으로 구별될 만큼 강한 배타를 받고 있는 종교가 되었다.[94] 이러한 편협된 배타성과 폐쇄성은 예수의 정신을 구현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배타성과 폐쇄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대가 청년들이다.

새로운 세대인 청년들은 이러한 문화적, 사회적 환경에서 자라나고 있다. 청년들은 자신들이 가지게 되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에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 인간과 자연, 교회와 세계, 기독교와 타종교의 관계에 대하여 '기독교의 영성은 어떤 대답을 하는가?' 하는 고민을 가지고 대답을 찾아가고 있다.

지난 4 반세기 동안 배타적 종교성을 뛰어넘는 연대와 대화의 시도가 있어왔다. 종교간에 점차로 공동의 이해를 공유한 연합을 통해 전통적 종교의 경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그렇다면 새 천년의 영성은 모든 영성은 하나로 통한다는 새로운 영성 이해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교리와 삶을 구분되는 이중적인 기준을 가지는가?

전술한 청년과 대화하는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 체험의 영성이 교회에 한정될 수 있는가?" "교회 안의 위계론적인 남성과 여성, 목회자와 평신도 이해를 극복하는데 영성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종교 다원의 상황에서

---

[94] 2009 년 10 월 현재 구글로 검색하면 인터넷에 각종 안티-기독교 사이트는 총 5 천여 개가 활동 중이며 이러한 안티 기독교는 결국 기독교회의 배타성이 만든 산물임을 부인할 수 없다.

기독교인으로서 연대의 가능성은 없는가?" 하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신학적 노력이 절대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한국인의 종교적 토양은 샤머니즘과 불교, 그리고 유교와 천도교 등 다양한 바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면서 '한국적 영성의 뿌리는 어디인가'와 '서구 전통 기독교의 영성의 합일점은 없는가'에 대한 논의가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보편적 영성의 합의를 가지지 못한 채 남용되는 한국 교회의 영성이 기복적이고 현세적인 면에 집중되어 있어 '샤머니즘의 또 다른 형태이다'라는 비판도 제기된다[95]. 또한 인간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면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근대 계몽주의에 바탕을 둔 서구 기독교 사조가 한국에 전래되어 급속한 경제 개발과 산업화 과정에 기본 정신을 제공하면서 감성적이고 초월성을 추구하는 동양적 영성을 무가치하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단언하고 무시한 우를 범했다. 이 시대에 영성은 '전 근대적 신화적 개념'으로 취급되며, 그 결과 영성은 특수 종교인들의 영적 체험과 영적 현상을 설명하는 예외적 특수 개념으로 전락되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성숙한 인간들 사이에서는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추방되었다. 영성의 빈곤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전통을 무시하고, 한계를 드러낸 서구적 이원론에 뿌리를 둔 기형적 영성의 상황을 지적한다.

또한 성서적 배경과 한국의 역사적 유산에서 공통적으로 뿌리깊게 자리하여 한국 교회의 영성에 깊은 영향을 끼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고와 문화가 여성 신학적인 새로운 해석의 요구에 직면하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95] 한국교회의 이러한 모습이 교회내에서 나타나는 형태는 직분 의식에 의한 차별, 전통과 교리에 대한 무반성적 맹종, 헌금의 비정상적 강조, 전통과 교리에 대한 무반성적 맹종, 헌금의 비정상적 강조, 기복적인 신앙형태, 성장에 대한 지나친 관심, 개 교회주의, 연합적 선교사업의 부재, 계속되는 이단과 정통의 시비, 몰윤리적, 몰사회적이라는 것이다. 한국기독교학회편, *교회와 코이노니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남재현, *의사소통 공동체로서의 교회*, 261.

한다. 오래 전부터 지배 구조로 자리해 온 남-녀, 인간-자연, 인간-하나님의 지배-종속 구조로부터 생명-조화 구조로의 탈피에서 올바른 영성의 역할과 이해에 접근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론적 탐구뿐 아니라 실천적 행동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영성을 잘못 이해함으로 생겨났던 신앙의 왜곡과 편협을 극복하고 전 생명체적 화해를 이루기 위한 영성 탐구의 출발점에 서 있다.

한국 교회의 영성 형성에 깊은 영향을 끼친 한국 전통의 사고방식과 신앙 방식의 부정적 특징은 네 가지로 요약된다.[96]

첫째, 성속 이원론의 틀을 견고하게 견지하여 현실 세계를 이탈한 피안적이고 몰 역사적, 세상 도피적 영성 훈련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반복하고 있다.

둘째, 영성이 인간의 총체적 전인적 인격체로서의 인간의 자기초월적 생명 현상임을 망각하고 특수한 종교 기능적 개념으로 변질, 축소시켰다. 이로 인하여 영성은 비현실적이고 추상적 개념으로 이해되어 현실 참여와 변혁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셋째, 현대 사회의 물질주의, 상업주의에 편승하여 자기 부정을 매개로 하여 세상을 구원하려는 사명을 망각하고 있다.

넷째 마지막으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 구조 속에서 지배-억압 구도로 세상을 이해하여 여성과 자연을 비하하고 착취해 온 영성의 인식론적 과오가 있다. 이러한 가부장적 문화 구조 속에서 성장한 한국의 남성도 양성 평등적 이해를 가지지 못하여 생기는 가정과 사회의 불행의 주역이 되고 있다.

---

[96] 김경재, '*포스트모던 시대와 열린 영성*' www.religionstheology.org

종교 다원화의 상황과 통일 운동의 과제, 토착적 신학의 확립과 생명 친화적인 신앙의 회복 등의 주요 과제가 주어질 새 천년에 우리 신앙의 영성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미래를 살아갈 청년들의 입장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탐구가 있어야 한다.

제 2 절 서구 신학의 역사와 특징

"하나님의 본래적인 지배 영역은 역사이다."[97]라는 명제는 구약의 하나님 인식의 기본이다. 그러나 역사는 영원한 동일 법칙에 의해 지배되지 않고 미래 지향적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의해 숨겨진 목적에로 인도된다. 우리가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의식에 동의한다면, 영성은 하나님의 역사성을 인정하고 그 역사의 목적을 향해 헌신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한 분이신 초월적 하나님이 창조, 율법 그리고 역사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는 바, 인간은 이 속에서 야웨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며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인식이란 신적 본질이 아니라 그의 의지에 대한 깨달음이었다.

그러나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희랍의 지배 하에 놓이게 되자 이스라엘의 신앙에 있어서 역사성은 피안성으로 바뀌고 종말론적 사고와 묵시 문학이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역사적 현실이 가장 중요한 이유이지만 종말론적 사고와 피안성의 신앙은 동시에 역으로 현실 신앙에 영향을 주어 기독교 신앙의 현실적 역동성을 정체시키고 미래 지향적 신앙을 형성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의 삶에 찾아오신 사건이다. 이스라엘의 현실에서 분리되었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일상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신 것이 예수의 사건이다. 이로 인하여 일상과 신앙이 하나되는 것이 가능해졌고 누구든지 예수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의 일상이 그분과의 관계를 통하여 거룩한 변화를 이루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98]

---

[97] 이정배, *하나님의 영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서울: 한들출판사, 1998), 15.

[98] 최봉기,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는 길*(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9), 46

영성이란 하나님을 일상에서 체험하는 신비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러한 신비의 영성이 우리에게 가능해 진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복음과 삶의 조화를 이루었는데 기도와 성서연구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다. 초대교회의 모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말씀공부(행 2;42, 3:12,, 고전 11:23, 15:11)

2) 합심기도(행 1:14, 2:4, 3:1-4)

3) 교제(행 2:42, 46, 3:11, 4:32)

4) 청빈, 구제, 봉사(행 2:44-45, 4:32-37, 6:1-6)

5) 금식(행 13:2-3, 14:23)

6) 복음전도(행 1:8, 2:4, 3:11, 4:31)

7) 섬김(고후 4:5)

8) 병자들을 위한 봉사(행 3:1-9, 5:12-16, 19:11-12)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신앙을 본받던 초대교회의 신학은 희랍적인 배경을 가지고 정립되었다.[99] 예수의 복음이 바울에 의해서 헬라-그리스 문화권으로 넘어간 이후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그리스-헬라 문화권의 이원론적 세계관, 존재론, 철학[100]에 의해서 기독교의 신학이 형상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학의 형성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준 사조는 영지주의이다. 이원론적

---

[99] 민경배, *영성의 역사적 뿌리*(서울: 연세대 출판사, 1985), 343.

[100] 김상일 교수는 논리학을 통해 동양과 서양의 다름을 비유한다. 서양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으로 참과 거짓을 나누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동양의 논리학은 역설 논리학로 거짓과 참이라는 등식이 성립하여 이원론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말한다. 즉 서구의 철학은 기본적으로 이원론에 기초하고 있다는 말이다. 김상일, *동학과 신서학*(서울: 지식산업사, 2000), 제 1 장 참조

철학은 영혼-물질, 이성-감정, 저 세상-이 세상, 하늘-땅, 남성-여성, 교회-국가 등을 양극적으로 분리 대치시키면서 앞에 나온 짝이 뒤에 나온 짝보다 우월하고 지배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여기에서 나온 영성은 금욕적인 특징, 이성으로 세상을 질서 지움, 저 세상의 강조, 존재론적으로 남성이 여성의 머리라는 이해, 교회와 국가를 분리하여 교회를 비역사적 공동체로 만들었다. 이러한 이해는 분명히 비기독교적인 것이다.[101]

주후 312 년 기독교의 공인 이후에 박해없는 시대가 시작되면서 교회의 영성은 피흘리지 않는 백색 순교정신의 발현으로 수도원 운동이 시작되었다.[102] 교회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의 전통과 중세의 수도원 운동은 기독교 영성의 주요 맥락이었다. 수도원을 중심으로 한 영성운동은 교회갱신, 사회정화, 구제사업, 교육제도 발전, 농축기술 개발, 종교사상가 배출 등으로 형식적 형태만 남은 교회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었다.[103] 그러나 이러한 수도원 운동을 주도한 주후 3-4 세기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동방교회의 영성도 영육을 이원론적으로 이해하여 명상이나 훈련을 통해 악한 육을 다스리고 제어하며 절대자와의 합일을 강조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오리겐-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이러한 모습이 많이 나타난다.[104] 또한 교회의 예배는 제의적 특성이 강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도 섬김의 대상으로서 주님(Kyrios)으로 강조되었다.

---

[101] 박대인, *초대와 중세의 영성생활*(서울: 연세대 출판부,1985), 346

[102] Ibid., 349-350

[103] 케니스레토랫, 유두혁역, *기독교사*(서울: 교문사 1980), 457

[104] 김상일, *동학과 신서학*(서울: 지식산업사, 2000), 94

이러한 영성 운동은 수도원운동을 통해서 그 명맥을 이어왔는데 수도원 운동을 크게 4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단계는 동방의 수도원의 정착으로 3-4 세기에 이르는 시기이다. 이 시기엔 로마제국의 말기적 현상과 종교의 세력다툼 그리고 교리논쟁 및 분쟁싸움으로 자연히 은둔적인 수도회가 발전되었다. 이집트는 이러한 수도생활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였고 수도사들은 육체적 고행과 노동을 통해 영성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은둔독거를 하던 성 안토니오(St. Antonil)와는 달리 바질(basil)은 공동체 수도 생활을 시도하였다.[105]

수도사들이 발전시킨 영성의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명상(Contemplatio)이다. 이것은 명상의 자세와 방법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표인 하나님을 보는 그 상태까지를 말한다. 명상은 복합적인 것으로 세단계가 있다. 첫단계는 정화로 청결과 청결한 생활양식이다. 두번째 단계는 계몽, 조명의 단계이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한다. 세번째 단계는 중세 신비주의의 요소로서 결합이다. 하나님과 하나되는 것이다. 나의 하나님과의 인격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말하는 것으로 수도사들은 이러한 형태의 영성생활을 가르치면서 지도했다.[106]

제 2 단계는 6-11 세기의 서방 수도원 확립기로 성 베네딕트(St. Benedict)가 몬터카스노(Montecasion)에 수도원을 세우고 수도원 회칙의 대헌장인 베네딕트 계율을 세웠다. 실제 8-11 세기 수도원의 전성기라 할만큼 베네딕트 수도원 제도의 영향은 컸다.

---

[105] 케니스 레토레스, 윤두혁역, *기독교사*(서울: 교문사, 1980), p457

[106] 박대인, *초대와 중세의 영성생활*(서울: 연세대 출판부,1985), 351-352

베테딕트를 중심으로 한 수도원은 개인 중심적 금욕주의와 교행주이를 보다 높은 영성신학으로서 진리의 빛을 찾는 '하나님을 찾는 학교'로 수도원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공동생활을 통한 공동체인 몸의 신학과 경건훈련을 확립하였다.[107] 이 베네딕트 수도원은 엄격한 금욕적 절제생활은 하지 않았지만 청빈, 순결, 겸손, 봉사, 고행을 통해 영성을 쌓았다.

제 3 단계는 12 세기의 제도적 부흥기로서 이 수도원의 부흥운동은 베네딕트 수도원 운동을 통해 이루어졌다. 특히 이 개혁운동은 프랑스의 클루니 수도원과 클레르보 수도원이 중심이 되어 일어났는데 세속의 권력개입을 벗어나 독립성을 유지하고 영성 훈련이 잘 된 인물을 교회감독으로 세우며 성직자 독신주의를 권장하였다.

12 세기 이러한 운동들은 13 세기에 이르러 4 단계인 걸식 수도회를 창립하게 한다. 이 식의 대표적 수도회로는 프란시스코회(Fransisco), 도미니코회(Dominice), 칼멜수도회(Calmel)를 들수 있는데 이 수도회들은 처음부터 어떤 구체적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특히 이때에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꼬가 과거 수도사들과는 전혀 무관한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운동을 전개하였다. 프란치스꼬의 성인의 운동은 평신도 운동이란 점이 특이하다. 성 프란치스꼬를 중심으로 한 이 수도회원들은 수도원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서 일했기 때문에 탁발 수사라고 불렀다.[108]

수도원 운동은 은둔, 독거, 묵상, 노동, 검소, 청빈, 극빈, 성경연구, 기도 명상, 침묵, 예배 등을 통해 영성훈련을 쌓아 인간 영혼의 신적 상태로의 상승을 목표로 일어난 운동으로 교회의 이단들을 회개시켰으며, 성직자들을

---

[107] 김경재, *영성신학*(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5), 136.

[108] I. V. Cully, 오성춘 이기문 류영모 공역, *영적 생활을 위한 교육*(서울: 예장총회교육부, 1986), 102

각성시키고 선교의 결심을 가져왔다. 또 교육과 성서번역 사업에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109]

그러나 이러한 동방교회적 영성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핵심은 영성의 중심이 그리스도에서 벗어나기 쉽다는 것이다.[110] 예수를 따르고 그 교훈을 실천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가 아니라 금욕과 육신적인 훈련에만 치우칠 경우 기독교의 생명력을 잃고 이교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111]

이렇게 변형된 기독교의 모습 속에 남아 있는 종교 혼합적 증거에 대해 불트만은 세 가지로 지적한다.

첫째, 성서 안에 하나님의 선한 창조와 사탄의 지배 영역 혹은 부정되어야 할 어둠으로서의 영지주의적 이해가 공재해 있는 것이다. 둘째 예수에 대한 묘사가 후기 유대교 묵시문학적 표상으로, 때로 제의적으로 공경된 주님으로, 어느 경우는 하늘로부터 온 선재하는 구세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다. 셋째, 교회가 구약적 의미의 아브라함 자손으로, 또는 성례전을 통해 참여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각기 다르게 설명되고 있다.

이렇게 신비주의적 영성을 바탕으로 진행되던 서구교회의 영성은 종교개혁으로 인하여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한다. 그것은 말씀이 모든 신학적 사고와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종교개혁의 영성의 중심은 성서였다. 종교개혁자들은 영은 말씀을 통하여, 말씀 한에서 역사한다고 주장한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 있는 구원의 계시의 '실재'를 지금 여기

---

[109] 엄세천, *영성생활*(서울: 기독교 한국 연수원 출판부, 1986), 30.

[110] 김상일, *동학과 신서학*(서울: 지식산업사, 2000), 96

[111] 무감각적인 평온상태, 명상의 강조와 같은 것은 당시 이교도 영성의 특징이었다. 이들에게 기도는 현실 도피적인 수단이었다. 그러나 분주하고 실용적인 현대사회에 있어서 동방영성에 대해 새로운 관심이 일어나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Ibid, 96-97

신앙자의 것이 되도록 현재화시키는 '보증자'라는 주장이다. 이것이 칼빈이 주장하는 내적증거이다.[112] 이러한 성서 중심의 태도는 성서해석과 설교 중심의 예배종교가 되는 발판을 만들었다. 교회의 영성이 성경에 토대를 두는 전환이 일어난 것이다. 말씀과 상령의 역사는 불가분적이다. 영은 말씀을 통하여 말씀 안에서 역사한다.

수도사 출신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영성을 Paul Althaus 는 두 가지로 설명한다.[113] 첫째, 성령은 말씀 없이는 말하지 않는다. 말씀이 먼저 나타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수단을 통해 성령을 주시는데 이점이 성령주의자들과 열광주의자들에 대해 강조하는 점이다. 둘째,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말씀 안에서 말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서는 단지 문자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한다. 이처럼 루터의 영성과 신학은 성서와 성령, 신앙의 객관적인 측변과 주관적인 측면이 역동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다.

또한 루터는 도덕주의의 한계를 절감한 사람이었다. 인간은 올바른 일을 행할 은총을 자기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 수도사의 특별한 노력도 충분치 않았다. 이러한 고민을 통해 마틴루터는 종교와 윤리의 관계를 역전시켰다. 우리는 신과 결합되지 않고서는 신의 의지를 실행할 수 없다. 따라서 루터에게 도덕은 신앙의 결과이지 그 원인은 아니다.[114] 즉 루터의 궁극적 목표인 의롭다 함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그 믿음은 성서의 메시지의 전적 수용이고,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기에 루터의 신관계는 객관적 관계가

---

[112] 지원용, *루터와 종교개혁*(서울: 컨콜디아사, 1965), 38-39.

[113] 강근환, *종교개혁시대의 영성과 기독교 영성*(서울: 연세대출판부, 1985), 356.

[114] P. Tillich, 송기득역, *그리스도교 사상사*(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3), 285.

아니고 그것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어떤 매개도 필요로 하지 않는 나-너(I-You)의 인격적 신뢰의 관계가 된 것이다.[115]

그러나 종교개혁의 배경의 사회적 배경이 된 근대 계몽주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면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어서 말씀과 성령이 함께 일하는 역사를 제한하고 말았다. 또한 감성과 초월을 추구하는 동양적 영성이 무가치하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단언하고 무시하였다. 따라서 영성은 '전 근대적 신화적 개념'으로 취급되며, 영성은 특수 종교인들의 영적 체험과 영적 현상을 설명하는 예외적 특수 개념으로 전락되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성숙한 인간들 사이에서는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추방되었다.

희랍과 로마의 신학자들은 예수의 신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소비한 막대한 노력은 결과적으로 예수의 인성을 애매모호하게 만들었고[116] 육체의 한계를 강조한 영성은 기독교의 영성을 육체적 삶에서 분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인간의 합리성을 강조하는 근대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와 신비적 능력을 제한하고 말았다. 이러한 서구신학의 한계는 동양에 기독교가 전래된 이후에 동양적인 신앙의 영성과의 교류를 통하여 더 분명하게 발견되었다.

이렇게 서구 전통의 기독교, 가부장적 영성의 또 다른 부정적 특징은 권위적, 계급적, 엘리트적이다. 억눌린 자, 병든 자, 가난한 자와 함께 했던 예수의 영성과 거리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원인으로는 기독교 신학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론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둘째는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권력, 돈, 명성 등과 결탁하는 기독교로 탈바꿈했다는데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론은 모든 우주의 존재들이 계급 지워져 있다는 것이다. 자유인에 의한 노예

---

[115] 강근환, *종교개혁시대의 영성과 기독교 영성*(서울: 연세대출판부, 1985), 357.

[116]토마스 G. 핸드, 이희정역,*동양적 그리스도교 영성*(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04), 209.

지배, 남성에 의한 여성 지배, 부모에 의한 아동 지배, 인간에 의한 자연 지배 등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졌기에 권위적이고 계급적인 영성의 출현은 당연한 것이었다. 나아가 몸/여성/자연 등은 부차적인 것이고 열악한 피조물로 비하되었고 소외되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상이하면서도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던 동방과 서방 교회의 전통에서 동방 교회의 소외는 서구 교회의 영성을 편향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근대사회를 이끈 계몽주의의 등장 이후로는 이성의 시대였으며, 자연과학적 합리주의 실재관이 인간의 영성을 억압하는데 결정적인 세계관적 패러다임으로 작용하였다. [117]

최근의 제 3 세계 남성 해방신학의 영성은 관념론적 영성에서 벗어나 기독교의 정치성과 역사성을 강조하며 현실에 눈을 돌려 가난과 억압에서 해방을 추구하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전통적 영성 이해에서 진일보한 내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십자가를 강조하고 순교자적, 영웅적 영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상호 관계적인 이해의 확장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여성 신학자들에게서 비판을 받는다.

한국 교회의 영성의 토대는 이러한 서구적 영성 이해의 수용과 가부장적 한국 문화이다. 한국의 문화와 종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 강요된 서구신학은 한국 교회의 영성이 형성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난맥상은 첫째 다원화된 종교 상황 속에서 타종교에 대한 절대적 배타성을 발판으로 성장한 한국 교회가 비기독교 토양에서 산출된 모든 영성을 사귀(邪鬼)적으로 단죄하는 풍토를 형성하였고 둘째 유대-유교적 가부장적 제도하에서 여전히 남성-중심적 차별을 묵시적으로 지지하는 한국의 문화 상황은

---

[117] "뉴톤-데카르트"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수학적 엄밀성으로 수량화하고 기획 재단하여, 세계와 자연을 계량화하고 기술공학적으로 조정 지배하는 합리주의적 세계관을 말한다. 김경재, *'포스트모던 시대와 열린 영성'*, www.religionstheology.org

생명과 화해를 위한 영성 형성에 지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 영성은 종교적 상황뿐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할 때 한국적 영성을 위한 노력은 복합적 차원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

전술한 것처럼 한국 교회에 있어서 영성 이해의 왜곡은 서구의 이원론적 바탕 위에서 가부장적 문화와 배타적 종교 이해의 결합으로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다.

최근에 한국에서 ‘영성신학’에 대한 급격한 관심의 증가는 서양의 근대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정신적 아노미 현상을 극복해 보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라고 김외식교수는 지적한다.[118]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서구사회와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세적이고 성공지향적인 신앙과 반대되는 ‘영성신학’이 요청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 기독교 역사와 한국인의 심성적 바탕에 통전적이고 생명 지향적인 영성의 전통이 있어 왔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영성 이해에 대한 혼란과 서로 다른 이해의 근거가 존재한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이해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도록 하는 힘이며 실천”이라고 볼 수 있다.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한인 이민자들은 한국 전통과 서구의 문화와 신학의 접점에 서있다. 또한 2 세들과 청년들은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주체자로 존재한다. 한인 이민교회는 이들을 중심으로 한국적 통전성과 실천성의 건강한 결합으로 인해 새로운 시대의 영성의 형성을 시도해야 한다.

[118] U.T. 홈즈, 김외식역, *목회와 영성*(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219

제3절. 한국적 영성의 형성과 과제

한국인들의 종교적 상황은 다원적이다. 아주 오랫동안 한국인 종교적 심성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샤머니즘과 외부로부터 들여져 왔지만 한국인 나름대로 수용한 불교와 유교, 그리고 조선 말기에 들어온 기독교까지 나름대로의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한국인들의 심성에 다른 종교들을 나름대로는 수용하는 종교 혼합적 성격이 나타나고 있다. 이민자의 상황은 이민 전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적 토양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수용되면서 이러한 종교 혼합적 특성을 두드러지게 나타낸다. 또한 이민 2 세 청년들은 한국적 혼합주의적 기독교의 바탕 위에 또 다른 서구의 기독교와 문화를 접하면서 제 이, 제 삼의 종교 혼합을 경험하고 있다.

이제 세계는 지구화 시대를 맞이했다. 모든 인종과 문화 그리고 종교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시대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시대에 있어서 한국의 전통적 영성 바탕은 지구화 시대에 이민 제 2 세대의 청년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해야 한다.

지구화 시대의 대표적 철학 사조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이는 철학이나 비판 사조가 탈 형이상학의 흐름에서 탈피하는 철학이다. 다양성과 개방성으로 인해 종교적 물음에 대해 일의적인 사상 체계의 형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생태학적 위협과 확대 재생산되는 악으로 인해서 전통적 신학의 입지가 축소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전통적 철학이나 신학의 형이상학적 언어의 담론이 비판되고, 인간 우월주의가 비판되면서 새로운 담론의 동기로 성령론이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성령론은 개별 주체의 타자성과 정체성을 보존시키려는 성령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메타 담론으로서의 성령론을 거부한다. 또한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 생명 중심으로고 가는 치유적 생명력으로 성령에 초점을 맞추어 지구화

시대의 타협과 대화의 가능성을 모색하게 한다. 이러한 성령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영성이 새로운 시대의 Key Word로 부상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전술한 한국인의 종교 혼합적 특성은 한국인의 심성이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형화되고 교리화되는 것보다 늘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확장되는 생명 지향성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새 시대의 영성은 '생명 가치'를 모든 가치보다 귀중하게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생태학적 윤리 의식'과 '생명 문화 창달'을 궁국적 관심을 삼아야 한다.[119]

'생명 존중'의 가치는 민중의 삶에 투신하게 하고 현실의 변혁에 참여하게 하는 바탕이 된다. 또한 이원론을 극복하는 통전적 영성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 관계성의 증진을 위해 열려진 영성이어야 한다. 한 예로 Eco-Feminism 은 자연 해방과 여성 해방을 동일선상에서 보는 운동 이념인데, 영성은 우리들이 자연과 함께 나누는 원초적인 통전성-야성(野性)의 회복과 이것에 근거해서 조화, 균형, 다원성을 지향하는 인간관계, 사회 관계, 대자연 관계를 이룩해 가는 것으로 이해한다. 즉 생명의 그물망에 의해 연결된 모든 생물의 생명과 가치를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명문화 창달에 있어서 여성-모성적 특성은 영성의 중요한 가치가 되며 대립과 지배의 가치를 정점으로 하는 가부장적 가치관을 극복할 대안이다.

새뮤엘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은 다가오는 세계에서 상호 충돌의 주체는 단순한 근대적 민족국가나 정치, 사회적 이념 집단 간의 충돌이 아니라

---

[119] 최근의 서구 신학에 있어서 특별히 여성 신학과 생태 신학은 동양의 통전적 사고와 생명 존중 의 사고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동양 정신과의 만남을 추구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전통과 풍토 속에서 형성된 생명 존중의 가치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종교를 그 핵심으로 삼는 다양한 문명간의 충돌이라고 보았다. 특별히 지난 300 년간 서구 문명의 보편성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도전의식을 굳이 숨기지 아니하는 이슬람 문명과 중화 문명권의 자기 주장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120]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 이후의 문명 의식에서 인간 영성의 자각은 '문명간의 충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위대한 종교적 영성들의 지평융합을 통한 문명들을 넘어서는 '영성 시대의 도래'를 예견하게 한다.[121] 새로운 영성 시대를 열어감에 있어 한국의 전통적 영성의 특성을 이해하고, 종교성을 넘어서는 지평 융합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인의 전통적인 영성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생명의 현재성을 중요시하는 생명 지향적 공동체 영성이다. 농업 중심 사회에서 형성된 한국인의 영성은 현실에 바탕을 둔 우주적 차원으로 넓혀가는 생명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감성적 영성이요 신바람을 핵으로 하는 역동적 영성이다. 한국인은 많은 고난을 통해 삶의 아픔에 대해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생명에 대한 연민과 동병상련하는 생명 공감대를 확장해 왔다. 동시에 이것은 합리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종교적 광기로 흐를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셋째, 한의 영성이다. 한국인의 집단적 무의식 밑바닥에 존재하는 종교적 원형으로서의 한(恨)은 변혁의 에너지로, 예술적 창조의 에너지의 근원이다.

---

[120] Samuel P.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Georges Borchardt, New York 1996 사무엘 헌팅턴, *문명의 충돌*, 이희재역(서울: 김영사, 1999), 제 9 장 277-332.

[121] 김경재, *'새로이 다가오는 영성의 시대'* http;//ifp.or.kr/academy/religion

한국인의 영성의 나아갈 방향 설정에 대한 대략적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의 영성 회복과 그 증진에 모든 종교 활동의 목적을 두어야 한다. 즉 과학과 계몽 속에 닫혀진 세계 속에서 열려진 하늘, 초월의 차원, 불확실한 것의 희망을 보여줌으로서 세계를 열린 세계로, 사회를 꿈을 지닌 사회로 인도해 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 전통의 축적물로서의 종교(Religion)가 아닌 살아 숨쉬는 영성의 분출 현상으로서의 신앙(Faith)을 회복해야 한다.[122]

셋째, 역사적 종교로서의 제약성과 상대성을 겸허하게 인지하는 성숙한 '해석학적 눈 뜨임'이 요청된다. '관용의 영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배타성의 극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22] Wilfred C. Smith, *종교적 의미와 목적,* 김경재, *'새로이 다가오는 영성의 시대',* http;//ifp.or.kr/academy/religion 에서 재인용

신학적 질문

1 이분법과 가부장제도의 특징을 기반으로 하여 형성된 서구 기독교 영성이 기존의 남성-여성, 하나님-인간, 인간-자연의 억압구조를 지탱하는 역할을 해왔다. 남성중심적이고 인간중심적인 신학적 이해에 대하여 상호보완과 협력을 통한 화해를 위한 하나님의 요청이 **통전적 영성**의 이름으로 여성신학과 생태신학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여성신학, 생태신학 등의 **통전적 영성**은 여성과 자연에 대한 억압의 철폐와 이분법적 사고의 극복을 통해 제도적 교회와 기존의 영성이 가진 억압구조를 철폐하고 화해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가?

2 과학과 문명의 발달은 동양과 서양의 문화와 종교의 만남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문명의 충돌은 지구적 영성의 형성을 위한 토대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문명의 우월성을 기반으로 한 기독교의 배타성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청 받고 있다.

동서양의 보편적 가치인 **생명 중심적 영성 이해**는 동서양의 보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서 다원주의적 상황의 배타적 영성 이해를 극복하는 영성 탐구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생명 중심적 영성 이해가 Eco-Feminism 의 물신성을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 하에서 보편적 영성 형성의 기반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제 4 장 교육적 분석

제 1 절 이민 청년의 교육현황

미국에 이민오는 한인 가정들의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자녀 교육이다. 한국의 교육적 상황(지나친 사교육비의 부담과 끊임없는 경쟁을 부추기는 입시 위주의 교육 등)이 자녀들 교육을 위해 이민을 오게 만든다는 것이다. 2003 년 한국의 상업 광고 방송에서 가장 호응이 높았던 상품 중 하나가 이민 상품이라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발생하였다. 그러나 막상 이민의 현실은 자녀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허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언어와 문화적 한계로 말미암아 실재로는 자녀들에게 충분한 교육적 효과를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자녀들의 교육 현장에서 부모가 분리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교회에 나오는 한 청년은 중학교 재학 중에 미국에 오게 되었다. 그는 중학교에 편입해서 학교를 다녔는데 고등학교 졸업 시험에서 한 과목에 낙제를 받아 졸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공식적으로는 한국의 초등학교 졸업장이 유일한 교육 기록이 되고 만 셈이다. 그 청년의 부모는 두 분 모두 일하셔서 돌보는데 한계가 있고, 나이 어린 동생은 잘 적응하고 있어서 스스로 받는 정신적 부담이 너무 컸다. 결국 저녁이면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는 한인 학생들끼리 어울리게 되었고, 부모가 원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게 되었다. 가깝게 지내는 본 교회 청년의 소개로 교회의 청년부에 등록하게 되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청년이 본 교회에 정착하게 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신과 비슷한 과정, 즉 중도 이민을 통해 학업의 어려움을 겪은 청년들이 있어서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실제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중간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님을 따라 이민 와서 자신도 적응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모가 기대하는 희망에 미치지 못할 때 심각한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본인은 내년에 졸업해서 기술학교에 진학하여 기술을 배우고 직장을 갖는다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교육은 사회의 주요 제도 중 하나이며 특히 현대 산업 국가에서는 중심적 제도로서 다른 제도가 담당해 온 기능의 많은 부분을 대치하고 있다. 가족과 교회는 어린이의 사회화와 교육에 주요한 책임을 담당해 왔으나 오늘날은 학교가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123] 그러나 학교교육의 중심은 직업적 성공과 많은 경제적 수입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편향은 교육의 기능성만을 강조하는 문제점을 노출시켰을 뿐 아니라 경쟁에 실패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낙오시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한인 부모들의 교육열은 유대인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한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한인 부모들이 원하는 교육은 기술적인 면과 상업적인 면보다 학문적인 면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사농공상(士農工商)이라는 유교적 사회 계층 이해에 많은 영향을 받았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교육열과 유교적 이해가 맞물려 한국의 교육적 상황은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국의 상황이 전 국민의 25%가 기독교인이 되었음에도 사회 내의 불의는 확산되어지고 공교육 내의 '왕따' 같은 인간 차별과 소외의 문제는 만연되고 있으며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교권의 분열과 파벌 그리고 갈등의 문제가 여전하고 교파 주의 물량 주의는 날로 그 세를 더하여 가고 있다. 최근에 급속히 확산되고

[123] 학교교육은 사회와 기술교육, 지위상승, 신지식의 발생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J. Victor Baldridge, *사회학,* 이효재 장하진 공역(서울: 경문사, 1982), 231.

있는 통일 논의에 대해서도 교회는 "제도권 교회의 고토 회복 내지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통일 논의" 이외에는 뚜렷한 신앙적 비전과 신학적 성찰 그리고 활동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인 이민 사회도 한인들의 이러한 성향은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다.[124] 한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에 진학시키는 것을 교육의 성공 여부의 기준으로 가지고 있다. 명문 대학, 명문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 방과후 학교는 물론 과외와 같은 한국적 교육 방법까지 동원한다. 또한 의사와 변호사, 그리고 간호사와 회계사 같은 전문직이 한인 부모들이 선호하는 직업이다. 물론 자녀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배려도 담겨 있지만 자녀의 성공이 곧 이민 성공의 등식으로 한인 사회에 퍼져 있다.

이러한 관념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명문 대학 진학에 실패하거나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한 한인 부모들은 나름대로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는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자녀들은 부모와 상대적 갈등을 겪게 되고 자신의 정체성에 상처를 받게 된다. 결국 대부분의 한인 청년들에게 잘못된 부모의 교육관으로 인한 상처가 남아 있고 여전히 부모와의 갈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이민 1 세로 언어와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 문제를 경험한 부모 세대는 자녀의 세대에 이루려는 심리적 투사도 있겠지만 한인들의 교육적 관심은 같은 아시아의 다른 민족들이 우체국과 지역 경찰 등의 현지 사회에 뛰어드는 직업을 선호하는 것과는 상당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

[124]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입장은 아시아 이민자들에게서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중국이민자들은 자녀들이 유명한 대학이나 성공적인 직업에 대한 기대보다 미국사회에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교사와 공무원에 많이 진출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이민자들에 대한 친밀한 이미지를 만들며 미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며 정책에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입안의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적 관심과 열심은 한인의 신앙 형태에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 한국 선교 초기에 선교사들을 통한 성서 번역과 매서인들을 통한 성경 보급, 그리고 사경회를 통한 성경 공부가 한국 교회 성장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현재까지도 한국 교회는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데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있어서 교회 학교에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절대시하는 경향은 목사의 설교에도 절대권을 부여하여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상화하는 경향을 만들었으며, 이러한 신앙의 유무가 교회의 직분 형성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고 우리 삶에 실현되어질 때 진정한 말씀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게 되었다.

현재의 교육적 상황을 신앙적 입장에서 살펴보고 오늘의 문제점을 극복하는데 기독교 영성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먼저 교회의 교육학적 현황과 문제를 살펴보자.

제2절 교육의 주체자로서 청소년 이해

1 청소년의 특징

1)신체적 특징[125]

청소년기의 발달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급격하게 이루어지는데 이는 청소년이 당면하는 적응 문제의 근원이 되며 지적, 정서적, 사회적 모든 활동에 큰 영향을 준다.

2)정서적 특징

인간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자극에 대하여 개인의 내부에 강한 감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잠정을 보통 정서라 부르며, 이 정서는 청소년기에는 과격하게 나타나기도 하며 또 쉽게 변화하게 된다. 청소년들의 정서가 극단적이며 가격한 원인은 일반적으로 내 분비선의 변화로 말미암은 것으로 본다. 특히 그 중에서도 성선과 신체적 변화로 보고 있다. 청소년기는 '질풍과 노도'의 시기이며 정서적으로 매우 과격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서 표출이 과격하게 되는 것이다.
장병림은 그의 저서 청년 심리학에서 청소년기의 정서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126]

첫째 정서의 격렬함과 동요성이다.

둘째 정서를 자극하는 대상이 변화한다

셋째 정서를 표현하는 방법이 변화한다. 청소년들의 정서 표현 방법은 외부에 표출하기 보다는 내면적으로 감추려는 경향을 나타낸다.

---

[125] 김대연, *"교회교육이 청소년 윤리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대전 침례신학대학신학대학원, 1995), 9-10

[126] 장병림, *청년심리학*(서울: 법문사, 1980), 107-121

넷째 청소년들의 정서에 변화를 주는 요인으로는 신체적 생리적 변화를 들 수 있다.

다섯째 개인의 생활 조건과 환경 조건에 따라 장서적 발현에도 그 개인차가 나타난다.

3)사회적 특징[127]

청소년의 발달은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충동의 증대에서 개인적 동기에 의해서 선택된 소수로 구성된 또래집단에로의 가입에서 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증대와 실제적인 의식에서 그리고 사회계층의 소속의식에서 기인한다.
청소년들의 근본적인 행동 자세는 한편으로는 독립하려는 경향과 다른 한편으로는 안정감과 평온을 주는 보호와 인정을 받으려는 경향을 지닌 양면 감정들로 특징지워진다.

청소년기가 시작되면서 청소년들은 더욱 많은 시간을 가정 밖에서 보내고 그들의 주관이 뚜렷해져 친구 취미 등의 선택이 뚜렷하여 그들의 관심 영역은 현저히 확장된다. 따라서 이 시기는 인식과 경험의 폭을 확장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인식과 경험의 확장은 가정과 부모에 대한 상이 변화되고 부모에 대한 의존적 태도에서 자주적 태도를 가지게 되므로 간혹 부모와의 마찰을 일으키게 되고 갈등의 원인이 된다. 또한 청소년은 자아에 대한 각성이 싹틈에 따라 비판적인 태도가 나타나게 되며 부모 교사 등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항을 하게 되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나타난다.

4) 도덕적인 특징[128]

---

[127] 김대연, *"교회교육이 청소년 윤리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대전 침례신학대학신학대학원, 1995), 9-10

[128] Ibid., pp.12-13

인지적 기능의 발달 그리고 성인들이나 동년배 집단들로 인한 여러가지 행동 자세의 수정을 통해 청소년은 아동기의 도적적 타율성에서 자율성에로 발전한다. 즉 강렬한 책임의식이 싹트고 확고한 양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려고 한다. 그래서 보편적 윤리 체계에 더욱 더 동화되어 가고 가치 체계가 형성된다. 대체로 청소년기는 도덕관에 혼동을 일으키는 혼돈의 시기이며 갈등의 시기이다.

5)종교적 특징[129]

청소년기는 정서적으로 동요의 시기이며 정신적으로 불안의 시기이므로 마음이 안식처로서 종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이들은, 높은 도덕을 구하면서 한편으로는 열등감이나 죄악감에서 고민하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서 청소년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가고 있던 수동적 태도에서 종교적 자각적으로 대응하면서 종교적 신념과 태도를 확립한다.

에릭 프롬에 의하면 무비판적이고 순수한 신뢰관계에 형성된 부모의 의존적 권위주의적 신앙 형태가 13 세 이후 청소년기에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형태로 독립 전환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종교의 가치체계에 대해 비평을 하게 된다.

영국의 심리학자 골드만은 12 세 이후를 종교적 단계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삐아제가 말한 청소년기의 형식적 논리가 발달함에 따라 신에 관해서도 종교적 사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웨스터 호프만은 청소년 시기의 신앙유형은 경험적 신앙귀속적 신앙의 단계를 넘어 탐구적 신앙과 고백적 신앙 형태로 발전 가능함을 시사했다.

---

[129] Ibid., pp.13-14

2. 청소년기와 자아정체성

1)자아정체성의 정의와 기능[130]

자아 정체성은 에릭슨이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이다. 그는 자아정체성에 대하여 정의하기가 어렵다고 하였지만 자신의 저서들 속에서 자아 정체성의 개념을 심리사회적 정체성(Psychosocial Identity)과 개별적 정체성(Individual Identity)을 말하고 있다.

심리사회적 정체성이란 개인이 속하고 잇는 집단에 대한 귀속감 내지는 일체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민족적 주체 의식이라던가 국가적 주체의식 등으로 나타나는 집단적 정체의식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는 달리 개별적 정체성이란 개인이 집단 내에서 타인과는 다른 독립된 고유한 존재로 서 갖게 되는 정체 의식인데 에릭슨은 이를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그 하나는 개인적 정체성(Personal Identity)과 자아정체성(Ego Identity)이다. 개인적 정체성이란 시간이 흐르거나 상황이 바뀌어도 자기 자신이 여전히 동일한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자아 정체성이란 개인적 정체성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는 자기 자신이 시공을 초월해서 언제나 동질적이고 연속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 자체에 대한 단순한 인식 이상의 것이다. 에릭슨에 의하면 '자아정체성은 개인의 자아(ego)가 그의 인성체계(superego, id, ego)를 통합하는 방식에 있어서 동질성과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동시에 자신의 자아의 통합장식이 개인적인 존재적 의미의 동질성과 연속성을 견지해 나가는데 유효하다는 것을 또한 자각하는 것' 이라고 했다.

[130] 오경숙, "자아정체성 형성을 위한 교회의 청소년 교육에 관한 한 연구"(석사학위 논문, 장로회 신학대학교 대학원, 1997년), 46-48

자아정체성이란 대인관계, 역할, 목표, 가치 및 이념 등에 있어서 자기가 지니는 고유적인 '자기다움'에 대한 자각과 이에 부합되는 자기 통합성과 일관성을 견지해 나가려는 의식, 무의식적인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아 정체성은 "청소년기에 있는 젊은이들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에 자극을 받으며, 자신들의 삶을 새로운 방법으로 보고, 느끼며, 새로운 방법으로 꿈꾸고, 계획하며, 결국에는 자신의 삶을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에 맞추어 설계하고 건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귀중한 능력의 뒷받침이 되는 것을 찾아내는 작업"으로서 개인의 과거에 대한 역할상인 동시에 현재에 의미를 부여하고 미래의 행동을 지도하는 역할을 한다.

2) 자아정체성의 형성과정

에릭슨의 인간의 발달 단계를 통하여 볼 때 발달 단계가 궁극적으로 정체성 확립의 과정이며 청소년기는 단지 정체성 확립을 위한 중요한 시기일 뿐이다. 에릭슨의 8 개의 발달단계를 통해서 이를 청소년기까지 만 살펴보자

제 1 단계는 기본적 신뢰 대 불신(basic trust vs. mistrust)의 시기로 출생 후 1.5 세까지를 말한다. 이 단계의 발달은 전 자아 발달 과정의 기본 토대로서,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서 신뢰 및 불신이 형성된다. 이 시기의 기본 신뢰감은 장차 청소년기에 가서 부딪치게 되는 정체성 위기에 처해서도 자기 고유성을 잃지 않고 견지해 나갈 수 있는 튼튼한 자아 역량(ego-strength)을 키워 나가는 모태가 된다.

제 2 단계는 자율성 대 수치심과 의심(autonomy vs. shame, doubt)으로 표현되는 기간으로 1.5 세에서 3 세의 기간이다. 스스로 행동하려는 아동의 노력을 칭찬하고 격려하면 자율성이 형성되지만, 지나친 억압이나 조롱은 아동의

자율성을 손상시키고 수치와 의심을 발달시킨다. 이시기에 획득된 자율성은 자아정체성 발달의 기틀이 되며, 수치심과 의심은 긍정적이고 일관된 자아상을 발달시켜 나가는데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

제 3 단계는 주도성 대 죄책감(Initiative vs. guilt)의 단계로서 생후 3 년부터 약 6 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아동들이 스스로 설정한 계획과 기대가 이루어지면 주도성이 형성되나 잦은 실패와 주위의 억압은 죄책감을 형성한다. 이 단계에서 주도성을 획득한 아동은 성취목표가 뚜렷한 강한 자아정체성의 소유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반면에 죄책감을 발달시키게 되면 성장 후에도 어떠한 목표 설정에도 망설이게 되는 나약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제 4 단계는 근면성 대 열등감(industry vs. inferiority)의 시기로 6 세부터 11 세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 근면성이란 사물을 만들고 도한 잘 만들며 완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느낌이고, 열등감이란 자신으로부터 그리고 자신의 일로부터의 소원의식이다. 지적인 기술과 다양한 경험, 또래와 놀면서 함께 어울리는 사회 생활 등을 습득하는데, 이러한 작업을 통한 아동들의 성공 경험은 근면성을 발달시키나 실패는 열등감을 야기시킨다.

제 5 단계는 자아정체성대 정체성 혼란(ego identity vs. identity confusion)의 시기로 청소년기 즉 12,13 세에서 20 세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 단계에서 청소년이 해야 할 과업은 자신의 역할에 관한 모든 자기상을 고정시키고 이 자기상을 과거와 미래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개인적 정체성에 통합시키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자기 인식과 자기 이해의 혼란에 빠지면 역할 혼동과 정체성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 이 시기에는 다양한 역할 실험을 통해 자신의 독특성을 인정하고 타인의 견해를 이해하며 세계에 대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 그들은 스스로를 찾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일종의

‘타임 아웃’ 기간으로서의 심리사회적 유예기간(psychosocial moratorium)을 갖는다. 다라서 유예기간이란 개인의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확립하기 위해 외부적 요구로부터 일시적으로 해방되는 기간을 의미하며, 청소년이 자기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자리(활동분야)를 자유로운 역할 실험을 통해 찾는 기간이다. 정체성 확립은 이전까지의 여러 성취 경험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나 미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청소년에게 미래의 자기에 대한 꿈을 심어주는 일이 지도자로서의 성인이 할 일이다.

제 6 단계는 친밀감 대 고립(intimacy vs. isolation)의 시기로 성인 초기인 20-40 세의 기간을 뜻한다. 청소년기에 합리적이고 확고한 정체성을 형성한 사람은 타인과의 상호관계에 몰두하면서 친밀감을 발달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자아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사람은 타인과의 접촉에서 자기 자신을 상실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타인과의 지속적 친근관계를 이루어 나가지 못하고 친밀감과 반대되는 고립감이 형성된다.

제 7 단계는 생성감 대 침체(generativity vs. stagnation)의 시기로 25 세-60 세 까지를 말한다.

제 8 단계는 자아통합 대 절망(integrity vs. despair)의 시기로 노인기를 말한다.

3) 자아 정체성 형성요인

자아정체성이 형성되는데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지만 중요한 네 가지만 언급하려고 한다.

첫째 신체적 요인이다. 청소년기에 급격히 일어나는 신체의 변화는 자아정체성 형성에도 기여한다. 청소년기의 생물학적 변화는 심리적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은 자기 통제적인 능력을 발달시킴으로써 그들 스스로 발달의

주체자(agent)이자 조형자(,shaper),이며 동시에 선택자(selector)가 될 수 있으니 밝고 긍정적인 생각의 훈련을 하면서 자신의 체격을 인정하고 성 역할을 수용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자신의 외모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인정하고 깨닫는다면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부모이다.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형성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주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이다. 즉,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 전적으로 신뢰하는 관계이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풍부한 사랑과 격려와 기본적 신뢰가 있을 때 청소년들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자아정체성을 형성해 나가게 된다. 부모의 양육방식과 태도, 가치관이나 신념, 그리고 가정의 분위기는 청소년들의 자아 정체성 형성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부모 이외에 영향력 있는 어른에게서도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교회학교 교사나 목회자가 바람직한 동일시의 모델이 되어 준다면 부모 대신 그의 정체성 형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모의 경건함이 반드시 자녀에게 대 물림 되는 것도 아니며, 부모의 완악함이 자녀에게 유전되는 것도 아님을 보여줌으로써 자녀의 됨됨이나 장래가 부모의 영향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나 주권에 의해서 좌우됨을 보여준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사랑과 격려로 안정된 분위기를 조성하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또래 집단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관계속에서 살아간다.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을 가정에서 공급받으면서 자라다가, 점점 또래 아이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 가정보다는 학교, 또래 집단, 사회단체 등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에 있어서 친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놀이문화를 공유하는 한편,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가 공유되고, 사회적은 규범을 학습해 가는 학습장으로서 또래집단은 그 중요성을 갖는다.

청소년은 또래 집단에의 소속을 통해 '내가 누구이며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것일까?' 라는 의문을 자신에게 던지면서, 사회적 승인이나 교제에 대한 욕구, 리더십이나 권력에 대한 욕구, 지위나 명성에 대한 욕구를 의식하게 된다. 또래집단 속에서 소외라는 갈등 위기를 긍정적으로 해결했을 때, 사회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고, 집단에의 소속의식도 생기면서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이 형성된다.
또래집단은 청소년들이 그들의 사고와 행동을 비교해 보면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기준집단으로서의 역할도 하게 된다.

네째로 문화적 요인이다. 청소년기의 정체성 확립은 어느 문화에서나 발견될 수 있는 보편적 현상은 아니다. 즉, 그 문화가 갖는 특성이 청소년기의 길이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의 계속성이 적고 문화적 불연속성이 클수록 청소년기는 길어진다.

문화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이 획득한 지식, 신앙, 예술, 도덕, 관습 및 기타 모든 능력과 기능을 포함하는 복합적 총체로서 결정하고 변형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는 인간의 활동이다. 그러기에 문화는 정태적이기보다 역동적이고, 명사적이기보다는 오히려 동사에 가깝다. 인간은 문화를 창조하고 변화시키지만, 동시에 문화는 우리 인간의 경험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4)자아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종교의 역할

에릭슨은 종교는 이념과 같은 기능을 하면서 청소년기의 발달과제인 자아정체성 형성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된다고 하였다. 실제로 청소년기에

이르면 젊은이는 자연스럽게 어떤 이념적 관점에 자신을 맡기려는 욕구를 갖게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어떤 신념이나 이념 체계에 근거하여 자신이 희구하는 인생의 방향을 찾으려는데 나타나는 것이다.

신앙은 상호관계성 속에서 형성되는데 영향을 주는 그룹들은 가족, 동료, 그룹, 학교 직장, 매스컴, 유행되는 문화, 종교집단 등이고 영향을 주는 영역에 있는 동료나 성인들은 잠재력이 있고 의미있는 타자들이다. 이 여러가지 의미있는 타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의미있는 타자가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에게 자신을 위탁하게 되고 이것이 젊은이들의 정체성과 기치관형성에 많은 영향을 준다. 신앙은 그들의 삶에 안전과 지원을 제공하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며 세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안목을 갖게 하고 창조주와의 사랑의 관계를 제공하여 준다.[131]

청소년들이 갖게 되는 종교적 신앙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삶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며, 특히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종교가 갖고 있는 인간 실존과의 연관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종교의 빛에 비추어 자신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재해석하게 되며, 그와 함께 절대적 존재와의 관계에서 삶의 태도를 재정립하도록 해준다. 그러므로 종교는 자아정체성 형성이라는 중요하고도 힘든 과제를 안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음이 분명하다.

---

[131] 정웅섭, *기독교교육 개설*(서울: 대한 기독교교육협회, 1990), 131

제 3 절 교회 교육의 문제점

1. 신앙의 원천인 성서의 왜곡

성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는 특정 교리나 신조보다 더 권위를 갖는다. 성서가 특정 교파나 이론을 지지함으로써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시로서의 성서, 이것이 성서의 권위이다. 즉 성서가 올바로 이해될 때 성서의 참 진리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 성서의 권위이다.

그러나 현실은 성서가 특정 체제의 유지에 기여하거나 특정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데 이용되고 있으며 특정 계층이 교회 내에서 자신들의 신앙과 논리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서 성서를 사용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는 율법적 성서 해석으로 성서를 율법 아래 선인과 악인, 남성과 여성, 인간과 자연의 차별 구조를 만들어 성서가 마치 이러한 차별을 용인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특별히 여성의 안수 문제는 한국 교회의 해묵은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많은 기존의 목회자나 기득권 층은 몇 개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성의 목회 진출을 막고 있다. 심지어는 이러한 현상 뒤에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가부장적 생각이나 여성 비하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의심마저 가지게 한다.

1970 년대의 민중 신학이나 해방 신학에 대한 정부의 탄압과 기성 교단의 비난은 결국 성서를 자신들의 입장만을 변호하도록 왜곡하는 좋은 사례이다. 또한 카톨릭 교회가 성서를 신자들로부터 분리하고 성서의 해석권을 성직자 층이 독점하고 교권을 강화하여 중세 암흑기를 만들고 결국 종교 개혁의 원인을 제공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있어야 한다. 각 사람에 대한 성서의 말씀은 또한 전체성서의 보편성에 의해 검증되어야 한다. 성서는 억압과 차별을 철폐하고 모든 비인간화를 거부하며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난다.

2. 교육의 방법론적 문제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참다운 그리스도 인을 양육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인이 그리스도인 답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인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데 있다. 그런데 현재 기독교 교육적 방법으로 선택된 제도화된 서구의 학교 중심의 교육은 이러한 삶 중심의 교육이 아닌 지식 전달 중심의 방법으로 삶으로부터 괴리된 신앙 교육이 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고찰해야 한다.

첫째. 교육의 방법이 성서를 독점한 지식인과 사제 계층에 의한 일방적 주입식, 전달식, 그리고 억압화된 교육 방식이라는 것이다. 주입식 방법은 전달자의 사고나 논리가 피교육자에게 그대로 강요되는 억압의 형태를 가지게되며 성서 교육이 삶의 방식이 아닌 지식 중심의 전달에 그치게 한다. 이러한 지식 중심의 교육 방법 하에서는 생명과 창조의 영성, 변화와 개혁의 영성은 그 자리가 없다

둘째 서구의 학교 교육 형태의 제도화된 교육은 억압의 형태를 통해 지배 구조의 합리화 내지는 지배 구조를 만들어 낸다. 성서 학습이 인간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의 해석권을 가진 사람들의 지배 계층화를 조장하며, 또한 성서 학습이 자본주의 체제 내의 비합리적이고 비인격적인 무한 경쟁 체제 내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의 승리를 통한 계층 상승의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교회의 공동체를 변질시켜 간다는 것이다. 또한 성서 학습

과정이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양육되도록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특정 사람들을 선별해 내는 역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전술한 청년의 문제는 자신의 관심과 의지와 상관없는 출발된 교육적 상황이 주요한 원인이다. 본인의 의사나 능력과 상관없이 주어진 부모의 지나친 요구는 심리적 갈등과 실패를 가져왔다. 교육받는 사람의 요구와 재능을 개발하고 채우는데 교육의 초점이 맞추어지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투사된 부모의 요구는 결국 교육적 왜곡을 가져왔다. 교육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계발하는데-자기 실현-에 초점이 있다. 나아가 성서 교육은 말씀을 통하여 성서의 선포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성서 교육이 교회의 권위와 설교자의 권위를 보장해 주는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성서를 공부하는 사람의 상황과 성서의 만남을 주선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성서 교육을 통하여 왜곡된 교육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해방과 재창조의 과정 안에 영성의 활동이 존재한다. 이러한 영성의 활동은 성서 교육만 아니라 나아가 교육의 변화를 가져오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지식의 차원이 아닌 삶의 차원에서 다가오는 교육만이, 생명에 대한 경외와 이웃에 대한 관심을 회복하는 교육과정 안에 영성의 회복이 있고 영성의 회복은 교육의 과정에 생명을 회복하게 한다.

제 4 절 실천적 영성교육을 향하여

교회의 목회적 배경에서 설명이 되었지만 본 교회의 청년부는 3 년 전부터 새롭게 모여지기 시작하였다. 두 사람으로 시작된 청년부는 청년의 이해와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그들의 관점에서 신앙을 재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작되었다. 청년부 모임에 있어서 기본 방침을 몇 가지로 정하였는데 첫째는 한글이 한민족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기본적 요소라는 인식 하에 한글을 주로 사용하기로 하되 필요하면 언제든지 영어를 함께 사용하였고 둘째는 모든 청년부원들은 주일날 한글로 진행되는 장년 예배에 참석하여 장년 세대와 신앙 문화를 공유하도록 하였다. 셋째는 청년부의 친교를 위하여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이용하였는데, 즉 청년들은 서로에게 형, 누나, 언니, 동생으로 호칭하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청년부 예배는 토요일 저녁에 진행되며 한글과 영어 찬양 그리고 성서의 내용을 주제로 한 사람의 발제자와 자유로운 토론으로 진행된다. 처음에는 언어가 주는 불편함도 있었고, 2 세와 유학생들 사이의 문화적 차이도 있었지만 현재는 약 15 명 정도의 청년들이 토요 모임에 참석하고 나름대로의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청년부의 학습 방법은 크게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있다.

1 “프레이리의 의식화”

프레이리는 자신이 자기 자신을 제한하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설정하는 것에서 교육을 출발한다. 이는 자신의 문제이기에 생성 주제라 하며 이러한 생성 문제의 표출을 통해 주제적 인간사이의 대회가 이루어지고 주체적 인간 사이의 만남이 가능해진다. 문제설정 자체가 자신의 의식의 표출이고 행동이기에 이것은 곧 프락스시로 이어진다.

프락시스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므로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공동체적 행위이며, 또한 단순한 문제 인식만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려는 행동의 계속 과정이므로 해결의 능력을 획득해 가게 된다. 이 과정이 의식화이다.[132] 청년들의 발제는 자신들의 문제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자신들의 문제점을 친구들이 지적하고 이해하게 함으로써 의견의 표현과 수용을 원할하게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얻어진 결론은 곧바로 자신의 행동으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과정 중에 기독교 영성은 지식과 삶을 연결하고 생각과 행동을 연결하는 원동력의 역할을 한다.

다원화 시대의 청년들 교육을 위해서 파울로 프레이리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점은 세 가지, 즉 그의 의식화 개념, 공동체 개념, 그리고 실천을 위한 교육 등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 파울로 프레이리의 교육 사상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의식화" (Conscientization)는 "의식의 각성"이라는 뜻인데, 자연과 사회 속에서 자기의 위치를 명확히 하고 실제적으로 인식하는 정신 상태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는 자기의 입장을 다른 상황, 다른 가능성과 비교함으로써 그 원인과 결과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말하며, 변혁을 목적으로 논리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능력을 말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최상의 길은 역사 속에서 행동하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일이다.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과 동일하게 "행동하는 주체"(agent)이다.[133] 교회 교육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132] 김성재, *분단현실과 기독교민중교육*(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8), 167.

[133] John H. Westerhoff III,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Church Pub Inc, 2000), 74.

형상"으로서의 자신을 인식하고, 주변의 환경과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영향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유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공동체의 개념에 있어서 인간은 역사 속에서 영원히 미완성으로 남게 된다. 인간은 언제나 있음(being)의 존재일 뿐만 아니라 만들어져감(becoming)의 존재이다. 그리하여 인간은 끝없이 인간화를 추구하고 '더욱 인간적'으로 되려고 노력한다. 역사에 대한 성찰은 그 성찰에 대하여 다시 성찰할 수 있다는 것, 인간은 언제나 역사 속의 존재라는 것, 그리고 끝없이 생성되어 가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킨다. 현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는 것이 되며, 이런 의미에서 현실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제기된다.

되어감의 존재로서 인간의 존재는 그 되어감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 현재 이민 사회에서 만연된 공동체성의 붕괴는 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원인은 각 개인의 실존적인 문제들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은 역사성에 대한 문제 의식이 약화됨에 따라 우주적 미아처럼 살게 된 것이다. 각 개인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단지 현재만을 중요시하고,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의 추구를 위하여 사유하고 행동함으로써 더욱 고립된다. 이것은 인간의 소외와 이기주의로 발전되고, 따라서 공동체적 의식은 거의 사라진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 교육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하는 성도들의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과 종교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 져야 함을 이스라엘 역사는 보여준다. 성경이 말하는 최초의 교육장소는 가정이다. 신명기 6 장에 기록된 쉐마의

선포장소는 가정이다.[134] 또한 이스라엘에 있어서 회당은 교육과 예배를 겸한 곳이었다.[135] 신앙교육은 예배여야 하고 삶이어야 한다. 아이들은 삶 속에서 배우고 배운 것을 삶 속에 해석하고 실천하는 것을 배운다. 이것이 유대공동체가 2천년 동안 나라가 없이도 존재한 중요한 원인가운데 하나이다.

한인 이민 사회가 교육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가정과 교육이 연계되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136] 가정과 분리된 교회교육은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한 나무와 같고 한 축을 상실한 바퀴와 같다. 이민자로서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이 존재하지만 이민교회는 각 가정에서 신앙교육과 인성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가정과 연계하여 노력해야 한다.[137]

“기독교 사회교육은 사람들의 삶과 의미를 집약하는 삶의 준거를 마련하는 일에서 출발하여, 창조적 공동체 형성을 통해 역사 변혁을 모색한다. 바로 이 삶의 준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며, 창조적 공동체는 이 사랑을 근거로 형성되어 사회 변혁을 모색하게 된다.”[138] 교회 교육은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하여 인간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고, 가정과 교회에서 그 공동체성을 체험하게 해야 한다.

아미쉬공동체는 현대의 사회 속에서 기독교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들

---

[134] 부모된 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먼저 출발이 됨을 알려주는 것이다. 권상길, *디아스포라 2세 교육목회*(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2009), 102.

[135] 에드워드.로제, *신약성서 배경사*, 박창건역(서울: 대한 기독교출판사, 1984)142.

[136] 권상길, *디아스포라 2세 교육목회*(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9), 96.

[137] 가정중심의 신앙교육이 교회와 연결될 수 있는 고리는 부모들의 교사참여이다. 부모는 영어는 부족하지만 이미 교사로서의 기본 자질은 준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1세 부모들이 교사로 교육에 참여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38] 은준관, *기독교교육 현장론*(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380.

공동체의 원동력은 깊은 신앙심을 바탕으로 끈끈하게 맺어진 관계와 조직이 상하 수직적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이다.[139] 이러한 특징은 이민가정과 교회가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이다.

셋째, 실천을 통한 교육은 토마스 그룸의 "몫을 나누는 실천 모델"[140]이라는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실천 속에서 공유하고 참여하는 실천'을 통한 것이다. 파울로 프레이리에게 있어서 '프락시스'는 비판적인 분석을 위해 편찬된 구체적인 상황들이다. 사건들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상황과 일어난 사건들과 사실들을 분석하기 위해 편찬된 이론적 상황 사이의 관계를 곧 프락시스라고 부른다. 삶과 역사와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프락시스"는 곧 교육이 자유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행동 - 성찰 - 행동"이라는 의식화 작용이 일어나고, 이 "행동 - 성찰 - 행동"이 바로 프락시스이다. 교회에서 청소년들의 실천은 매우 제약되어 있으나, 여기에서는 거대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은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의 행동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청년들의 실천은 그들이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교회에서 행하는 일이나 사건도 포함한다.

이 실천적 측면에 있어서 교회 교육은 먼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찾아내고 그 실천을 통하여 자신의 삶의 성찰하고, 교회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과 경험을 공유하게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특히 신앙을 통한 실천이 청소년들의 전 삶의 영역으로 확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찰은 행동의 결과를 분석적으로 인식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새로운 행동을 예시하는 방법이면서, 경험에 뒤따르는 상황을 의식적으로 활력화하는

---

[139] 임세근, *단순하고 소박한 삶-아마쉬로부터 배운다*(서울: 리수, 2009), 105.

[140] 강희천, *기독교교육사상*(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1), 159-161.

행위이다. 따라서 행동과 성찰은 동시성을 가지며 동시에 상호 보충적인 기능 속에서 비로소 인간은 세계를 의식하게 되고, 세계를 역사화하는 일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참여와 실천을 통한 교육은 이전의 의식화나 공동체성을 위한 교육을 총괄하여 돕는 방법이고, 이를 통하여 고립된 개인은 공동체적 삶의 현장으로 나오고 연대성의 참 의미를 깨달음으로써 풍요로운 활동을 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모든 과정이 현대의 청소년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고립감, 그리고 이기주의의 잘못된 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교회 교육에 있어서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그들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과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속에서 인간이 노력할 때에, 그 신앙은 개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용기와 에너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한다. 이러한 신앙을 근거로 하여 교회 교육은 그 신앙을 확실한 방법으로 전달하고 계승하는 것이어야 한다. 곧 교회 교육의 본질은 우리가 각각의 인간으로서 또한 교회로서 이 신앙과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격려하는 일체의 활동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2 “일리히의 공생의 교육”

이반 일리히의 대표저작은 [탈학교화 사회]이다. 이는 남미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지만, 그것은 남미를 넘어 전세계를 향한 고발이라고 볼 수 있다. 일리히의 비판은 인간을 인간답게 교육하고 또 배우는 학교가 인간과 사회를 끊임없이 소비 지향적인 성격으로 변질시켜 가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와

인간들로 "학교"없이는 생존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가는 거인으로 타락했다는 것이다.

오늘날 학교교육에 대한 비판은 그것이 한국이든 혹은 세계 무대이든 그 처음 사랑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고 또 우주적이다. 인간과 역사의 문화화를 목적으로 해야 하는 학교가 비대화와 함께 자신의 비만 중에서 시달리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사회의 계층화와 소비 문화 촉진의 시종으로 전락했다는 데 그 위기가 있다. 이것은 모든 교육을 학교화하고, 또 획일화되는 데서 오는 다양성과 인격성의 소멸이며, 이는 학교를 힘 잃은 거인으로 몰고 간다. 초월적인 가치 설정에서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서구 학교가 가진 기회균등의 신화와 경쟁 체제의 한계에 대한 비판으로 일리히는 공생의 사회를 새로운 교육 방안의 근거와 목적으로 삼는다. 공생의 사회란 "인간에게 남의 통제를 덜 받을 수 있는 도구를 써서 가장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사회"[141] 이다. 또한 일리히는 기독교인을 이 시대의 십자군이라 명하면서 "이 사회의 발전, 생산, 소비에 대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동과 제한을 가하여 발전이라는 우상과 생산이라는 오염된 확산을 포기하여야 한다"[142] 고 주장한다. 그는 교회를 시대정신을 생산하고 확산하는 모태로 인식하고 이러한 공생의 교육, 겸비의 정신[143] 이 교회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말한다. 이러한 교육적 관심과 정신은 예수의 정신과 그 중심이 맞닿아 있으며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다.

---

[141] 김성재저, *분단현실과 기독교민중교육*(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8), 171.

[142] 존. L 엘리아스, *의식화와 탈학교화,* 은준관& 김태원역(서울: 현대사상사, 1984), 56.

[143] 빌립보서 2 장 11 절의 자기 비움의 케노시스의 정신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일리히의 주된 방법론 가운데 하나가 네트워킹(Networking)이다. 그는 인터넷을 몰랐지만 이 시대에 인터넷을 통하여 이 땅의 소수 민족으로 사는 한인 이민자들의 단결, 예수의 정신을 따라가려는 사람들의 연대, 사회와 주요 문제들에 대한 참여가 이를 통해 가능해 졌기에 이는 앞으로 매우 중요한 기독교 교육의 방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년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실천의 장을 가지게 될 것이며 지역에 기반을 두면서도 지역을 극복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전술한 청년은 자신의 문제를 제기하고 앞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계획들을 토론하고 신앙적인 결단을 통해 내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술학교에 진학하여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였고 나아가 이 과정을 통해 기독교 정신과 비전을 가진 청년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교육심리학적 질문

1 민중신학은 민중의 인식론적 특권과 해석학적 특권,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편드심을 주장한다. 성서에 있어서 가난한자, 소외된 자, 낮은 자에 대한 예수의 특별한 관심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민중에 대한 편중성은 평등성 시비가 끊임없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좋은 보완책이 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교회공동체을 양육하는 기독교 교육의 목적에 비추어 일리히의 공생의 교육은 매우 유익하다. 민중에 대한 편중성이 공생의 교육에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영성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2 성서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다. 이러한 연결은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이며 현실적 특성을 규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성서는 신앙과 실천, 믿음과 생활을 분리하는 모든 시도를 배격하고 하나됨을 강조한다.

신앙과 실천, 믿음과 생활이 하나의 가치임을 전제로 실천을 통한 신앙의 성숙, 생활을 통한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한 실천적 영성의 형성에 의식화 교육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제5장 심리학적 분석

이민 교회의 청년들은 서로 동지이면서 또한 경쟁자이기도 하다. 애정문제와 결혼 그리고 학업과 취업과 서로 의지하는 동료이며 동시에 경쟁자이다. 이러한 구도는 청년부의 활동에 많은 영향을 준다.

교회 내에 자연스럽게 이성교제를 하는 청년들이 생겨났다. 한 여성을 두 사람의 남성이 좋아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청년부의 핵심적 역할을 감당하던 두 남성회원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 한 청년은 미국에서 자란 사람이고 다른 청년은 한국에서 온지 얼마되지 않은 청년이었다. 여자 청년의 입장에서는 처음에 자신의 선택이 아닌 서로 다른 두 남성의 관심은 부담스러운 것이었고 결국 한 남성을 선택하여 교제하게 되었다.

이들의 이성교제는 다른 청년들에게는 자연스러운 비밀이 되었고 임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남녀 이성교제에 대한 신앙적 입장을 정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청년들은 이성을 선택하고 교제하며 결혼하는 것과 직업을 선택하는 문제 그리고 청년의 시기에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결정들은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일이라는 생각과 또한 서로 비교되고 보이지 않는 경쟁이라는 차원에서 열려있지 않다. 청년들은 이러한 일에 대하여 서로에게 실제적인 정보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러한 장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

부모세대와 다른 모양의 이민자로 정착하고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살아야 하는 청년들에게는 자신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희망과 불안, 긍정과 부정의

양면을 다 존재한다. 이러한 청년들의 심리적 상태에 대한 이해는 이민 청년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접근과 도움을 가능하게 한다.

공동체로서의 청년부는 청년기가 가지는 특징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다. 청년의 시기는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사회적인 자기 기반을 확립하고 정착해 가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늘 일정하지 않고 특별히 이민자인 청년들에게는 더욱 가변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청년의 시기는 심리학적으로 인간의 요구와 현실의 차이가 가장 심한 시기이다. 이는 인간의 본능의 작용과 초자아의 반작용을 통해 통제되는 자아를 인간의 존재 방식으로 정의하며 이들의 상호관계와 작용을 통해 인간의 심리와 행동을 설명하는 프로이드의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갈등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심리학과 신앙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최봉기교수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최근에 심리학이 기독교 영성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이는 기독교 영성에 대한 제한적인 의미가 하나님에 대한 인간 내면적 경험으로만 축소될 때 인간의 심층 영역을 연구하는 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144]고 주장한다.

나아가 '심리학은 기독교 영성과 관련되어 인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인간의 영적인 영역에의 접근을 중간에서 차단하는 결과로 인하여 매우 우려되는 바가 없지도 않다. '고 최봉기는 주장한다. 즉 심리적인 상태나 감정을 인간의 본질인 영과 혼돈하여 영적 이해를 불가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이러한 위험성을 감안하고서라도 인간의 내면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발견하고 학문적인 방법을 통해 이러한 인간 내면을 이해하는 심리학적 이해는 영성 이해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수 있다.

---

[144] 최봉기,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는 길*(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9), 156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이해이다. ‘나의 심리와 보이지 않는 내면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가 출발점이다. 최근에 나의 내면의 장애를 발견하고 치료하는 자아심리학을 통해 청년들을 보다 잘 이해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한다.

코핫의 자아 심리학은 인격 장애를 가진 성인을 분석하며 치료하기 위한 최근의 연구성과의 결과물이다. 요약한다면 자기애적 성격 장애를 강박 신경증으로 말하며 치료될 수 없는 정신 병리의 한 현상으로 분류한 프로이드와 달리 코핫은 치료자와의 “자아 전이 대상(self-object transference)"를 통해 분석 가능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제 1 절 자아 심리학(Self psychology)[145]과 청년

코핫에 따르면 유아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초기의 "자아의 감각(the sense of the self)"를 갖게 되는데 부모는 유아에게 단순히 대상이 아닌, 마치 유아 자신과도 같은 "자아 대상(selfobject)"으로 경험되어진다. 자아 대상은 유아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어머니(the mirroring mother)와 전능하고 유아와 통합될 수 있는 아버지(the idealized father)라는 두 자아 대상이 있다.[146] 전자와의 자아 대상 관계는 야망(ambition)으로 발전되고, 후자와의 자아 대상 관계는 이상(ideal)으로 발전된다.

이 자아와 자아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 유아의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에서 "최적의 좌절(optimal frustration)"을 겪게 되고 이를 통해 "변형적 내면화(transmuting internalization)"가 일어나면서 심리 구조(psychic structure)즉 자아의 구조(the structure of the self)가 형성된다.[147] 유아가 공감적인 자아 대상 관계를 경험하는 경우에는 "자아프 응집성(self cohesion)"을 지니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아 파편화(the fragmentation of the self)"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그는 두 자아 대상 중에서 어느 한쪽만 건강하더라도 그 자아 안에서 보상적인 구조가 생겨서 조각난 자아의 상태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았다. 코핫은 성인의 자기애적 성격장애를 핵심적 자아(nuclear self)가 활성화되지 못해서 생긴 조각난 자아의 상태로 보았다. 정신적으로 건강하냐 그러지 못하냐의 차이는 핵심적 자아의 상태에 따른 것이다.

---

[145] 코핫은 자신의 심리학을 셀프 심리학이라고 명명하며 전통적인 정신분석학적 심리학의 이론에 맞서 임상 실험을 통해 발전된 자신의 이론을 주장했다.

[146] Heinz Kohut, *The Restoration of the self*(Madison: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81) 50.

[147] Heinz Kohut, *How Does Analysis Cure?*(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코핫의 자아 이론은 청년의 심리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동기를 제공한다. 그것은 인간 심리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관계성 속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변의 많은 상황 요인과 사회적인, 신앙적인 관계 속에서 청년은 성숙되어지고 또한 잘못된 마음이 치료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서는 인간을 도상 위의 존재로 규정한다. 이것은 인간의 유한성을 극복하고 영원을 향한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모든 인간의 삶이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이므로 늘 문제와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가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프로이드에 의하면, 유아의 원시적 자기애(Narcissism)은 유치하고, 미성숙하고 그 부모에 의해 통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이러한 원시적인 자기애는 리비도가 자기에게 집중된 상태로 보고, 이것이 대상에게 집중되어야 원시적인 자기애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코핫은 자기애는 리비도의 투자되는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 이해될 것이 아니라 리비도를 투자하는 질에 따라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 프로이드는 자기 사랑이 없어져야 성숙한 인격을 갖는 것으로 보았다. 즉, 개인의 리비도 전체 양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 개인에게서 자기를 사랑하는 리비도가 없어지면 그 없어지는 양만큼 대상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성숙해도 자기애가 나타난다면 그 삶의 인격은 미성숙하고 정신병리의 증상을 가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코핫은 자기애는 성인이 된 후에 꼭 없어져야 할 정신 병리현상으로 보지 않고, 자기애는 성인이 되어도 계속 유지되어야 하되, 다만 유아의 초기 자기애는 성숙한 자기애로 바뀌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자기를 향한 리비도의 투자와 대상을 향한 리비도의 투자가 서로 반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둘 모두가 함께 증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148] 성숙한 자기애는 단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대상 사랑을 뛰어넘는 공감, 창조성, 유머, 지혜로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다[149]

코핫은 자기애적 인격 장애 환자를 치료하며 치료적인 과정의 본질은 인지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셀프와 셀프 대상 사이의 공감적인 “in-tuneness"의 설립이 치료 과정의 시작이라고 보았다.[150]

---

[148]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칭찬해 주었을 때 나에게도 기쁨이 생기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 리비도의 투자가 양의 전이가 아니라 상생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149] . Heinz Kohut, *How does Analysis Cure?*(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98-99.

[150] Heinz Kohut, *The Analysis of the self*(Madison: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71), 296-299.

제2절 자아 심리학과 영성

Theodore Runyon 은 웨슬레 신학이 인간성을 “거울”로 이해한 동방교회의 하나님 형상 이해를 받아들였다고 지적한다.[151] 이 거울은 인간 생활에서 하나님을 비출 뿐 아니라, 받은 은혜를 반영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 거울은 관계성의 도구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관계성과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이 거울을 자기 가슴에 달고 다닌다고 가정해 볼 때,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수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울을 보고 그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이러한 물리적인 거울을 심리학적인 거울로 생각한다면, 코핫이 말한 Mirroring self-object 는 유아를 반영해 주고, 유아를 담아내는 대상이다. 그리고 이렇게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며 그것이 변형적 내면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해서 개인의 심리구조, 자아의 구조가 생기게 된다. 이것은 초기 자아가 형성될 때의 이야기이고, 자아 형성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자아 대상 관계에서 건강한, 활성화된 핵심적 자아셀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아 대상 관계가 필요하다. 한 개인에게 의미를 주는 역할은 대상이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서로의 거울에 비추어진 서로의 모습을 보고 자신을 알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 자기 존중감, 삶의 의미를 얻게 된다. 이렇게 서로 mirroring self-object 의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서로의 자아 응집성은 강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다.

---

[151] Theodore Runyon, *The New Creation" John Wesley's Theology Today*(Nashville: Abingdon Press, 1998), 13.

그러나, 서로를 mirroring 하는 과정에서, A 라는 사람이 가진 거울이 깨끗하지 않고, 얼룩이 심하게 묻어 있거나, 금이 가거나, 심할 경우 깨어져 있다면 B 라는 사람은 A 라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가치, 자기 존중감, 삶의 의미 등을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A 라는 삶은 언제나 B 를 부정적으로 비추기 때문이다. B 는 스스로 선한 일을 하고, A 라는 사람의 거울에 자기의 선행이 긍정적으로 비추어 지기를 기대하고 A 라는 사람의 거울을 바라보았을 때, 오히려 부정적으로 그려져 있다면 B 는 마음의 상처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부모와 유아, 즉 self-object 와 자아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부모가 자기애적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유아를 제대로 Mirroring 해 줄 수 없다. 그 말은 유아가 건강한 자아를 형성할 수 없고, 파편화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이 거울은 개인에게 핵심적 자아로 이해될 수 있다. 결국, 눈이 부시게 깨끗한 거울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자아의 응집성이 아주 강하다는 말이다. 즉, 개인의 여러 자아들이 핵심적 자아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모습으로 강하게 응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얼룩이 많은 거울이나, 금이 가거나, 깨진 거울은 조각나 자아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조각난 자아는 건강한 자아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 응집적으로 될 수 있고, 심리치료가는 이러한 자아 대상의 역할을 심리적으로 내담자들에게서 원시 자아 대상으로 인식됨으로서, 감당하여 치유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영성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으로 "관계성"을 주목해 왔다. 특별히 청년의 시기는 기존의 본성적인 관계 이외에 사회적이며 다른 대상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시작하는 때이므로 바른 관계성을 설정하는 이해와 훈련이 필요하다.

코핫의 자아 심리학은 청년 시기의 신앙적인 영성도 청년의 구체적 현실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들과 환경에 대하여 바른 관계를 지지하고 성숙시켜가는 과정으로 이해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자아 심리학은 하나님으로 뿐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영적 동반자 뿐 아니라 영성을 확대 재생산, 내지는 치유자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서 개인과 공동체성을 동시에 고양하고 있다. 그리고 영성의 회복이나 치유 그리고 발전 가능성에 대해 보다 열려 있기에 고정되기 보다 형성 중에 있으며 열려 있는 청년의 심리를 이해하는데 적합한 이론이다.

실천적인 관계성과 서로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설정하는 연대성의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청년의 영성을 이해하고 고양하는데 코핫의 셀프 심리학은 좋은 학문적-실천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제 3 절 웨슬리 신학과 자아 심리학

Theodore Runyon 에 의하면, John Wesley 는 하나님의 형상을 관계적인 것으로 이해했다. 웨슬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이 소유한 어떤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의 방식으로 이해했다고 주장한다.[152] 즉 관계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았다. 성화는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내재적인 죄, 죄의 본성도 성화를 통해 제거될 수 있고, 기독자의 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Runyon 은 웨슬리의 "기독교인의 완전"이라는 교리를 "성취되는 완전(Perfected Perfection)"이라기보다는 "성취해 가는 완전(Perfecting Perfection)"으로 해석하고 있다.[153] 결국 웨슬리는 신앙의 영원한 목표로서 구체적이고 완전한 하나님 형상의 회복을 삼고, 죽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공감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 과정을 진행하는 능력이 바로 우리의 영성일 것이다.

자아의 회복이라는 코핫의 이론으로 타락한 인간성의 회복을 이해한다면, 핵심적 자아의 강력한 응집성은 하나님 형상의 더 많은 회복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나님을 자아 대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은 자아의 응집성을 회복해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죽을 때까지 self-object 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self-object 가 될 수 있을 때까지, nuclear self 의 회복과 그로 인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볼 때, 코핫과 웨슬리는 대화가 가능하다. 자아 심리학은 관계에서 출발하고 관계로 삶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리고 이것은

[152] Theodore Runyon, *The New Creation" John Wesley's Theology Today*(Nashville: Abingdon Press, 1998), 13.

[153] Ibid. 91.

하나의 완성으로서의 치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치료 내지 유지를 이야기한다. 또한 자아 심리학은 분석 지향적이 아니라 치료 지향적이다. 웨슬리 신학은 은혜의 역할을 강조한다. 구원의 단계에서 마다 특별한 은혜의 역할이 있고 이것은 정죄하는 신학이 아니라, 구원으로 이끄는 신학인 것이다. 이러한 자아 심리학의 특징들은 성화를 통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중요한 타자(significant others)와의 관계를 통해, 기독교인의 완성에 이르려는 웨슬리 신학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제 6 장 사회적 분석

제 1 절. 상황

작년에 교회에서 어른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클래스를 개설한 적이 있다. 아주 기초적인 computer 조립에서 시작하여 인터넷과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12 주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스몰 비지니스를 하고 있는 청, 장년들과 주부들이 약 40 여명이 접수해서 오후 1 시와 저녁 9 시의 2 개 반으로 나뉘어 시작되었다. 저녁반은 비즈니스를 끝내고 왔으므로 피곤하겠지만 열심히 참여하여 자정이 넘어서까지 계속되었다. 많은 분들은 컴퓨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였고, 기본적인 문서작성,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한국 소식과 메일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성과는 그분들이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여 자녀들과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고 자녀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다.

첫째는 그분들이 저녁 늦게까지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 신문이나 방송을 접하게 되어 개인적인 삶의 리듬을 상실하고 가족끼리의 시간이 축소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그분들이 기본적인 작동 미숙으로 인해 컴퓨터에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 결국 컴퓨터에 관한 지속적인 서비스가 어려워서 많은 부담이 생겼다. 셋째는 정보의 업데이트, 즉 컴퓨터를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 정보의 습득과 관리 등에 대한 관심으로

다른 Class 개설을 원하였지만 장기적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넷째는 교회의 정보화에 대한 요구가 나타났다. 즉 다른 교회들의 홈페이지들을 접하면서 교회의 홈페이지 작성에 관심을 보였으며, 전산화와 인터넷 활용 방안에 대한 제안들이 많아졌다.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로 세계는 자본주의가 단일 경제 체제로 자리하게 되었다. 이것은 세계가 자본주의의 철학과 정신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음을 의미하여 동시에 자본주의 체제가 정착되어 있는 나라들이 기득권을 가지게 됨을 의미한다. 급격한 산업화와 계속되는 세계화, 그리고 정보화의 거역할 수 없는 대세 속에서 기독교인의 사명은 무엇인가?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만남의 방식, 정보의 취득 경로, 지식의 양과 질, 그리고 사회적 이해 방식이 변하고 있다. 일년에 학생들은 학교에서 900 시간을 소비하고 1500 시간 정도를 TV 를 시청하는데 보내고 있다. 나아가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유 방식은 학생들의 삶의 방식을 급속히 변화시키고 있다. 이는 정보화로부터 소외된 부모와 자녀 세대간의 단절을 가속화하는 원인이 된다. 또한 가정, 신앙, 이념과 같은 전통적 사회 개념은 급속히 약화되고 다양한 정보, 다원화된 종교, 상업 자본주의의 비정형화된 가치 체계가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주요 변수가 되었다. 기존 세대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새로운 세대가 계속해서 출현한다.

교회와 사회가 분리-영적인 면과 현실적인 면의 서로 다른 분야를 다루기에-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의 변화는 교회의 변화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인터넷 교회가 출현하고 인터넷 학교를 통해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의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전달된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새로운 방법으로 쇼핑과 통신, 그리고 정보취득을 하고 있다. 기술로부터의 소외가 곧 삶의 소외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이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들을 계승 발전하는 일, 사회 변화의 새로운 흐름이 갖는 위험성과 비윤리성에 대한 경고하는 일, 그리고 새롭게 나타나는 빈부의 문제 등에 대해 기독교인의 책임은 막중하다고 생각한다.

'정보화의 요구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독교 영성의 역할은 무엇이며, 기독교 정신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인가?' 를 탐구해야 하는 과제 앞에 우리는 서 있다.

제2절 원인

급속한 정보화, 세계화, 과학화의 흐름에서 교회가 앞장서지 못하는 이유는 기독교 영성이 현실로부터 분리되어 버린 교회의 역사와 과학적 사고의 도전에 있다. 즉 현대 기독교인들은 종교보다는 과학적 사고에 길들여져 있으며, 자연스럽게 종교는 과학적 영역의 틈바구니에 존재하는 비현실적 분야가 되고 말았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초대 교회에서부터 기독교 영성은 현실로부터 분리되려는 압력을 받아왔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현실 참여적이고 현실 변혁적인 실천적 운동이었던 기독교 영성(특별한 사회 운동이라기보다는 현실 문제에 관심하고 현실에 기반을 둔 신앙이었다는 뜻이다)은 기독교가 로마제국의 종교로 탈바꿈하면서 권력과 연계됨으로 신비적이고 개별적인 운동이 되고 말았다. 즉 현실의 권력 구조를 갱신할 힘을 잃고, 현실을 탈피한 관념적인 영성 운동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현실 변혁의 영성의 정신은 역사의 아픔과 위기마다 몇몇 인물들에 의해서 실천되고 계승되어 왔다.

또 다른 기독교와 현실의 분리는 근대 과학의 정신에 강력히 기초하고 있다. 근대 과학의 기본 정신은 데카르트와 분리(分離)철학에 바탕하고 있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구현한 뉴톤의 역학 체계라고 말할 수 있다.[154] 이러한 과학관은 정신과 물질, 인간과 자연, 과학과 정신 등 모든 것을 분리한다. 이러한 분리를 기초로 신앙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는 소극적 관점에서 신도 없고 인간의 영성도 환상에 불과하다는 극단적인 관점까지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지만, 공통적으로 전통적인 종교적 사고에 도전하고 종교의 입지를 크게 위축시켰다. 이러한 과학적 사고가 발전할수록 종교는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영성을 강조하며

[154] 소광섭, *현대과학과 생활*, www.religionstheology.org

현실로부터 분리되어 존재하며 현실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해 왔다. 즉 영성이 그리스도인 삶의 원동력으로 이해될 때 이러한 현실로부터의 분리는 기독인의 삶을 무력화시키고 영성의 활동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종교는 우주의 시원과 인간의 근본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고 그러한 존재론적 설명 위에서 인간이 마땅히 가야 할 당위론적 규범들을 제시하여 왔다. 그러나 과학의 발전과 사회 환경의 변화는 종교의 이러한 두 가지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축소시키고 있다. 교회 외부의 이런 변화는 기독교에 대하여 사회 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폐쇄 체계적 관점(closed system approach)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방 체계적 관점(open system approach)으로 접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155] 교회와 신앙의 문제가 독립적인 차원이 아니라 전체사회, 나아가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탐구되고 해결되어야 한다는 시대 상황의 요구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진리를 소유한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전통적 개념에서 교회 외부 사회가 기독교 신앙의 가치를 판단하고 있으며 사회의 변화가 교회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에 들어서 과거의 군사적, 정치적 불평등 분업 구조가 경제적 분업구조로 형태를 바꾸었는데 미래의 정보사회에서는 문화적, 정보적 불평등 구조로 지속될 것이다. 여기에서 종교에게 한가지 역할이 기대된다고 하겠다. 물론 종교가 이러한 문화적 조류 모두에 간섭할 수도 없고 조류를 역전시킬 수 있는

---

[155] 과거에는 효율성 내지 능률성 또는 합리성의 근거가 조직 내부 기준에 의해 판단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조직의 생산성의 개념이 조직의 외부환경에 의해 결정된다고 인정된다. 외부환경은 그 자체의 논리를 가지고 조직과 개인들에게 적응을 요구하며, 조직의 성패 여부를 결정한다. 즉 어떤 조직이 능률적이고 생산성이 뛰어나더라도 환경에서의 자그만 변화에 의해 하루아침에 낙후되게 되는 것이다. 하나의 제도 혹은 조직으로서 종교도 마찬가지 환경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Meyer, John and Brian Rowan. *"Institutional Organizations: Formal Structure as Myth and Ceremony"*(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3, 1977), 340-363.

능력은 없다. 다만 종교가 나름대로 이러한 사회에서 스스로 떠맡아야 할 조그만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종교는 시대의 규범적 가치를 창조하고 주도하는 문화적 제도이다. 하나의 제도로써 종교가 그 시대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중들 의 문화를 반영하면서 당위적 가치들을 창조해 왔다. 그러나 미래사회에서는 당위적 가치들이 합리적, 기술적 정보 (지식)들에 의해 매몰돼 가고 있다. 합리적 정보와 기술적 문화의 범람 속에서 자칫 매몰되기 쉬운 규범적 문화, 그 리고 그 규범적 문화조차도 선진국의 문화적 가치에 의해 일방적으로 재해석되는 상황에서 종교들의 역할은 어떻게 각 국가의 주체성 있는 규범적 문화를 창달해 내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종교가 각 사회의 폐쇄적 가치를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다. 지방주의(localism)적 가치를 심도 있게 소화한 상태의 세계주의 (cosmopolitanism)적 관점을 가지고 사회의 규범적 가치를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적 가치만을 고집하지 않으면서, 수많은 선진국 주도의 정보들 속에서 문화제국주의적 부호 (codes)들을 분리해 내어 가능한 한 보편적인 가치들을 창조해 내느냐 하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어느 한편의 맹목적인 추종은 그 사회를 미래에서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이끌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종교의 규범적 문화 창조에서의 주도권 장악과 관련하여 한가지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점은 미래 사회에서의 규범들은 과거 사회에서의 윤리 규범들과 많은 질적 차이를 보일 것이란 점이다. 과거의 범죄들은 주로 대인적, 대물적 행위와 관련되어 형성되는데, 미래의 범죄들은 정보의 유통과 조작에 관련될 가능성이 많다. 대인적, 대물적 행위는 개인들에게 직접적인 죄의식을 가져다 주고, 양심의 가책을 쉽게 느끼게 하지만 정보의 조작을 통한 행위들은 그러한 감각없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정보 범 죄는 그 피해가 간접적이고 점진적이겠지만 그 피해 범위는 매우 넓다. 그래서 정보사회에서 종교의 윤리 규범들은 대인적, 대물적 행위를 넘어서서 정보 창조, 유통, 소비와 관련하여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리라 생각한다.

청년들이 사는 정보화 시대는 이미 상당부분 현실화된 사회이다. 이러한 정보화 시대의 규범과 종교적 책무를 발견하고 훈련하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화 시대의 영성이다.

제3절. 해답

정보화, 세계화, 과학화를 통한 사회의 변화는 기존의 종교와 철학 그리고 가치관의 절대적 개념을 무너뜨리고 새롭고 다양한 이해를 가져다주었다. 그러고 이러한 이해는 기독교 영성의 전통적 이해에서 탈피한 새로운 이해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영성은 교회에서뿐 아니라 사회와 가정에서 새로운 역할을 요청받고 있으며 교리와 제도의 해체가 가속화되는 새 시대에 교회의 핵심적 능력으로 재해석되고 있다.

과학의 급속한 발전은 상대성 이론과 양자물리학의 발전으로 뉴톤과 데카르트 중심의 근대과학관을 변화시켰다. 상대성 이론은 절대적이고 정(靜)적이고 고정된 기계와 같은 세계 대신에 상대적이고 역동적이며 관찰자의 관찰에 따라 달라 보이는 세계관을 제시하고 있고 양자물리학은 관찰자가 관찰대상에 영향을 준다는 '불확정성의 원리'를 통해 기계론적 인과론을 부정하였다. 즉 새로운 과학은 기계론적 인과론을 부인함으로 정형화되고 고착화된 영성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과정으로서의 영성 이해, 절대적 영성이 아닌 다양한 영성 이해가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다.

세계화를 통해 한 사회에서 기독교가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 없는 다원종교의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다원 시대 속에서 종교는 자신이 가진 종교적 진리가 아니라 종교적 필요에 응답함으로 자신의 진리를 증명해 보여야 하며, 이러한 면에서 대화와 만남과 연대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즉 영성의 종교적인 기능보다는 사회 내의 기능이 강조되며 사회변혁의 기능으로서의 영성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

또한 현대 사회의 변화는 종교 활동이 사제 중심에서 평신도 중심으로 변화하도록 방향 제시를 하고 있다. 정보화사회에서 정보는 상호적이다. 평신도는

더 이상 수동적 위치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정보를 취사 선택하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충족해 줄 종교 활동을 원하게 된다. 즉 평신도를 중심으로 하여 교회 내부와 외부에서 창출되는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가공하고 처리할 수 있는 관리 구조를 필요하게 되었다.

나아가 교회가 다양한 문화의 접촉점이 되고 정보 교류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조의 전진 기지가 되어야 하는 시대적 요구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이민 교회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에 응답하지 못하는 종교는 약화될 것이다.[156] 즉 정보사회에서 조직으로서 교회는 지식 관리 구조(knowledge management structure)를 가져야 한다.[157] 정보사회에서 종교는 이러한 마인드와 구조를 가지고 새로운 사회의 물결에 대한 개방을 시도해야 한다. 즉 교회의 폐쇄성을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목회의 전문화와 개방화를 위한 변신을 시도해야 한다. 지역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역할에 충실하고 나아가 지역 공동체를 뛰어넘는 연대(Net-Working)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교회의 문화적 역할이 필요하다. 정보를 독점 가공함으로 새로운 불평등과 문화적 종속과 왜곡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교회는 사회의 규범적 가치를 지키고 문화를 창출해 내는데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특별히 정보의 흐름을 독점함으로 사람들을 통제, 감시하는 메카니즘에 대한 저항 내지는 건전한 사용을 위한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왜냐하면 현대 문명에 탐닉하면 할수록 개인들은 수많은 정보를 뒤에 남기게 되고, 자신을 감시의 그물망 안으로 스스로 위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종교는 지나친 소비문화, 향락문화를 자제하게 함으로써 어떤 주체에 의한 감시의 의지를 무력화시키는

---

[156] 한내창, *'정보화사회와 종교,'* www.religionstheology.org

[157] Peters, Ton, *21 세기 꿈의 통신 서비스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정보화사회시리즈 27,* 노부호외 5 인 역(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4)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적극적으로 생명운동, 환경운동 등에 동참하게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개체화된 정보화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공동체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158] 그러나 미래의 공동체는 과거처럼 강요와 타율의 강력한 결속력을 가진 계급구조적 공동체, 그리고 일률적 가치지향을 가진 공동체가 아니라 관용과 자율, 그리고 참여의 가치 지향을 가진 공동체를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된다. 교회는 개체화된 이차적 사회에서 신앙인들과 일반인들이 서로 어울려 생활공동체를 구성함으로 인간성 상실의 갭을 메울 수 있을 것이다. 만남의 공간과 만남의 계기, 모티브들을 제공함으로 종교는 원자화된 정보화 사회에서 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

---

[158] 송복, 21 세기 사회와 공동체 생활문화(서울: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삼성건설(주), 1995)

사회적 질문

1 정보화를 통한 문명의 발전은 사회 통합의 가속화를 가져왔다. 정보화는 새로운 사회권력이 되었으며 동시에 새로운 기득권 세력을 형성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정보화는 새로운 사회 통제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정보화 시대의 영성은 시대적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기본적 힘이 되어야 한다. 바울은 사회와 교회를 유기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유기체적인 공동체 이론의 근본적 힘인 **공동체적 영성**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연대운동(Networking)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2 정보화 사회는 끊임없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즉 정보화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질서가 존재할 수 없다. 개인의 관심과 의사에 맞는 공동체의 형성, 가입, 탈퇴가 언제든지 가능하며, 시간과 공간도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변화는 교회도 폐쇄적 공동체에서 개방적 공동체로, 위계적인 공동체에서 평등적 공동체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목회자의 변화도 요구된다.

사회와 교회는 정보화의 변화 속에서도 지켜가야 할 가치와 정신이 있다. 제도와 교리의 제한을 극복하고, **윤리적이며 실천적 특성을 지닌 영성이해**는 전통의 가치를 기키고 문화를 창출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제 7 장 프로젝트의 실행

새로운 변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 만나는 모든 어려움과 도전에 대해 응전의 힘을 준다. 새로운 변화에 직면한 교회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나아간다면 반드시 새로운 변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신학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신학의 현장인 신앙과 병행되지 않을 때는 사변적이고 논리적 차원에 머물러 오히려 신앙과 분리되거나 심지어 대립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한국에 있어서 이러한 신학과 신앙의 괴리는 ‘신학이 죽어야 신앙이 산다’는 이해할 수 없는 논제를 만들어 내기까지 한다. ‘신앙과 신학을 좀더 밀접하게 연결할 고리가 없을까?’, ‘신학이 신앙의 어떠한 면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목회자인 필자에게 늘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같은 고민으로 남아 있다. 이번의 영성 탐구는 이론과 실천, 교회와 사회, 그리고 신학과 신앙의 불가분적 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이었기에 기쁜 마음으로 임할 수 있었다.

청년들은 기존의 신앙과 가치 체계에 대한 나름대로의 불신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미래를 위한 신앙의 역할 기대라는 선택적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한인 이민자들의 특수한 상황, 즉 언어와 문화의 갈등까지 겹쳐져서 이민 청년들이 기존의 신앙 체계에 적응하는데 장애 요인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과 함께 영성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출발점은 기존의 잘못된 가치 체계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무엇을 찾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복음의 수용은 곧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향한 도전이요 질문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점을 발견하고 수정해 가는 작업이 병행되었다. 우리 청년들이 서구신학과 한국교회, 그리고 이민교회에서 발견한 문제점들은 가부장적 사고, 공동체적이기 보다 개인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신비적인 면을 강조하는 영성, 피조물 위에 군림하여 생명 체계를 파괴하는 인간-중심적 사고, 폐쇄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사회적 변화에 뒤쳐지는 것 등이었다. 또한 청년들에게서조차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이유로는 유교적인 한국 문화와 보수적인 한국 교회의 신앙관이 청년들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준 까닭이라 생각되었다.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은 참으로 새로운 과정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시작점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와 '너희 중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 그리고 여러 곳에서 반복하신 기독인의 사명을 확실하게 할 수 있었으며 지역교회, 내 주변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다. 실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역과 연령과 인종을 복합적으로 생각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을 새롭게 발견하고 한인이민 청년들이 이러한 봉사를 통해 주류사회와 연결점을 가지게 되리라는 희망도 있었다. 우선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데 봉사센터로 양로원을 선정하였고 어린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 다양한 민족이

함께 하는 공동체에 한국인으로 참여하는 것과 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

청년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늘 자신들이 부모나 사회로부터 배려되어야 하는 대상에서 남을 섬기는 존재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또한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그리고 이론으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임을 체험하게 되었다. 나아가 자신들의 입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도 살필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 나아가 자연과 하나님이 모두 함께 포용되는 넓은 신앙적 사고와 실행의 틀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의 일상의 영역으로 확대되어서 끊임없는 일상과 사회의 문제에 대한 신앙적 도전과 성찰, 그리고 실행과 반성의 과정을 반복함으로 영성의 깊이 있는 계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신앙 모델의 개발보다는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던 신학적 성찰을 우리의 삶의 영역에 실행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의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할 뿐이다. 시대의 변화는 기독교인들에게 새로운 영성의 탐구를 요구하며 자신의 신앙을 삶에서 일구어 갈 책임을 요구받고 있는 청년들에게 이러한 탐험은 즐겁고 보람된 것이었다. 아직도 변화해야 할 많은 부분과 과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 여정을 주님과 함께 하며 그 앞에 결단하는 청년들의 영성은 모든 도전들을 포기하지 않고 당당히 풀어갈 것이라 확신한다.

이민 청년들이 신앙 안에서 새로운 영성의 모델을 찾아보고 실행하기 위해서 세 단계를 거쳐야 했다. 첫번째는 청년들의 이해와 분석이 필요했고 두번째는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단계이다. 세번째 단계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단계이다

제 1절 청년들의 이해와 분석

1 현장 Interview

이민자로 사는 청년들의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Interview 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친밀한 관계 형성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의 상황에 대한 자세한 기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자신의 처지와 현실에 대한 솔직한 진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또한 Interview 는 이민 청년들의 현실 이해와 소망에 대한 신앙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한정하여 질문하였음을 밝혀둔다. 따라서 Interview 에 포함된 주 질문은 미국에 오게 된 과정과 정착 과정에 대한 것과 현재에 대한 평가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필요한 것들을 알아보았다.

총 Interview 는 17 명으로 이루어 졌다. 대상자의 성비는 남자 청년이 8 명 여자 청년이 9 명으로 해서 남녀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Interview 방법으로는 주로 일대일의 면담을 주로 이용하였지만 때로는 3-5 명의 가까운 또래 집단의 대화를 시도하였다. 또래 집단의 대화는 그들의 공통된 관심이나 갈등의 요소를 발견하는데 유효하였다. 그리고 면담의 형식이 아닌 자유스러운 대화 형식을 띤 Interview 도 진행되었는데 이는 공식적인 Interview 를 몹시 꺼리는 청년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원하는 질문과 대답을 듣고 나중에 분석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Interview 기간은 총 3 개월이 소요되었는데, 목회 현장의 특성상 규칙적인 면담이 힘들었고 수련회나 기도회 같은 특별한 기회를 통해서 평소보다 심도있는 Interview 를 가질 수 있었다.

Interview에 포함한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에 오게 된 동기와 본인의 동의 여부에 대하여

-당시의 연령과 가정의 경제 형편에 대하여

-미국에 올 당시의 희망과 포기해야 했던 것에 대하여

-미국에 와서 제일 힘든 것과 극복하는 노력들에 대하여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한 과정과 노력에 대하여

-현재 가정의 안정과 만족도에 대하여

-현재 교우 관계에 대하여

-현재 신앙에 대한 확신과 만족도에 대하여

-자신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 계획에 대하여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불안에 대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러한 과정에서 신앙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상의 내용에 대하여 묻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확인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

첫째, 대도시일수록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지 못하고 사는 청년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남의 나라에서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해서 모든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고 지속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청년들이 대도시를 선택하는 이유는 한국인 타운이 형성되어 있어서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취업과 생업이 가능한 때문이지만

신분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는 어디에서나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한국에서 부모가 이민 올 때 자녀의 나이가 만 18 세 이상이 되었을 경우 함께 올 수 없었기에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그냥 머무는 경우도 있었고, 유학으로 왔다가 그냥 정착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희망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학업과 직업,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밀입국의 경우에는 나중에 결혼이나 직장 등 어떠한 합법적 생활의 근거도 가지지 못하기에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이러한 불합리한 일들이 부모나 주변 어른들에 의해 권유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도 있었다.

두 번째는 미국에 정착한 시기가 미국에서 살기 위한 기본적인 능력의 획득에 너무 늦은 시기인 청년들이 있었다. 미국으로 이민와서 생활에 기본이 되는 언어와 직업에 필요한 학업을 마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중학교 이전에 미국에 들어오는 것이 좋다. 물론 대학교 이후에도 열심히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학업의 연속성과 현지 적응도를 높이려면 연령이 낮을수록 유리하다. 그러나 가장 정체성이 예민하고 또 새로운 학업 성취도가 높아야 하는 사춘기에 이민을 오면 자신의 학년보다 낮은 학년으로 편입을 해서 공부를 해야 하고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이민 청년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다시 확인했다.

또한 어려서 미국에 온 경우에 언어를 가장 빨리 배우게 되는 이유로 집안의 여러 가지 일까지 도맡아야 하는 입장이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럽게 느껴졌다는 고백도 있었다.

그러나 18 세 이후에 미국에 오는 경우에는 한국인이 없는 지역에 정착하고 본인의 특별한 의지와 노력을 통해 언어를 극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이민 1 세보다는 좀더 언어가 자유롭지만 그러나 언어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이민 1 세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이런 경우의 청년들이 이민 생활에 있어서 많은 고민과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Interview 를 한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의 상황에 따라 이민을 와야 했고 본인이 부모에게 요청하여 이민을 오는 경우는 없었다. 특수한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자녀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가족의 상황에 의해 이민을 왔고 정작 이민의 모든 기대와 희망을 짊어져야 하는 청소년들은 이민의 출발선에서부터 부모와의 다른 마음을 품게 되는 셈이다.

미국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문화적 이질감에 가장 많은 동의가 있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 와서 먼저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부모들의 관점과 다르게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미국 입국 연령이 높을수록 심했고 중도에서 포기하는 경험했던 경우도 3-4 명이나 있었다. 현지에서 태어났거나 어려서 이민을 온 경우의 청년들은 부모 세대와의 갈등을 대부분 가지고 있었는데, 대화보다는 명령에 가까운 부모님들의 요구와 특별히 자신의 진로에 대한 간섭, 그리고 한국식 문화와 신앙 방법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즉 현실에서는 수긍을 할 수밖에 없지만 마음으로는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집안에서는 한국식으로 살지만 집 바깥에서는 미국식으로 생활하는 이중적인 모습도 이민 청년들에게 보편적으로 보여지는 현상이다.

그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장 의지가 되었던 상대는 가족이나 친구들이었다. 비슷한 환경과 문제를 가진 친구들이 대화의 상대가 되었고, 미국에 일찍 온 자녀들의 경우는 가정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5 년 안에 미국에 온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한국에 있는 다른 친구들과 대화하고 한국에 대한 삶의 기반을 연장해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도 이민자가 갈등을 경험하는 경우에 비슷한 친구들과의 만남은 심리적 안정과 동질감은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다. 결국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 또래 집단은 무단 결석이나 집단 행동으로 인하여 학교 생활에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었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심리적인 갈등 속에서도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는 경향도 있었다.

청년들과 상담하면서 자신들이 가진 신앙의 역할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다. 대부분 부모를 따라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일부의 경우는 독립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한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이민 2 세 교회들은 서서히 그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아시안을 중심으로 한 다민족 교회로의 성장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다. 또 유학생을 중심으로 청년부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교회들도 있다. 부모로부터 독립하거나 교회 내에 활발한 청년부 활동이 없는 교회의 청년들은 이런 교회로 움직여 가는 경우가 많았고 또한 한번쯤은 고려해 본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소교회에서 출석하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부모와 같은 교회에 출석하거나 특별한 인연으로 묶여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대형교회보다 친밀한 인간관계나 가족 같은 교회 분위기를 교회에 정착하는 이유로 설명했다. 인터뷰에 응한 청년들의 대부분은 신앙이 자신들이 가진 문제를 극복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믿었으며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청년들은 신앙을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관계로 설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다른 관계들을 이겨 나가는 전통적인 신앙관을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신앙이 자신의 문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일부의 경우는 부모에 의해 일방적으로 출석이 강요된 경우와 가정이나 특별한 경험을 통하여 신앙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경우가 많았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모든 청년들은 확고한 신앙적인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자신이 만날 인생의 위기와 문제 상황에서 신앙이 큰 힘이 발휘되기를 기대하고 있었고 바른 신앙을 향한 도전과 기대감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고 이민 교회들이 이민 청년들을 위한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확신을 Interview 를 통해 갖게 되었다.

2 설문조사

Interview 를 통해서 청년들의 삶의 현장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시도하고 구체적으로 영성과 신앙에 대한 이해를 찾아보기 위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지문을 네 개나 다섯 개 수준으로 나누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필요하다면 다수의 지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지

귀하는 아래의 질문에 대하여 솔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문은 우리 교회 청년부가 앞으로 시행하려는 새로운 이민청년 영성탐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질문 1 교회에 출석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1) 구원을 받기 위해서 2)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3) 사회적인 친교를 위해서 4) 부모님 때문에

질문 2 구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1)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는 것 2)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

3)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얻는 것 4) 세계 평화를 이루는 것

질문 3 영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1)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2) 성령이 주시는 힘

3) 예수 믿으면 저절로 생기는 것 4) 내 스스로 가지고 훈련한 신앙의 힘

질문 4 자신의 영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1) 아주 강하다 2) 남들과 비슷한 중간 정도이다.

3) 약하다. 4) 생각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다.

질문 5 자신의 영성의 계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2 개 선택)

1) 교회에 자주 오는 것 2) 기도시간과 성경읽는 시간을 늘리는 것

3) 사회봉사를 많이 하는 것 4) 신앙적인 관점을 갖는 것

질문 6 교회 안에 바른 영성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2 개 선택)

1) 자신들만을 위하는 이기심 2) 현세 중심의 기복신앙

3) 닫혀진 신앙의 사고 4) 목회자의 문제

질문 7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2 개 선택)

1) 모든 분야에 책임이 있다.　　2) 신앙과 연관된 분야에 책임이 있다

3) 교회 내의 문제에 국한한다　　4) 모든 것이 개인적인 문제이다.

질문 8 이민자 신앙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2 개 선택)

1) 타 인종과의 신앙적 교류　　2) 우리 민족의 단합

3) 자신의 개발　　4) 미래의 비전

질문 9 목회자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2 개 선택)

1) 좋은 설교　　2) 더 친밀한 교제

3) 강력한 리더십　　4) 선교와 봉사에 대한 집중

질문 10 영성 운동에 인터넷 활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연대하는데 도움이 된다.　　2) 익명성이 보장되면 바람직하다.

3) 동의하고 참여하겠다　　4)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위와 같은 설문을 총 50 매 배부하여 25 매를 회수하였다. 아쉽게도 회수율이 50%에 머물렀다. 이러한 설문에 대한 거부감도 있었으며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분야에 대한 청년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

전체적 설문의 분석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청년은 기성 세대의 신앙적인 관점과 전통을 물려받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기성 세대와 다른 요구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들의 요구와 관심을 구체적 행동과 실천으로

연결하기 위한 목회자의 노력과 과정의 개발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꼈으며 필요한 자원과 자료를 공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

구체적인 설문 분석 자료이다.

	1	2	3	4	
질문 1	12 명	7 명	3 명	3 명	25 명
	48%	28%	12%	12%	100%
질문 2	10 명	12 명	1 명	0 명	25 명
	40%	48%	4%	0%	100%
질문 3	13 명	5 명	2 명	5 명	25 명
	52%	20%	8%	20%	100%
질문 4	3 명	8 명	13 명	1 명	25 명
	12%	32%	52%	4%	100%
질문 5	14 명	22 명	9 명	5 명	50 명
	56%	88%	36%	20%	200%
질문 6	18 명	14 명	8 명	10 명	50 명
	72%	56%	32%	40%	200%
질문 7	16 명	16 명	12 명	6 명	50 명
	64%	64%	48%	24%	200%
질문 8	10 명	15 명	12 명	13 명	50 명
	40%	60%	48%	52%	200%
질문 9	12 명	14 명	10 명	16 명	50 명
	48%	56%	40%	56%	200%
질문 10	4 명	6 명	12 명	3 명	25 명
	16%	24%	48%	12%	100%

질문 1: ‘교회에 출석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온다는 사람’ 이 12 명으로 가장 많았고 ‘좋은 설교 듣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가 7 명, ‘친교’ 와 ‘부모의 강요’ 는 3 명씩으로 나타났다. 구원이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을 첨부하지 않았지만 청년들에게도 부모 세대의 전통적 신앙의 가치관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미국사회의 영향으로 ‘부모의 강요’ 라고 밝힌 사람이 3 명이나 되었는데 이민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하면서 교회를 등지는 비율로 보면 실제로는 더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질문 2: ‘구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서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이다’ 에 12 명,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가는 것’ 에 10 명,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이다’ 에 1 명, ‘세계 평화를 이루는 것’ 에 0 명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고민에 의해 답을 선택하기 보다 교리적인 답을 선택하는 경향이 두드러졌고 이는 현실과 신앙의 이중적인 가치관을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되어졌다. 또한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이다라고 대답한 다수의 청년들이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 에 대해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했다.

질문 3: ‘영성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 에 13 명, ‘성령이 주시는 힘’ 에 5 명,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것이다’ 에 2 명, ‘나의 신앙을 세우는 기본적인 힘이다’ 에 5 명이 표시하였다. 영성에 관한 이해에서 현실과 분리된 이분법적 이해가 반영되어 있다. 또한 영성을 현실과 연결지어 생각하는 부분이 약한 것도 지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분법적, 추상적, 이론적 영성의 토대가 청년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장년층의 신비적이고 신앙적인 영성생활과 이해가 청년들에게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이해된다.

질문 4: '자신의 영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아주 강한 영성을 가지고 있다' 에 3 명, '남들과 비슷한 중간 정도이다' 8 명, '약하다' 에 13 명, '생각해 본적도 없고 관심도 없다' 에 1 명이 표시하였다. 이는 앞의 질문에서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이라고 다수가 대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자신의 영성을 남들과 비슷한 정도거나 약하다고 답한 사람이 80% 이상을 차지하여 청년 현실과 마음의 괴리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질문 5: 자신의 영성 계발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2 개 선택)' 의 질문에 '교회 자주 오는 것' 에 14 명, '기도하는 시간과 성경 읽는 시간을 더 늘리는 것' 에 22 명, '사회에 대한 봉사를 많이 한다' 에 9 명, '신앙적인 관점을 갖는 것' 에 5 명이 대답하였다. 중복 선택으로 좀더 포괄적인 선택이 가능했는데 영성은 교회 내에서 그리고 종교성을 가진 것으로 국한해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영성훈련을 현실의 실천과 연결지어 생각하는 응답자가 10%대에 머물러 있어서 실천하는 영성이 중요하다가 다수가 답한 질문 2 와는 상반된 의식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실천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이민 청년들의 현실과 고민을 반영하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질문 6: '교회 안에 바른 영성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2 개 선택)' 라는 질문에는 '자신들만을 위하는 이기심' 에 18 명, '현세 중심의 기복신앙' 에 14 명, '닫혀진 신앙의 사고' 에 8 명, '목회자의 문제' 에 10 명이 답하였다. 한국 교회의 현실 진단이라고 생각한 이 질문에서 청년들은 부모 세대를 자신들만을 위한 기복 신앙이라고 생각했고 이를 목회자와 연결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교회 안에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질문 7: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2 개 선택)’라는 질문에는 ‘모든 분야에 신앙인의 책임이 있다’에 16 명, ‘신앙과 연관된 분야에 책임이 있다’가 16 명, ‘교회 내의 문제에 국한한다’가 12 명, ‘모든 것이 개인적인 문제이다’에 6 명이 표시를 하였다. 절대적으로 삶의 모든 분야에서 기독인의 책임있는 행동과 삶을 바라는 청년 세대의 요구를 발견할 수 있었고 이는 청년들을 바른 영성 훈련으로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라 생각된다.

질문 8” ‘이민자 신앙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2 개 선택)’라는 질문에는 ‘타 인종과의 신앙적 교류’에 10 명, ‘우리 민족의 단합’에 15 명, ‘자신의 개발’에 12 명, ‘미래의 비전’에 13 명이라고 대답했다. 기성세대와 달리 미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하는 다음 세대로서 타인종과 교류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 특징이고 동시에 우리민족의 단합에도 30%정도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보아 한인의 단합이 이민생활에 중요하고 필요한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자신의 개발과 미래의 비전에 대한 요구도 이민자로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인의 특성상 개인적인 것보다는 공동체적인 성향을 보인 것도 바람직한 면으로 생각되었다.

질문 9: ‘목회자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2 개 선택)라는 질문에는 ‘좋은 설교’에 12 명, ‘더 친밀한 교제’에 14 명, ‘강력한 리더십’에 10 명, ‘선교와 봉사에 대한 집중’에 16 명이 답을 하였다. 기존세대에 비하여 좋은 설교에 대한 요구가 부족한 것은 아마도 세대간의 차이나 언어적 차이와 문화적 차이를 반영한 까닭이라 보여지고 강력한 리더십에 대한 관심의 적은 것도 개인을 존중하는 미국식 문화와 사고의 영향이라 생각이 된다.

이는 목회자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미래에 대한 투자와 구체적으로 선교와 봉사에 대한 집중에 압도적 관심을 보인 것은 역으로 그렇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청년들이 이러한 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으로 선교와 봉사의 자원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질문 10: '영성 운동에 인터넷 활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연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에 4 명, '익명성이 보장되면 바람직하다' 에 6 명, '동의하고 참여하겠다' 에 12 명,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에 3 명이 대답하였다. 의외로 부정적인 면을 걱정하는 사람이 3 명이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도울 용의를 50%이상 표시하여 자신들의 방법으로 연대를 만들어 가기를 희망하는 청년 세대가 많았다. 익명보다는 개방에 대한 동의가 많은 것도 청년의 특징과 원칙적인 입장 표명으로 보여진다.

이상의 청년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민 청년들의 현실과 이상에 대해 나름대로 이해의 폭을 가지게 되었다. 이를 토대로 청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성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 목표를 설정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돌입하게 되었다.

연구반원들의 모임을 통해 청년부의 영성을 키울 영성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방향이 정해졌다.

제 2절 새로운 영성을 위한 목표의 설정과 실행

이 과정을 도표로 정리해 보았다.

대항목	세부항목	대상	기간	비고
영성세미나	신입회원세미나	신입회원	2003 년 3 월 1 주-4 월 1 주	
	인도자세미나	그룹리더	2003 년 1-6 월 둘째 금요일	
영성센터	가정예배드리기	각 가정	2003 년 1-10 월 셋째 토요일	
	컴퓨터교실 (조립반)	희망자	2003 년 2 월 -3 월 6 주간	
	컴퓨터교실 (교육반)	희망자	2003 년 4 월 첫주부터 10 주간	
	다인종연합예배	청년부	2003 년 3,6,9 월	
	선교여행	청년부	2003 년 6 월 4 주	
	Homeless Center	청년 및 희망자	2003 년 7,8 월 1,3 주	
	Nursing Home	청년 및 희망자	2003 년 7,8 월 2,4 주	
	해변청소	희망자	2003 년 8 월 3 주	Town 주관
	Yard Sale	청년부	2003 년 9 월 3 주	

1 훈련과 목표의 설정

새로운 영성을 탐구하는 과정은 먼저 청년부 모임 안에 서로의 공감대와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고 생각을 정리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을 '영성 세미나'의 이름으로 시행하였다.

1) 인도자 세미나

청년부내의 소그룹을 인도할 인도자 세미나를 시행하여 리더들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이끌 수 있도록 하였다.

(1)일시: 2003 년 1-6 월 매월 둘째 금요일

(2)장소: 청년부실에서 오후 5 시-7 시

(3)대상: 청년부 내에서 소그룹을 인도하고 있는 인도자 5 명

(4)강사: 청년부 소그룹 인도자 중 한 사람과 목회자

(5)목적: 실천적 영성을 위한 전략과 전술개발

-청년부 리더들이 영성과 현실의 연계에 대해 먼저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신앙적 토대를 마련한다.

-소그룹에서 청년부들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연계해야 하는 당위성과 참여할 의지를 만들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도록 한다.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들과 우리의 신앙적 관심이 일치하는 영성 센터들을 지역에서 개발한다 (양로원, 지역 내 자원봉사 등)

-개발된 영성센터들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데 앞장선다.

-사례 발표와 토론 등을 통하여 보다 깊은 영성수련의 비전을 만들어 낸다.

(6)구체적 진행

1 월: 성서에 나온 실천적 영성의 바탕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

2 월: 성서에 나온 공동체적 영성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

3 월: 현실교회와 성서적 가르침의 차이와 문제점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

4 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필요와 우리의 능력에 대해 토의

5 월: 우리가 하기로 결정한 것들에 대해 논의

6 월: 평가

(7)평가

그룹리더들은 신앙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스스로의 영성을 실천하도록 격려하고 조직하는 과정으로 세미나는 진행되었다. 리더의 하는 일은 소그룹에서 매우 중요하다. 청년의 특성상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훈련에 대하여 관심이 아주 많았고 열성적으로 참여하였다. 특별히 언어나 문화의 한계로 인해 관심하지 못했던 지역행사나 타인종 교류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는 소득이 있었다

2) 신입회원 세미나

(1)일시: 2003 년 3 월 첫 주부터 5 주 코스

(2)장소: 친교실에서 주일 친교 후 오후 3 시-5 시

(3)대상: 신입 회원과 인도자, 그리고 그룹리더

(4)강사: 청년부 목회자를 중심으로 임원의 도움을 받는다.

(5)목적: 신입 회원들이 청년부의 일원으로 공동체적, 실천적 영성을 개발하고 실천하도록 한다.

(6)내용

첫째 주는 공동체적 교회관

둘째 주는 영성의 출발(구원의 확신)

셋째 주는 실천적 영성에 대한 고찰

넷째 주는 우리 교회의 비전과 영성의 현황

다섯째 주는 본인의 은사와 영성 개발 계획

(7)평가

신입회원들을 위한 '영성 세미나'는 열린 마당으로 진행되어 다양한 질문들과 호기심을 유발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서로에 대해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의 신앙적인 입장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 신앙적 이해와 일반사회와의 다른 점을 알게 되었고, 신앙에 있어서 기본적인 내용과 핵심에 대한 고찰과 토론을 거쳐서 분명한 신앙적인 반응을 가지게 되었다. 신앙에 대해 긍적적인 마음을 갖게된 사람도 있고, 신앙적인 결단을 나중으로 미루는 사람도 있고, 나아가 신앙에 대해 닫혀진 마음을 확인하는 사람도 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을 알고 자신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신의 이해는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2 영성의 실제현장

1) 가정예배를 드리기

교육과 신앙이 올바로 이루어지기 위해 가정에서 기본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고 믿기에 청년들에게 가정예배를 드리도록 제안하였다. 영성의 뿌리는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로부터 생성되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이므로 많은 고민과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지만 반드시 시도해야 할 과정이라고 믿고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1)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안

-부모님과의 시간대가 맞지 않았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시간 일하는 부모님들과 청년세대들이 공유할 시간대가 많지 않았다. 매일 가정예배가 드리기 어려우면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주말에 가능한 시간을 찾아보도록 하였다.

-언어적인 문제로 있었다. 기본적인 대화는 가능하지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2 중 언어로 된 교재와 예배서가 필요하였다. UMC 와 대형교회에서 제작한 가정예배 자료와 지침을 제공[159]하고 한번은 부모가, 한번은 자녀가 각기 자기의 언어로 예배를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나 부모가 지속적으로 인도하도록 하였다.

-문화적 차이가 있었다. 예배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세대간 입장차이를 조절할 원칙이 필요했다. 부모와 자녀는 서로 존중해야 한다. 물론 유교적 배경을 가진 부모세대가 이러한 원칙을 가지는 것은 쉽지 않지만 자녀를 포용하고 교육하는 원칙으로서 이를 강조했다. 나아가 자녀는 부모의 입장을 무조건 배격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대화하는 노력을 요구하였다.

-예배의 방법도 제안하였다. 예배의 시간과 방법도 가능한 제시하여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내용으로 이루어지도록 제안하였다.

(2) 가정예배의 실제

총 25 가정에 대하여 가정예배를 실시하도록 청년들을 교육하고 같은 교회에 출석하는 부모들은 좌담회를,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 부모에게는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보냈다. 종교를 가지지 않은 부모에게는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요청하였다. 2003 년 1 월부터 매월 셋째 토요일에 시간을 내서 가족과의 예배와 만남의 시간을 갖도록 요청하였다.

매월 자료를 제공한 6 개월 이후에 가정 예배에 대한 결과를 수집하였다. 총 가정예배를 시도한 가정은 대상의 25 개 가정가운데 15 가정이었으며 6 개월 이후에도 가정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리는 가정은 총 3 개 가정으로 나타났다.

[159] Kim, Hye Sun *Meditations for Korean-American Families*. Nashville: Abingdon Press, 1998

그리고 가정예배는 아니지만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가정은 5 개 가정으로 나타났다. 예정한 10 월을 지나서도 3 가정은 가정예배가 지속되었고 가정예배로 인한 대화의 회복과 소통과 공감대를 비롯한 많은 유익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3)평가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가지 보완책에도 불구하고 전술한 문제와 제약으로 인하여 쉽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한인 이민사회와 교회가 가정 내에서 세대간의 이해와 대화를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야 함을 보여준다. 가능하다면 부모들을 청년부 예배에 초청하여 먼저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또한 가정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대화를 시작한 가정이 5 가정이 되었다는 것은 부모와 청년세대 모두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증거로 느껴졌다.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일상의 대화부터 시작하여 대화와 이해의 폭을 넓혀가야 한다. 이러한 대화를 더욱 지속적이고 심도있게 만들기 위해 부모와 자녀세대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느껴졌다.

가정예배가 이루어진 가정은 교회의 임원들의 가정이었다. 평소에 이러한 필요를 느끼던 중에 제공된 자료와 필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가정 예배가 이루어졌다. 가정의 신앙적인 배경이 가정예배의 중요한 토대가 된 것이다. 이를 통해 부모세대가 가정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자녀의 신앙에 깊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신앙과 삶의 일치를 위한 가정의 중요성이 재 확인 되었다.

나아가 10 개월이 지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인터넷이나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통해 의지만 있다면 가정예배가 지속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되었다고 평가되었다.

2)교회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교실(조립반)

(1)목적: 새로운 세대의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컴퓨터 통신을 양성화 하고 올바른 정보 습득의 장으로, 나아가 새로운 신앙의 장으로 활용을 모색한다.

컴퓨터는 세상의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인데 교회 내에서 세상의 문화와 연결점을 시도하고 세상의 문화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신앙적으로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컴퓨터 교실을 시작하게 되었다.

(2)준비: 미국에서 공학박사학위를 가진 권사님이 컴퓨터 교실의 모든 내용을 지도해 주시기로 했고 몇 명의 청년부 도우미를 선발 한 후 개설하였다.

(3)진행

-일시: 2003 년 2 월-3 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 시부터 10 시까지

-장소: 교회

-참석인원: 18 명

-내용 1 주와 2 주: 부품주문 및 기본적인 컴퓨터 개념 이해

3,4,5 주: 구체적 컴퓨터 조립

6,7 주: 컴퓨터 기본 프로그램 설치

8 주: 마무리 및 토론

(4)평가

기대 이상의 호응이었다. 교육시간은 10 시까지였지만 자정을 넘기는 경우가 많았고 참여자의 연령층도 주로 4,50 대가 주류였다. 이민자로 살면서 본인에 대한 욕구가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가능하다면 이러한 일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비슷한 연령대와 이미 교회 내에서 쌓은 신앙적인 관계가 교육에 있어서 효과적인 바탕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컴퓨터의 기본적인 지식이 단시간에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봉사자들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도움에 대한 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3)교회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교실(교육반)

컴퓨터 조립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기본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 총 10 주 동안에 컴퓨터의 기본적인 사용영역에 대해 설명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동일한 봉사자에 의해 진행되었다.

(1)일시: 2003 년 4 월 첫 주간-6 월 첫 주간(총 10 주)

(2)장소: 교회 교회학교 교실

(3)참석인원: 평균 35 명

(4)내용:

1 주: 컴퓨터 사용의 지침에 대한 교육(장, 단점과 유의할 점)

2 주: 한글워드 사용하기 1

3 주: 한글워드 사용하기 2

4 주: 한글워드 사용하기 3

5 주: 엑셀로 가계부 작성하기

6 주: 인터넷으로 신문보기

7 주: 인터넷으로 필요한 자료찾기

8 주: 인터넷 이메일 사용하기 1

9 주: 인터넷 이메일 사용하기 2

10 주: 홈페이지 접속하고 글과 사진 올리기

(5)평가

본 교회는 2001 년 1 월부터 교회 홈페이지를 개설하였기에 교인들이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본 교육을 통해서 1 세들의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에 대한 요구가 있으며 새로운 문화에 대하여 교회가 앞장서서 올바르게 적응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컴퓨터와 인터넷 공간은 청소년의 전용공간이 아니라 이제 모든 세대가 함께 공유해야 할 공간이며 동시에 신앙과 선교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노력과 투자가 이루어 져야 한다.

인터넷 공간은 열린 공간일 뿐 아니라 사적 대화의 장으로서 역할도 감당한다. 상담과 토론과 각 이슈에 대해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일대일, 일대 다자간의 만남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교회는 인터넷과 새로운 매체를 잘 이용하여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신앙생활에 유익한 도구로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특별히 2 세나 새로운 세대는 이러한 환경속에서 자라는 것이므로 교육적인 면에서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단 유해한 내용도 적지 않으므로 부모들에게 이에 대한 교육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4) 다인종 연합 예배드리기

1.5 세와 2 세들이 막상 한국교회를 떠나도 성년이 되면 다시 한국교회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뿌리라는 차원과 또한 그들만이 가진 신앙과 문화의 색채가 다른 인종이나 문화에 바탕을 둔 교회와 일치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것이다. 청년들의 영성을 계발하기 위한 제안들 중에서 다인종 연합예배는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당연한 요구였다. 미국 사회 내에서 사는 한인 청년들이 다양한

문화와 타민족과의 교류의 폭을 넓히기 위해 또한 지역 내의 신앙적 연대를 위해서 지역교회 및 다인종교회와 초청예배와 예배의 교류를 실시하였다.

(1)일시:

1차 2003년 3월 22일 Bronx American Church와 연합예배

2차 2003년 5월 24, 25일 지역 한인 연합수련회(Terry Town 한인교회 연합)

3차 2003년 9월 13일 Bronx American Church와 연합예배

(2)진행

1 차와 3 차에는 교회가 예전에 있던 브롱스 지역의 교회와 연합예배를 드렸다. 브롱스는 Afro-American 과 Hispenic 그룹과 Asian 그룹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약 50 여 명이 함께 모여 그들 세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되는 경험을 하였다. 청년이라는 공감대와 기독교 신앙이라는 든든한 공감대의 토대 위에서 아주 자연스럽고 영감있는 예배와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 예배 후에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모임을 마련하고 서로에게 자신들을 소개하면서 Skit Drama 와 음악을 이용하게 하였는데 서로의 문화와 신앙에 대한 뿌리와 강조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반응도 아주 좋았다. 한인 2 세뿐 아니라 다른 인종의 청년들도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신앙의 공통분모를 확인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느껴졌다.

2 차에는 지역 한인교회 연합으로 수련회를 겸하여 진행되었는데 같은 한인으로서 자주 만나고 연합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 세들은 교단이나 자신의 신앙 뿌리에 대한 애착이 강하지만 2 세들은 그러한 것에 대한 의식이 약하고 자신들의 필요, 즉 친구나 문화가 공감되는 교회로 모이는 경향이 있기에 연합으로 이러한 필요나 연합행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진다.

(3)평가

총 3 회의 만남과 예배를 드렸는데 이러한 교류가 계속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한 두 번의 교류는 서로에게 매우 유익했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나아가 타민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유익했다. 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매우 좋았다. 그러나 그 이상의 전진을 위해서 상호노력이 필요했다. 그것은 공통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서로가 필요성을 공감하는 문화활동이나 지역을 돕는 봉사활동 같은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일이다. 그러나 청년들도 나름대로 바쁘고 주도적으로 이러한 일을 진행할 사람이 없다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1 년에 한번이라도 교회가 다른 민족이나 문화권과 교류하는 일은 후발 이민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다.

5) 선교 여행

청년기는 사회의 가치와 요구를 수용하는 시기이기에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영성에 대한 대부분의 방법들이 신앙생활에 한정되어 있기에 사회에 적응해가며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청년들의 삶과는 괴리가 있다. 어느 대학에 갈 것인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결혼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등은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들이다. 기독교 가정에서도 교회생활 이외의 가치에 대한 평가와 선택에 대해 무지하다.

따라서 기독교인이면서 일반인과 다르지 않는 사회의 관습과 가치를 추종하게 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상을 신앙적으로 바라보는 눈, 그리고 안일을 추구하려는 자신의 삶에 대한 도전 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선교 여행은 무척 좋은 프로그램이다.

본 교회에서 돕고 있는 아리조나의 인디언 선교지를 방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상호 신앙의 만남을 가지며,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함께 비전을 갖는 선교 여행을 기획하였다.

(1)준비:

선교지 이해: 2003 년 1-5 월까지 선교지 이해 및 준비 기도회

선교지 지원: 중고 컴퓨터 지원을 위한 모집 및 수리

선교기금을 위한 바자: 음식판매 및 세차

성경학교를 위한 준비: 교사훈련, 교재 및 선물 300 개 준비

홍보: 홍보영상 제공 및 기도제목 교류

(2)일시: 2003 년 6 월 23-28 일

장소: Hopi Indian Reservation(이상혁선교사)

참석인원: 22 명

(3)프로그램:

월요일 오전 출발　　저녁에 도착 및 선교지 개괄설명

화요일 오전: 선교센터 건축참여　　오후 성경학교 저녁 기도회

수요일 오전: 선교센터 건축참여　　오후 성경학교 저녁 선교훈련

목요일 오전: 가가호호 방문 및 대화 오후 성경학교 저녁 선교훈련

금요일 그랜트 캐년 방문

토요일 복귀

(4)평가

백도를 넘는 무더운 여름에 애리조나의 호피, 나바흐 본토 인디언 선교지를 방문하는 것은 힘든 과정이었다. 그러나 건축중인 선교센터를 위해 하루

4 시간씩 노동을 하고 오후에는 아이들을 위한 성경학교를 하고 저녁에는 기도회와 선교훈련을 받는 것은 매우 유익한 경험이었다.

청년들이 선교지를 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것들과 실제로 수행하면서 체험한 일들은 저들의 신앙과 삶에 매우 유익하리라 생각한다.

비록 일주일의 짧은 기간이었고 물이 귀해서 샤워도 할 수 없었고 식수가 없어서 고생하였지만 청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다. 처음에는 우월감을 가지고 시작했던 청년들도 서로가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임을 확인하며 사랑의 교재를 나누었다. 넷째날 진행된 가정 방문에서 거절당하기도 하고 좋은 만남을 가지기도 하였으며 기독교 신앙을 전하는 기회도 가졌다. 우리의 전도 계획이 얼마나 피상적인가를 발견하기도 했고 바른 선교에 대한 비전도 나누었다. 새로운 문화를 만나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이 신앙 안에서 자유스러워 지는 좋은 경험을 하게 되었다.

6) Homeless Center

(1)일시: 2003 년 7-8 월 1,3 주

(2)장소: Rescue Mission

(3)인원: 10-13 명

(4)진행:

7 월 5 일, 19 일, 8 월 1 일, 16 일, 30 일 총 5 회에 걸쳐서 홈리스 센터 방문 및 봉사가 진행되었다.

여선교회 회원들이 음식을 준비해 주셨고, 청년부와 학생부는 함께 가서 음식을 준비하는 일(고기는 그곳에서 준비해야 했다) 배식과 청소 등의 봉사를

하였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지만 교회에서 방문하여 음식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리고 기도하고 배식을 실시하였다.

(5)평가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Rescue Mission Center 를 선택한 것은 이미 기존의 건물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서 안정되게 섬길 수 있는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매일 점심과 저녁을 제공하는데 평균 50-70 명이 식사를 한다. 음식물의 외부 반출은 허락되지 않으며 자원봉사자의 의향에 따라 음식의 선택이 가능하다.

따라서 청년들은 한국식 불고기와 잡채를 준비하여 제공하기도 하였다. 홈리스나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실제로 돕는 일에 참여함으로 봉사에 대해 관심이 증대되고 구체적인 참여로 인하여 앞으로 의 봉사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었다.

준비과정 중에 토론과 대화를 통해 왜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지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이해가 생겼고 신앙인으로서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응답의 책임도 알게 되었다. 또한 제도적 문제를 포함하여 사회적 약자들이 자립하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하였다.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저들이 좀더 삶에 대한 의욕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강했으며 저들의 아픔이나 전체적인 삶에 대해 이해하는 폭은 작았다.

7)Nursing Home

이민 100 주년을 넘기면서 한인 1 세대들의 Well-Dying 에 대한 문제도 많아졌다. 미국에서 연로한 분들은 당연히 사회적으로 Nursing Home 에서 거주하며

임종을 준비하는 것이 문화이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이 이중문화가정에서는 쉽게 이해가 되지만 한국적 문화와는 상당한 갈등을 일으킨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부모님에 대해 끝까지 봉양해야 한다는 생각이 한인들에게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소규모 사업을 하는 경우 시간과 재정적인 면에서 쉽지 않다. 그래서 부모님들을 Nursing Home 에 보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노인들은 할수만 있으면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스스로 독립하여 살거나 Nursing Home 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한인이 있는 Nursing Home 을 방문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결국 우리의 문제임을 생각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그분들을 위로하기로 하였다.

(1)일시 2003 년 7 월 12,29 일 8 월 9, 23 일 아침 10 시-12 시

(2)장소 Catholic Nursing Home

(3)참석인원: 봉사자 15-20 명

(4)목적:

청년과 청소년 문화는 본인이 중심이다. 기성세대와의 차이는 기성 세대의 무시로 연결된다.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체 창조물의 한 구성원임을 인정하고 나와 타인의 관계를 긍정한다는 것이다. 세대간의 관심의 부족과 대화의 부족을 극복하고 서로 존경하고 신뢰하는 공동체를 회복하는데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5)진행

한국 분 10 여 명을 포함하여 총 200 여명이 거주하는 Nursing Home 에 가면서 영어를 잘하는 청년이 사회를 보고 한국무용과 악기연주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음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선물을 많이 준비하여 빙고게임을 통해 골고루 나누어 드렸다. 청소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가벼운 스트레칭도 하고 안마도 해드리고 짧지만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6)평가

미국에서 자란 한인 청소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어색해 했다. 그렇지만 이런 봉사를 통해 연세드신 노인들의 삶을 빠르게 이해했다. 4 번의 방문기간 동안 세상을 떠난 분도 있었기에 아이들이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노인들과 기성세대를 이해하고 도와야 한다는 마음도 갖게 되었다. 신앙과 문화는 세대를 통하여 전승된다. 세대간의 만남은 가능한 자주 가져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방학동안에 진행되었는데 방학이 끝난 이후에 하기를 원했지만 현실적으로 다시 방문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아쉬움도 있었다.

8) 해변 청소 봉사

허드슨 강을 끼고 있는 테리타운에서 강변을 청소한다는 정보를 들은 것은 청년들을 통해서였다. 영성훈련의 방법으로 지역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던 중 알게 된 정보였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하고 홍보하여 30 명 이상이 참여하여 타운 내에 한인들에 대한 이미지를 재고하였다.

(1)일시: 2003 년 8 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9-오후 3 시

(2)장소: 테리타운 내 해변가

(3)주최: 테리타운 위원회

(4)참석인원: 교회 봉사부와 청년학생 포함하여 30 명

(4)목적

테리 타운 내의 해변을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 오물을 제거 하고 정화함으로서 지역 주민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자연 보존의 당위성을 체험케 한다. 소그룹 별로 봉사 전에 자연 훼손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에 대해 공부하고 신앙적인 반성과 자 각의 시간을 갖는다.

(5)진행

아침 일찍 정한 곳으로 집결하여 타운에서 나온 관계자를 통하여 이 일을 해야 하는 목적과 구체적 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받았다. 제공하는 봉투와 기구를 가지고 할당된 지역으로 가서 몇 명씩 조를 이루어 해변가를 청소하였다. 자연이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상당히 많은 양의 쓰레기를 제거하였고 보이지 않는 곳까지 심각한 오염이 있음을 보았다.

(6)평가

지역 신문과 방송에서 나와서 참여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한인들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고 지역내의 많은 분들이 한인의 참여에 대하여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대부분 청소나 힘든 일을 잘 하지 않던 청소년들이 노동의 소중함, 봉사의 기쁨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대한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삶이 신앙과 다시 한번 연결되는 좋은 기회였고 봉사의 기쁨으로 하나되는 신앙 공동체적인 성취도 있었다.

9) 이웃 돕기 야드 세일

(1)일시: 2003 년 9 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8 시-4 시

(2)장소: 뉴욕 한인 제일교회 마당

(3)주최: 청년부 주최, 젊은 선교회들 후원

(4)목적: 야드세일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타운 내 필요한 곳들을 돕는다.

(5)준비

각 가정과 교인들이 운영하는 세탁소, 봉제공장, 옷가게 등에서 입지 않는 옷이나 물건을 모았는데 특별히 의류공장을 하는 성도를 통해 콘테이너 한박스 분량의 의류를 기증받았다. 또한 젊은 선교회에서 만두와 빈대떡 등 한국음식을 준비하여 음식코너도 진행하였다.

(6)실행

오전 8 시부터 시작한 이유는 바자의 주요 대상인 타운내의 히스패닉 인구들이 일찍 일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총 8 시간의 봉사를 통해서 총 $15,000 의 수익금을 얻었고 이 수익금을 청년부와 선교회가 분배하고 타운내의 경찰서와 소방서 그리고 Nursing Home 과 Homeless Center 등에 전달하였다.

(7)평가

Yard Sale 은 미국의 가정에서도 자주하는 보편적 문화이다. 그러나 한인들의 정서상 이러한 Yard Sale 은 하기가 쉽지 않다. 교회를 통해서 미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상당한 수익금을 얻어서 지역을 돕는다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었다.

교회가 하나되고 지역과 호흡하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 즐겁고 보람되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행사였고 미국에 살면서 이러한 일들을 연례적으로 하기로 결의하였다.

제 3 절 실행에 대한 분석

영성에 대한 청년들의 의식의 변화와 실천, 그리고 구조적인 변화에까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목회 현장에 적용을 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 목회지의 변동으로 인하여 두 개의 서로 다른 기간으로 나누어졌지만 여기에서는 편의상 그 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기간을 명시하였다.

1 의식의 변화

의식의 변화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영성의 한계와 문제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영성의 방향과 실천을 모색하기 위한 출발점이었다.

10 개월 동안 현실참여적이고 공동체적인 영성 형성을 위해 준비한 모든 과정을 마친 후에 청년들에게 어떠한 의식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1)영성은 종교적 체험에 국한되지 않는다.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신비한 몸으로 변화하신 후에 그곳에 머무르자는 제자의 요구를 거절하고 세상으로 내려오셨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불붙었으나 타지 않는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집트로 떠나 이스라엘의 구원사역에 동참하게 되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밤을 세운 기도는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과정이었다. 바울의 삼층천의 경험도 이방인을 위한 그의 열정적 삶을 돕는 한 원동력이었다.

기독교의 영성은 신비와 초월의 경험을 내포한다. 그러나 신비와 초월 경험은 우리의 삶과 연결될 때 비로서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영성이 신비와 초월의 기능만이 강조됨으로 삶이 신앙과 분리되고, 일반인을 영성으로부터 격리시켰고, 교회와 사회를 양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더욱이 한국 교회에서는 선교초기부터 정치권과의 미묘한 갈등으로 정교 분리의 원칙을 절대 범할 수 없는 높은 마치 가치를 가진 교리처럼 선언하고, 오히려 교회가 정치적 불의를 눈감아 주고 방조하는 역할을 해왔다. 생활 속의 영성, 기독교적 신비와 초월을 바탕으로 현실의 사명을 감당하는 영성 이해가 절실하게 한국교회에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영성훈련을 통하여 청년들의 가지게 된 가장 큰 인식의 변화는 신앙과 일상의 구별이 극복된 것이다. 신앙생활은 교회와 나의 삶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것임을 알면서도 막상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훈련과 도전이 없었는데 구체적인 현실과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하면서 결코 영성은 종교적 체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의 일상적 경험으로 자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일에 참여한 모든 청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몸으로 느끼고 알게 되었다고 그들의 생각의 변화를 고백했다.

2)기독교 영성은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다.

영성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보편적이고 기초적인 신앙의 출발점이다. 영성은 특별한 초월적 경험을 포함하지만 결코 우리의 일상의 삶과 분리될 수 없으며, 소수의 특별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신비가 아니며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단위이다. 나아가 영성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소유하는 능력이 아니기에 자랑하거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영성은 예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며 그 체험은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형성하고 교회의 지체로 자라게 한다. 영성의 주체는 하나님이므로 교회에 한정된다고 규정할 수 없고 모든 창조물 속에 나타남을 인정하고 영성의 폭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술과 문명의 급속한 발전을 통한 세계화와 산업화는 이러한 전통적인 영성의 개념을 축소시켰다. 과학적 사고는 영성의 기능에만 우리의 관심을 제한하였고, 나아가 인간 중심의 세계관과 결합하여 자연을 착취하고 생태계의 질서를 와해시킴으로 우리 삶의 총체적 위기를 가져왔다. 가부장적 이해는 영성을 계급적인 질서로 이해하도록 왜곡하여 가난한자와 여성을 포함한 약자들을 이중적으로 소외시켰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자연의 상호 관계적인 면을 약화시켰다. 또한 영성을 개인적인 차원으로 인식함으로써 현실의 삶과 단절된 신비적 차원으로서의 영성이 강조되어, 공동체적인 영성의 특징이 상실되게 되었다.

청년들이 이번 영적 도전을 통해서 가지게 된 변화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목회자나 특별한 체험을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이는 자신의 상황과 신앙의 정도에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변화이다.

3) 영성은 공동체적이다.

신앙의 현실에서 청년들은 많은 단절을 경험해 왔다. 교회와 사회가 관점에서 벽을 가지고 있었다. 교회 내에 인종과 문화의 벽이 있었다. 한인교회에 다른 인종의 친구를 데려오는 것이 힘들었고 한인의 문화 속에 타 문화권 사람이 적응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한인교회는 한인공동체로서 게토화되어가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천적 영성의 여정을 통해 이러한 벽들이 무너지고 하나의 큰 공동체로 하나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서로를 배려하고 처음부터 타 문화를 고려하고 포용하는 연합예배, 부모와 함께 하는 가정예배, 지역민 모두가 함께 하는 자연보호 이러한 일들은 세대와 인종이 함께 어우러져 신앙공동체의 연대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친구들까지 함께 할 수 있어서 신앙과 비신앙의 장벽까지고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선교적 모델이 될 수 있다는 확신까지 가지게 된 청년들이 많았다.

2 행동의 변화

신앙은 삶이며 행동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야고보의 지적은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으며 진정한 믿음은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는 요구라고 볼 수 있다.

한인 이민교회의 특성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다. 한인 이민교회는 그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좀더 이웃과 호흡하고 교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현실에 참여하여야 한다. 청년들은 새로운 영성을 위한 과정을 통해 신앙의 새로운 변화와 성숙을 이루었다.

1) 예배의 변화

목회자의 설교가 중심이 되는 예배이기에 참여보다는 수용의 의미가 많았는데 이민자의 현실은 우리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예배가 역동적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와 우리의 현실이 보다 구체적으로 만나야 한다. 영성에 대한 새로운 탐구와 참여의 과정을 통해서 교리적이고 피안적인 설교가 줄어들고 구체적 현실의 문제에 대한 고민과 성서의 답을 찾아가는 쪽으로 목회자의 설교가 변화되었다. 설교 이후에 설교의 내용에 대한

질문과 토론도 가능해 졌다. 대화가 확장되면서 설교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었다. 또한 설교의 주제나 내용이 예배로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회중이 생각하고 느낀 점들을 교회공동체를 중심으로 하여 개인과 공동체적으로 실천하려는 노력이 구체화되었다. 최종적으로는 예배의 참여와 집중이 강화되었다.

청년들 스스로 실천과 행동의 바탕으로서 성경공부를 인정하고 참여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영적 관계형성의 장으로서 예배의 특성이 강조되어 예배가 강조되었다.

2) 교회 공동체의 변화

청년부를 통해 교회와 교회 바깥의 삶이 연결되게 되었다. 주변에서 일어난 돕고 싶은 일, 고민되는 문제, 질문들이 다루어졌다. 개인적인 차원, 그리고 청년 공동체의 차원, 지역차원,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전세계적인 관심과 문제까지 자연스럽게 포용하게 되었으며 삶의 원칙을 세우고 비전을 세우는 청년 공동체가 대화가 회복되어 연대가 강화되었다.

교회의 필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목회자나 교회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과 결심에 의해서 교사봉사나 주차봉사 그리고 교회적 행사에 참여도가 높아졌다.

청년부가 부흥하면서 교회가 활발해 졌고 기성세대와의 인사와 교류도 활발해졌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3)세대간 문화의 융화

교회 내에 1 세와 1.5 세대 그리고 2 세까지 다양한 언어 그룹과 문화그룹이 존재했다. 서로 다른 문화권이나 언어권의 갈등이 많았는데 서로의

접촉점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문화가 융화되었다. 아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부모 앞에서 영어로 찬양을 부르게 되었다.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한복을 입고 전통무용도 하게 되었다.

3 구조의 변화

교회 내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 지원할 때 질적인 변화를 더 잘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영적변화는 그 훈련이나 실천을 통해 더 잘 이룰 수 있음을 청년들뿐 아니라 교인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영성은 기본적으로 훈련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위로부터의 선물이다. 그러나 영성은 훈련이나 실천을 통하여 더욱 풍성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영성의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실천적 영성을 위한 훈련이 모든 교인들에게 필요하다. 나의 영성적 달란트는 무엇인지, 어떻게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갈 것인지, 어떻게 나의 달란트를 심화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해 대화와 훈련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본 교회는 몇가지 구조적 변화를 시도하였다.

1) 영성의 훈련을 위한 직제와 구조의 변화, 그리고 예배의 변화가 필요하다.

개 교회적으로 보면 영성에 대한 관심과 훈련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훈련을 위한 직제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히 이민교회의 특성상 많은 시간과 새로운 자원을 여기에 투자할 여력이 없지만 직제에 반영되는 것으로도 교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이

계획되고 실행된다면 교회의 변화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장시간 단순 노동을 주로 하는 이민자의 형편상 주일예배에 집중될 수 밖에 없는 이민교회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예배의 변화는 영성에 대한 보이지 않는 교육과 체험의 장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교회의 구조적 변화를 위한 첫 번째로 직제와 예배의 변화를 제안한다.

(1) 교회의 조직 내에 영성실천을 위한 구체적 위원회를 상설한다.

영성은 전문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서 훈련된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있다. 특별히 시작 단계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예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신 말씀 것처럼 교회의 영성은 아직 신앙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예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초대하고 훈련하는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영성의 계발과 현실적 참여를 위한 위원회를 상설하여 교회 전체적으로 이러한 분위기가 확장되도록 하였다.

첫째는 ‘장년 성경공부반’의 신설이다. 매주일 오전 10-10 시 45 분까지 비평적 성경공부를 통해 성경의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의미를 깨달아가는 성경공부를 하도록 하였다. 조금은 어렵지만 이러한 성경공부를 통해서 말씀에 토대를 둔 실천적이며 공동체적인 영성의 뿌리가 내려질 것이다.

둘째는 감리교회는 모든 교회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교회의 구조상 이러한 영성의 실천을 감당할 좋은 부서가 있는데 그것은 ‘사회 봉사부’이다. 사회 봉사부 안에 지역선교를 위한 위원회를 신설하여 이러한 일에 관심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도록 하였다.

셋째는 미래 위원회를 신설하였다.

Local Church 보다는 Metropolitan 적 특징을 가진 대 교회가 많아지고, 공동체적 특성을 상실해 가는 현대 교회들이 자신들의 위치에서 행할 수 있고 행해야 하는 많은 일에 대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바라보며 감당할 준비와 훈련을 위해 준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후발 이민자로 이 땅에 정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 이민 1 세대로서 노년을 맞이하는 세대의 문제, 가치관의 혼란을 겪는 2 세대의 문제, 우리의 미래를 위한 현안들의 문제 등의 큰 문제로부터 학업의 문제, 이성의 문제, 문화적 갈등의 문제 등의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바라보고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구체적 삶에 끊임없는 도전에 대한 적절하고 다양한 대응을 위해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위원회가 필요하다. 특별히 청년들과 미래 세대를 위한 비전을 지원하고 격려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본 교회는 교회 부서 내에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교회 미래 위원회’를 신설하여 한인이민교회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구체적 목적으로는 가정예배를 활성화하기. 청년들 진로지도를 위한 상담하기. 교회내의 자원봉사자 발굴 및 봉사하기, 지역사회와 교회와 연계하기와 같은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하였다.

교회 전체적으로는 훈련받은 사람들이 늘어 이해의 폭과 봉사자의 자원이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자원을 바탕으로 여러가지 봉사의 실천이 가능해 졌다. 특별히 교인 중에 의료인들의 협력을 받아 의료봉사와 같은 전문적인 봉사가 가능해 지면서 의료봉사뿐 아니라 의료봉사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봉사가 가능해 졌다. 지역봉사를 비롯한 몇몇 봉사는 평신도들이 중심이 되어 모든 과정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있으며 세대간의 교량 역할과 전 교인의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위원회들이 되었다. 이러한 위원회는 방대한 조직보다는 목회자와 위원회의 취지에 맞는 의사나 현직 교사 같은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고 경험자들이 지원한다면 교인의 참여도나 효과가 배가되리라 생각된다.

(2) 예배와 성만찬의 변화가 필요하다.

예배는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적인 가치관과 삶의 동기를 부여받는 자리이다. 그런데 예배의 형태와 중심이 제도적이고 교리적인 면에 치중하고 있다. 즉 교회가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모이는 것은 흩어지기 위해서이다. 호켄다아크는 현대 교회의 흩어짐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우리의 영성은 바로 이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위한 영성이 성서에 나타난 사도의 영성의 핵심이다.

성만찬은 루터의 종교개혁 때 세례와 함께 수용된 두 가지 성례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 사이의 완결되지 못한 심각한 논쟁은 성만찬을 교단마다 다르게 신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하게 하여 결국 개신교회(Protestant Church)에서 영성의 중심으로서의 위치를 상실하였다. 개신교는 성례전의 약화로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었지만 말씀 중심 즉 예배 중심의 공동체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약화를 자연스럽게 가져왔다. 해석상의 난맥은 있지만 ‘하나님과의 연합’이란 성만찬의 정신을 살려내어 우리의 삶과 연결시키는 것이 선결 과제이다.

실천적 영성을 함양하고 공동체성이 강조되는 교회 분위기는 전통적 영성의 약화를 가져올 가능성에 대하여 염려가 되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교회의 전통적 영성에 지키고 계승하는 일에 대한 고민의 답으로 예전의 회복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즉 성만찬에 대한 현대적 해석이다.

현대 교회에서 성만찬의 정신을 살려내는데 있어서 고민해야 할 일은 다양한 상황과 요구에 부합하는 성만찬 예문의 개발이다. 감리교회에는 예전 위원회가 있어서 다양한 상황에 맞는 예전을 전통에 기초하여 현대적 의미를 가미한 예문집을 발행하고 있다. 민족적인 절기, 교회력의 절기를 포함하여 다양한 성만찬을 실행하여 성만찬을 설교와 더불어 예배의 중심으로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다.

이를 위해 목회자가 성만찬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야 하고 또한 목회자부터 설교중심의 예배에 익숙한 상황에 대해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 설교와 성만찬의 연계가 설교의 의미를 풍부하게 하고 성도들의 결단과 성령체험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동력임을 확신하고 이를 확대 실행하여야 한다.

교회는 영성 공동체로서 잃어버린 영성의 면을 회복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영성은 소유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바탕으로 올바른 대 자연, 대 사회의 관계를 회복하는 삶으로의 요청이기에 끊임없는 우리의 응답을 필요로 함을 기억해야 한다.

4 목회자의 변화

이러한 변화에서 가장 먼저 중심에 있는 사람은 목회자이다.

목회 현장의 변화는 목회자의 변화로부터 출발한다. 목회자의 변화는 새로운 상황과 세대를 향한 신앙의 재해석이며 살아있는 역동적 신앙 공동체를 위한 출발점이다. 넬슨 떼이어는 교역의 역할을 “사람들로 하여금 이 시대 속에서 성서속에서 계시되고 교회의 은총과 삶을 통해 표현된 거룩한 하나님의

차원을 향해 개방적으로 그를 체험하고 질서를 세우도록 돕는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이것이 기독교 영성 형성이고 목회의 과제이다"[160] 라고 정의했다. 영성에 대한 보다 깊은 탐구와 구체적인 영성 훈련과 생활화를 위해서 목회자의 변화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목회자가 변화하기 위한 몇가지 기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영성의 훈련이 필요하다.

영성은 기본적으로 훈련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위로부터의 선물이다. 그러나 영성은 훈련을 통하여 더욱 풍성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영성의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실천적 영성을 위한 훈련을 우리는 받아야 한다. 나의 영성적 달란트는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갈 것인지,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 대화와 훈련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기본적으로 주어진 목회현장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는 영성의 개발과 훈련에 부족하다. 급격한 사회적 변화와 문화적 충격과 기술적 변화는 훈련의 필요성을 목회자에게 요구한다. 따라서 특별한 목적을 가진 영성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2) 영성을 실천하는 시간을 절대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영성의 실제적 훈련과 나아가 영성의 실천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웃과의 만남을 통하여 완성된다. 이것이 영성의 실천의 의미이다. 개인적이고 신비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한국인의 영성은 공동체를 향한 영성의 실천을 통하여 깊어진다. '노동이 기도이다' 라고 했던 카톨릭

[160] 넬슨 떼이어, 백상열역, *영성과 목회*(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9), 64.

신부의 고백처럼 삶속에서 우리의 노인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사회의 약자에게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또 다른 기도이어야 하고 영성이어야 한다. 교회와 개인의 한계를 넘어서고, 종교적 차원을 넘어서서 교회와 사회, 개인과 집단, 그리고 현실과 미래를 어우르는 영성을 위해 영성의 실천, 나눔은 필수적이다. 목회자에게 가장 부족한 점이 이것이다. 기도와 말씀의 영성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만 현실적으로 목회자가 실천적 영성의 부분에 있어서 교회의 구조와 본인의 의식이 많이 부족하다. 따라서 영성의 실천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3) 협력과 섬김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러한 영성 훈련에서 중심에 있는 목회자는 협력과 섬김의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161] 이는 보다 나은 영성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반드시 배양해야 할 핵심과제이다.

첫째로 평신도 지도자의 발굴과 지도력의 배양이다. 가능한 한 영성센터의 실천은 평신도 리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비슷한 또래 집단인 청년부에서 평신도 지도력은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강력하게 나타난다.

둘째 모든 교회의 자원과 능력이 연계되어 최선의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위해서는 교회의 모든 부서들이 연결되어야 하고 교회의 인적자원과 재정적 자원과 교회의 사명이 입체적으로 모아져야 한다. 나아가 개체교회를 뛰어넘어 자원을 함께 공유하는 연대가 있어야 한다.

---

[161] 이러한 리더십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카리스마형 리더십이 있는데 종교에 있어 카리스마형 리더십은 계시에 중심을 두는 유형, 기적과 이사 유형, 교사-철학자 유형, 점성가나 예언자형이 있다. 이 모두는 예수의 리더십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H.C 키, 서중석.김명수역, 그리스도교 기원에 대한 사회학적연구(서울: 대한 기독교출판사, 1984), 64-75.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나가면서 목회자는 현실 변화를 목적으로 한 영성 계발 운동이 교회의 전통적인 역할-예배와 성경 공부, 그리고 전도 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또 하나는 이러한 변화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목회 행정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는 것이다. 많은 행사들이 조화롭게 진행되고, 센터들 간의 연계와 평가와 기획 등이 잘 이루어지도록 전문적인 행정의 뒷받침이 절실하다.

제 4 절 목회자의 목회 능력 개발

본 논문의 실제적 과정에 참여하고 함께 연구하며 목회자의 능력을 개발하는데 조언과 도움을 줄 연구반원을 5 명으로 만들었다. 이들은 교회의 청년사역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신앙적으로 목회자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로서 구성은 다음과 같다.(2002 년 5 월 현재)

이름	성별	나이	교회직분	직임	비고
라찬국	남	65 세	장로	교육부장	의사
전진수	남	56 세	집사	청년을 둔 부모	1 세
전지훈	남	27 세		청년회장	1.5 세
최은실	여	25 세		청년부원	1.5 세
한아영	여	22 세		청년부원	2 세

본 연구반원 중 라찬국장로는 35 년 전 한국에서 의사로 활동 중 미국에 와서 코네티컷 주 스템포드지역에서 30 년을 의사로 활동한 존경받는 1 세대 이민자이고[162]은 전진수집사는 이민온지 10 년되어 맨하탄의 신발가게에서 일하는 대다수 전형적인 1 세대 이민자이면서 1.5 세 자녀를 둔 본 연구에서 실천적 분야의 멘토가 되는 분이다. 전지훈과 최은실은 중.고등학교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서 정착한 1.5 세이고 한아영은 장로님의 딸로 미국에서 나서 자란 2 세 청년이다. 남성이 3 명 여성이 2 명으로 상황과 연령의 조화를 이루도록 고려하였다.

---

[162] 라찬국장로는 2003년 코네티컷 주에서 한인 이민백주년을 맞아 선정한 '미국을 빛낸 한국인' 5명에 선정되어 시상받은 분이다.

연구반은 2002 년 1 월부터 10 월까지 매월 1 회씩 모임을 가져서 목회자로서 본인의 유능성과 개발을 위한 조언과 평가를 해주었고 본 연구가 진행되는데 있어서 주도적인 입장으로 참여해 주었다. 연구반원의 모임에 관한 기록이다.

특별히 청년 3 명은 청년의 영성탐구에 있어서 회원들을 독려하고 대화를 이끌어 내며 앞장서서 실천하여 나름의 성과를 만들어 내는데 노력한 공로자들이다. 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모임에 빠진 적이 없는 열성으로 목회자를 격려한 사람들이기도 하다.

일시	참석자	장소	내용
2001 년 8 월 19 일 오후 5 시	라찬국 전진수 전지훈 최은실 한아영	식당	연구과정에 대한 개괄적 설명
2001 년 9 월 19 일 오후 5 시	라찬국 전진수 전지훈 최은실 한아영	교회	청년부 현황과 상황과 신앙에 대한 토론
2001 년 10 월 21 일 오후 5 시	라찬국 전지훈 최은실 한아영	교회	지역사회의 현안에 대한 참여방법 논의
2001 년 11 월 18 일 오후 5 시	라찬국 전지훈 최은실 한아영	교회	설문과 교육에 대한 논의
2001 년 12 월 16 일 오후 5 시	라찬국 전진수 전지훈 최은실 한아영	사택	새해 영성센터에 대한 논의와 결정
2002 년 1 월 20 일	라찬국 전지훈 최은실 한아영	식당	청년부 영성수련회
2002 년 2 월 17 일	라찬국 전지훈 최은실 한아영	교회	청년부 주최의 컴퓨터 교실 및 세미나
2002 년 3 월 24 일	라찬국 전진수 전지훈 최은실 한아영	교회	가정 예배에 대한 평가 및 조언
2002 년 4 월 21 일	라찬국 전진수 전지훈 최은실 한아영	교회	목회자 유능성에 대한 토론과 논의
2002 년 5 월 19 일 오후 5 시	라찬국 전진수 전지훈 최은실 한아영	사택	영성을 위한 제언과 종결

1. 목회자의 유능성

한국은 20 세기에 기독교가 가장 빠르게 부흥한 나라가운데 하나이다. 전 국민의 25%가 기독교인이며 천 만명 이상의 신자를 자랑하고 세계에서 손꼽히는 각 교단의 대형교회가 한국에 존재한다. 그러나 고속성장과 산업화 시대에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교회의 사회적 응답이 충분치 않다. 현실에 안주하는 교회에 대한 비판이 늘어나고 있다. 신앙 안에서 누렸던 전통적인 영역을 상실함으로 교회의 역할은 축소되고 신앙과 현실이 분리되어 이해되는 상황에서, 기독교인의 책임과 목회자로서의 책임을 다시 생각해 본다. 누가 기독교인인가? 기독교인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 성실하게 나의 섬기는 공동체와 함께 대답해 가는 것이 나의 목회자로서의 유능성의 기준이다.

특별히 이민 교회를 섬기기 시작한지 15 년이 되는 올해는 이민 목회를 위한 자기 자신의 점검과 새로운 미래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목회자로서의 모든 역량과 관심이 이민 사회에서 교회의 바른 역할과 이민 2 세기를 위해 투자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유능성의 기반에는 "기독인의 최후 승리와 의의 승리를 믿는다"는 감리교의 고백이 바탕하고 있다. 목회자의 유능성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신앙의 목표성에 근거하며 이것은 현실의 도전과 유혹을 이기는 힘이 되기 대문이다. 바울로부터 시작된 이방-전세계-을 향한 복음의 열정은 오늘의 크리스천과 목회자가 마땅히 간직하여야 할 신념이라고 생각하며 갈라디아서 6:9 절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말씀처럼 날마다 이러한 복음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통한 선(善)의 실행과 평화의 선언에 매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구반원들은 목회자에 대하여 몇가지 면에서 유능성을 인정해 주었다.

1) 설교자로서의 목회자

성경을 해석하고 현실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신선하고 본문에 충실한 강해스타일의 설교에 대하여 연구반원들은 호의적인 반응과 인정을 해주었다. 현실적으로 교회에서 목회자의 유능성을 판단하는 가장 힘있는 기준이 설교임을 감안하면 설교자로 인정받는 것은 복된 일이고 목회자와 교인의 소통이 검증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목회자와 교인의 소통이 중요하지만 전해져야 할 내용, 즉 성서적 통찰력과 메시지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고민해야 한다. 목회자가 설교자로서 많은 짐을 지고 있지만 그 설교를 통하여 이민자들이 믿음으로 성숙해지고 위로와 힘을 얻는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설교에 대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지적인 면과 현실적인 적용의 폭을 넓고 깊게 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2) 행정가로서의 목회자

감리교회는 담임목사가 교회 행정의 책임을 겸하여 진다. 이민교회는 자체 건물을 소유하기 어렵고 봉사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점등 그 현실적인 제약과 특성으로 인하여 체계적인 행정이 어렵다. 결국 이 모두가 담임자의 몫으로 주어지는데 일어난 일을 뒷정리하는 행정으로 시작하지만 자료가 3-5 년 정도 쌓이면 성도들의 신앙과 교회의 비전을 세우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따라서 목회자가 행정가의 일을 겸하면서 그 자료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목회적 방향설정과 조직과 실행을 이룰 수 있다. 특별히 이민교회에서 갈등의 원인 되는 사람을 세우고 훈련하는데 1 차적인 근거자료가 되기에 유익한 면이 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판단하여 교회 예배의 출석과 헌금생활 및 기도생활을

포함하여 목회자의 심방과 예전 그리고 회의자료까지 목회에 꼭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3) 문화적 소통자로서의 목회자

청년부를 담당하는 동안 청년부의 문화와 관점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많은 공감을 얻었다. 물론 이민청년들은 필자와 다른 환경과 문화적 배경 속에서 성장하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세대와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청년뿐 아니라 부모들도 인정해 주었다. 나름대로 많이 활용했던 부분은 운동과 음악이다.

교회의 공적인 시간을 제외하고도 사적인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했고 일대일 뿐만 아니라 소 그룹으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운동과 음악적 활동을 했다. 처음부터 공감대가 많았던 것은 아니지만 운동을 잘하는 친구가 음악을 잘하는 친구와 짝을 이루어 서로 음악과 운동을 가르치며 협력하고 공감하도록 했고 가끔씩 외부와의 교류도 내부적인 단합을 도모하는데 유익했다.

문화적 행사에 대한 관심을 높였고 교회에서 절기나 특별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어른들과의 소통에도 관심을 가졌는데 부모세대는 당연히 환영하며 격려와 용기를 주었다.

4) 격려자로서의 목회자

나 자신이 유학을 목적으로 미국에 와서 나름의 고민과 어려운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경험은 늦게 미국에 와서 공부하며 갈등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는데 있어서 유익한 도구가 되었다. 청년들도 보이지 않는 갈등과 방황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격려받고 싶다. 교회에 오면 가족과 사회에서 얻지

못하는 편안함과 공감대를 느끼기 때문에 교회의 청년부에 찾아온다고 고백하는 경우도 많았다. 군대에 들어가는 문제, 진학과 학업문제, 결혼문제, 직장문제와 가족의 문제처럼 이민청년들은 많은 고민을 안고 사는데 목회자가 그것을 이해하고 조언해 주는 자세를 가진 것이 청년들과 부모에게 인정받은 것이라 생각한다.

2 더 나은 목회자가 되기 위한 제언

주변과 교인들의 평가는 보여지는 부분과 느껴지는 부분에 관한 것이다. 물론 그 안에 목회자에 대한 평가도 존재하지만 목회자 스스로가 느끼는 것과 차이가 있다. 더 나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 다짐하고 결심하는 부분이다.

1) 나는 성경을 공부하고, 해석하고, 선언하고, 실천하는 일에 대하여 나의 능력과 사고의 틀을 넓히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감리교회는 성서와 이성, 전통과 경험을 신학의 4 가지 주제로 삼고 있는데 성서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성서는 또한 시대와 상황에 따른 해석의 의무를 목회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오늘의 상황에 맞추어 시대를 뛰어넘는 성서의 의미의 해석은 목회자의 필수적인 능력이며 올바른 목회의 출발점이다. 또한 시대가 원하는 목회자 중심의 목회가 아닌 평신도 사역자의 양성을 위하여서도 이러한 성경적 기반은 반드시 필요하다. 목회자는 말씀 사역자로서 그리스도를 섬긴다. 반드시 실천하는 삶을 통해 말씀을 외쳐야 하며 가르친 내용을 실증하고 확인하며 말씀을 더욱 효과적으로 적용시켜야 한다.[163]

---

[163] 마크데버외 6인 저, *십자가를 설교하라*, 이심주역(서울: 부흥과 개혁사), 44.

나는 복음을 내가 사는 시대의 언어로 재해석하는 일에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복음이 다른 문화와 전통들 속과 수용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가진 문화적 배경 속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인다. 한국의 기독교는 수 천년 동안 한국인의 전통과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는 샤머니즘과 불교와 유교의 바탕 위에 수용되고 있다. 이것은 기독교의 진리를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서구적인 사고와 논리만으로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뜻이다. 나는 한국의 문화와 정서 그리고 종교적 심성에 적합하도록 기독교 복음을 그 상황에 맞도록 재해석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이차적으로 복음을 전달받은 타 문화권의 목회자의 의무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성경 읽기는 매일 새벽기도 후 1 시간 정도의 시간을 정하여 본문 읽기-가능하면 희랍어 히브리어 원어 연구도 병행한다-와 연구가 병행되도록 한다. 또한 성서를 올바로 해석하기 위하여 목회자는 일주일에 최소한 1 권 이상의 책을 읽어야 한다. 이러한 목회자의 독서는 상황에 따라 이루어지기보다는 계획을 가지고 시도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신학 도서와 신앙 도서만이 아니라 경제, 정치,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차원의 독서가 되도록 계획과 방향을 수립하고 도서목록을 작성하고 독서 후에는 짧게라도 독후감이나 도서 카드를 반드시 기록하여 필요한 때에 독서가 곧 목회의 자료를 제공하도록 한다.

2)교회와 지역사회의 연결성을 확보하는 일에 목회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교인들 자체가 지역 구성원이며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는 80 년대의 민중 신학과 민중운동이 한창일 때 신학을 공부했으며

목회를 시작하였다. 민중의 삶과 동떨어진 교회와 신앙은 절름발이 신앙일 뿐이다. 신앙과 삶의 조화를 통하여서만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세워갈 수 있음을 믿는다.

기독교의 복음은 교회 안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교회 밖의 상황에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믿는다. 많은 전통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전통이 시작되고 있다. 여성의 사회 지위와 참여의 문제나 사회적 억압의 문제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 불의의 문제 등등 이 사회의 수많은 문제들은 교회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신앙인도 당연히 대답하고 책임을 나누어져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목회자는 이러한 책임을 인식하고 준비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나는 나의 목회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고민하고 참여하고, 지원하는 신앙 공동체들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나는 나의 목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성경 공부 그룹을 활성화시키려고 한다. 전통적인 성서 연구에 여성의 눈으로 읽는 성서와 성서가 말하는 경제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자기 이해의 발견 등 새롭게 시도되는 사회적이고 신학적인 방법을 접목하여 우리의 시대에 대한 성서적 관점과 이해를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이민으로 인하여 한국사회와 단절되어 기본언어인 한국어를 통해 습득해야 할 많은 정보와 문화적 혜택에서 단절된 채로 살아왔고 또한 미국에 살면서도 충분한 교육과 정보의 축적을 이루지 못한 이민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민목회의 성경공부는 소그룹과 다양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목회자가 전적으로 답을 주는 방법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체험을 나누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한다. 성경공부는 지식의 축적이라는 목적도 있지만 또한 성경공부를 통해 마음을 열고 회복하는 보이지 않는 목적도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성경공부를 통해 얻어진 결론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과 구체적인 목표를 제공한다면 성경 연구 그룹은 이민교회에 새로운 활력을 주는 모임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성경 연구 그룹은 성경 공부를 뛰어넘어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가질 수 있는 자원 그룹이 될 것이다.

이민교회는 사람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는 특별한 시스템을 가지기가 어렵지만 성경공부는 훈련과 양육과 실천 그리고 이를 통한 성도들의 사회적 영향력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지역 교회들과 서로 관심있는 지역사회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경제적 인적 자원의 교류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내에 있는 전문 시민 단체들과 관공서들과의 유기적인 관련을 시도할 것이다. 파악된 상황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재정을 지원할 부분과 인력으로 참여할 부분, 그리고 교회가 전담할 만한 부분 등을 결정하고 이를 위한 계획들을 수립할 것이다. 예로는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상담 전화를 설치하고 교회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이를 시행하는 것과 지역 교회와의 연대를 통한 청소년 센터 운영, 부모가 일하는 가정의 자녀를 위한 학업돕기 프로그램 등은 언제나 어디서나 필요하고 시행해야 하는 프로그램이다.

교회의 선교는 성서의 지상 명령이며 예수의 마지막 명령이다. 그러나 선교는 강제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타종교와의 갈등을 힘으로 극복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타민족 선교와 교회 수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내의 교회의 올바른 사명 감당은 이보다 절대 중요성에서 뒤지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목회자 중심의 교회 운영을 볼 때 목회자의 유용성은 얼마나 지역사회에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가에 있음을 확신하며 목회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한다.

3) 자기 자신의 달란트를 개발하는데 노력한다.

목회자는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이며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다. 이것은 목회가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한 지체이며 나아가 전체 교회와의 조화 안에서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뿐 아니라 이민 사회도 지나치게 많은 교회의 숫자가 문제가 되고 있다.(2009 년 현재 미주의 한인교회는 4 천개를 넘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단순히 교회의 숫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한 신앙적으로 바르지 못한 일들이 한인사회 내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교회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파생되는 많은 문제들로 교회의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고 결국 선교에 지장을 주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교회의 지역사회에 대한 선교적 책임을 나누거나 지역사회에 대한 섬김의 방법을 다양하게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현대에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화와 삶의 양식이 존재하고 이것은 교회의 역할에 대하여서도 새로운 모색을 요구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음악적 소양을 더욱 계발하여야 할 필요성을 갖는다. 2 세들에게는 이민 1 세대의 전통적 예배 형식보다는 그들의 요구가 반영된 새로운 예배 형태가 필요하다. 특별히 “Contemporary Worship Service"라는 오늘날의 새로운 형식의 예배가 현대성의 특징을 반영하는 예배 형태로 유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적인 변화를 주는-즉 전통적이고 고착된 예배 형태가 아닌 시대의 문화와 흐름을 반영하는-것이다. 이러한 현대적 예배 형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은 생동감 넘치는 흐름과 가슴에 와 닿는 언어와 음악, 영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분위기 그리고 격의 없는 친교 등이다. 이러한 예배의 갱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의 역할과 리더십이다. 전체적 예배 순서를 계획하고

함께 할 찬양을 선곡하고 예배의 staff 들을 훈련하는 모든 과정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영성 뿐만 아니라 음악을 포함한 문화적 소양이 매우 중요하다.

목회자에게는 전문적인 음악 훈련도 중요하지만 현실의 문화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쉽지 않지만 새로운 찬양을 자주 접하고 가능하면 집회 실황도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자신이 그러한 음악을 통해 젊은 회중들과 호흡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자신의 세대의 영성이 담긴 음악을 공유하려는 노력도 해야 한다. 전통적인 찬양에서부터 현대의 찬양까지 폭넓은 접촉은 목회자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일주일에 1 곡 이상의 새로운 찬양 Tape 이나 CD 를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별한 강연이나 집회들은 인터넷이나 원고를 주문하여 보고 듣는다.

하나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 그것은 시간 관리의 계발과 실천이다. 목회자는 늘 바쁘고 많은 업무량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긴 업무 시간과 연결되며 스트레스를 가져온다. 많은 목회자가 자신의 일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생각하기에 과중한 업무에 대하여 문제를 삼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계속됨으로 인해 생겨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목회자 개인의 문제와-개인적인 스트레스와 건강의 이상 등- 파생되는 이차적인 문제-목회자 가정의 문제-등에 직면하게 된다. 그렇기에 늘 목회자 자신은 일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지나친 과로나 일의 집착에서 탈피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우선 순위로는 설교와 예배 기획, 영성 계발과 기초적인 목회 행정, 그리고 심방과 성경 공부, 지역 선교 모임의 참여, 교단의 행사 등을 들 수 있고 이 외에도 최소한의 수면 시간을 확보하고 건강을 위해 운동을 반드시 한다.

3 유능성 개발에 대한 평가

1) 성경공부에 대한 연구와 폭넓은 독서는 설교의 발전을 가져왔다.

먼저는 설교자 자신이 자신의 설교에 대해 보다 확실한 이해를 가지게 되었으며 선포하는데 있어서 좀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설교를 하게 되었다. 교리적인 면을 생활에 적용시키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으며 이로 인해서 교인들의 삶이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고 자평한다. 또한 계획적인 독서로 인하여 넓게는 일년의 설교를 미리 준비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지적인 면과 감성적인 면의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 나아가 설교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수시로 수행하여야 하는 작은 설교-심방과 각종 모임에서의 설교-와 예배 설교가 일정한 맥락을 유지함으로 교인들에게 오는 혼돈을 최소화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목회자 자신을 포함한 교회 공동체가 일정한 일체감(Identity)를 공유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목회를 수행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최근에 구입하고 읽었던 도서를 순서대로 목록으로 정리하였다.

차이나 히트상품 이훈, 이훈, 푸른사람들, 2008.

큰 사람 - 원방현이 만난 사람들, 원방현, 영혼의 약국, 2008.

나쁜 사마리아인들, 장하준, 이순희역, 출판사 부키, 2007

Q복음서, 김용옥, 통나무, 2008.

도마복음 이야기 1, 김용옥, 통나무/ 2008.

A4 두 장으로 한국사회 읽기-창비주간논평 2006~2008, 한기욱&김종엽, 출판사 창비, 2008.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변화 - 버락 오바마 연설문 2002-2008, 모린 해리슨. 스티브 길버트(엮음), 이나경역, 홍익출판사, 2008 .

성찰하는 진보, 조국, 지성사, 2008.

상상력에 엔진을 달아라, 임헌우, 나남, 2007.

디케의 눈 - 금태섭 변호사의 법으로 세상읽기, 금태섭, 출판사 궁리, 2008.

선샤인 지식노트-새로운 세상과 만나는 200개의 지식코드, 강준만, 인물과 사상사, 2008.

기꺼이 길을 잃어라 - 시각장애인 마이크 메이의 빛을 향한 모험과 도전, 로버트 커슨, 김희진 역, 열음사, 2010.

설교의 절망과 희망 - 정용섭의 설교비평 3, 정용섭, 대한기독교서회, 2008.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고든 D. 피. 더글라스 스튜어트, 오광만역, 성서 유니온 선교회, 2008.

감사의 힘, 데보라 노빌, 김용만역, 위즈덤하우스, 2008.

성경적 기도와 큐티, 김정복, 보이스사, 2008.

마음의 눈으로 행복을 만지다, 김기현, 대성닷컴, 2008

바라봄의 법칙, 주대준, 두란노, 2008.

왕의 기도, 손기철, 규장, 2008.

고맙습니다 성령님, 손기철, 규장, 2007.

성경 속의 도시탐험, 이원희, 기독통신사, 2004.

사해사본과 그리스도교의 기원, 임마누엘 토브, 임미영역, 쿰란, 2008.

처음처럼 예배하라, 캄 크라우터, 장택수역, 예수전도단, 2008.

청중을 사로잡는 13가지 맛깔스런 설교 레시피, 데이브 스톤, 김지홍역, 국제제자훈련원, 2008.

한국기독교, 김영재, 합신대학원출판부, 2009.

가룟 유다 딜레마, 김기현, IVP, 2008.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사사기 룻기, 게리 필립스, 이종순역, 디모데, 2008.

오늘 더 사랑해, 션& 정해영, 홍성사, 2008.

인디오의 친구 브루츠코, 부르스 올슨, 최요한역, 복있는 사람, 2008.

결혼생활의 사계절-5가지 사랑의 언어 5가지 사과의 언어, 게리 채프먼, 조계광역, 생명의 말씀사, 2008.

가난한 아빠 미국 명문대 학부모 되기, 이강렬, 황소자리, 2008.

선비 크리스천, 이승종, 쿰란, 2008.

다시 써야 할 세계 선교역사 1, 최정만, 쿰란, 2008

누가 가르쳐 주지 않은 성경밖 성경이야기, 유재덕, 브니엘, 2008.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박영덕, 생명의 말씀사, 2009.

구원받은 이후에, 박영덕, 생명의 말씀사, 2008.

열린다 성경, 류모세, 두란노, 2010.

구원자예수, 맥스 루케이도, 방춘복역, 아가페, 2008.

뜻밖에 선물, 홍석환, 홍성사, 2008.

사람의 법 하나님의 법, 고득륜, 홍성사, 2008.

말씀사모, 조이스 윌리엄스, 장남혁.심광수역, 성서 유니온선교회, 2008.

기독교 인물사상사전, 토니레인, 박도웅.양정호역, 홍성사, 2007.

기독교교양, J. I. 패커 , 유진 피터슨, 리처드 포스터, 이용복.전의우역, 규장, 2007.

교회사에 나타난 마태복음 명설교요약, 헤럴드 앵린슨, 김원주역, 크리스천 다이제스트, 2008.

하늘 위에 있는 나의 집, 맥스 루케이도, 정성묵역, 가치창조, 2008.

솔로몬 탈무드, 이희영, 동서문화사, 2007.

교회가 꼭 대답해야 할 윤리문제들, 신원하, 예영, 2006.

의료윤리에 대한 새로운 문제들, 제이 홀맨 엮음, 번역: 박재형 외, 예영, 2008.
소극적 안락사 무엇이 문제인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부설 기독교윤리연구소 편, 예영, 2007.
빌 하이벨스의 액시엄, 빌 하이벨스, 김성녀역, IVP, 2008.
밀레니엄 매트릭스, 렉스 밀러, 김재영역, 국제제자훈련원, 2008.
역동적인 목회를 위한 21법칙, 양철희, 은혜출판사, 2007.
교회마케팅101, 리차드 라이징, 오수현역, 올리브북스, 2007.
MT로 캐내는 말씀 금맥, 장인식, 토기장이, 2006.
이머징 교회 - 한국 교회에 다가오는 변화의 물결, 에디 깁슨/라이언 볼저, 김도훈역, 쿰란, 2008.
새신자반, 이재철, 홍성사, 2009.
역사와 함께 하는 말씀묵상, 김동훈, 비전북, 2004.
일년일독 통독성경, 조병호, 통독원, 2009.
단박드라마, 윤계한, 크리스천리더, 2009.
목사의 p.d 수첩(신약), 이병삼, 영문, 2008.
주의 은혜, 맥스 루케이도, 정성묵역, 가치창조, 2008.
하나님 큰일났습니다, 김홍근, 크리스챤서적, 2008.
그리스도인의 땅밟기 기도, 스티브 호돈&그래함 켄드릭, 최요한역, 예수전도단, 2008.
기독교 학교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제임스 브랠리, 한국 기독교 교육진흥원역, cup, 2006.
광야를 지나는 법, 도널드 맥컬로우, 안정임역, 도마의 길, 2008.

예수와 복음서, 크레이그 블룸버그, 김경식역, CLC, 2008.

레토릭설교, 존캐릭, 조호진역, 솔로몬, 2008.

전투기도, 피터와그너, 홍성철역, 은혜출판사, 2008.

초기한국교회100선, 김수진, 한국장로교출판사, 2009.

창조과학콘서트, 이재만, 두란노, 2006.

이민신학, 오성철, 쿰란, 2008.

성령이 이끄시는 설교, 그렉 하이슬러, 홍성철역, 베다니출판사, 2008.

내년을 더 젊게 사는 연령혁명, Crowley & Lodge, 홍혜걸역,
매일경제신문사, 2006.

울림, 조현, 시작, 2008.

예수없는 예수교회, 한완상, 김영사, 2008.

신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김세윤, 성서유니온선교회, 2008.

만나고 싶은 예수, 릭워렌, 윤종석역, 두란노, 2008.

한반도 대 부흥, 옥성득, 홍성사, 2009.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문희곤, 예수전도단, 2009.

이현주의 생각대로 성경읽기, 이현주, 자리, 2008.

25일 히브리어산책, 김창대, 브니엘, 2008.

사순절에 읽는 예수님의 생애, 윌리엄 바클레이, 양길영역, 쿰란, 2009.

세상의 모든 지식, 김흥식, 서해문집, 2007.

슬로 라이프, 쓰지 신이치, 김향, 디자인 하우스, 2005.

무의식의 하나님-심리치료학과 신학의 만남, 빅터 프랭클린, 임헌만역,
그리심, 2004.

이덕주 교수가 쉽게 쓴 한국 교회 이야기 - 에피소드로 이해하는 한국

교회가 걸어온 길, 이덕주, 신앙과 지성사, 2009.

대한민국사 1945-2008, 임영태, 출판사 들녘, 2008.

하나되는 기쁨, 최희열, 예영커뮤티케이션, 2005.

기후창조자, 팀 플래너리, 이한중역, 황금나침반, 2006.

기독교 교육학 사전, 마이클 안토니, 최창국역, 기독교 문서선교회, 2010.

미친 기후를 이해하는 짧지만 충분한 보고서, 슈테판 람슈토르프. 한스 요아힘 셸른 후버, 한윤진역, 도솔, 2007.

회의적 환경주의자, 비외른 롬보르, 번역: 홍욱희 외, 에코리보르, 2009.

쿨잇, 비외른 롬보르, 김기용역, 살림출판사, 2008.

기후 커넥션, 로이 스펜서, 이순희역, 비아북, 2008.

데드라인에 선 기후, 프레드 피어스, 김혜원역, 에코리브르, 2009.

밥하면서 보는 복음서의 유대적 배경, 장재일, 쿰란, 2009.

상처입은 치유자, 나우웬, 최원준역, 두란노, 1999.

아미시 그레이스, 도널드 크레이빌, 스티븐 놀트, 데이비드 위버 제커, 김재일역, 뉴스앤조이, 2009.

현대를 위한 구약윤리, 크리스토퍼 라이트, 김재영역,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2006.

새로운 자본주의에 도전하라, 전병길. 고영, 공동체 자본주의, 2009.

결혼설명서, 조현삼, 생명의 말씀사, 2009.

엄마를 부탁해, 신경숙, 창비, 2008.

어머니를 돌보며-딸의 기나긴 작별인사, 버지니아 스템 오언스, 유자화역, 출판사 부키, 2009.

예수님 가방 속 설득 매뉴얼, 마이클 지가렐리, 마영례역, 어부의 그물,

2009.
내가 틀렸었다, 짐 베커, 김재일역, 지혜의 일곱기둥, 2009.
단순하고 소박한 삶 : 아미쉬로부터 배운다, 임세근, 리수, 2009.
요한의 예수환상곡 G장조, 조정칠, 예영, 2009.
옹신론(瓮神論), 조정칠, 예영, 2009.
코메리칸 자녀교육, 권상길, 예영, 2009.
위험한 심리학 - 천 가지 표정 뒤에 숨은 만 가지 본심 읽기, 송형석,
청림출판, 2009.
맛있는 성경이야기, 유재덕, 강같은 평화, 2009.
사별의 슬픔에 잠긴 이들에게, 노만 빈센트 필, 민경완 역,
한국기독교연구소, 1998.
동양적 그리스도교 영성, 토마스 G. 핸드, 이희정 역, 한국기독교연구소,
2004.
자유의 묵상 영성의 회복, 작자 미상, 임하윤 역, 한국기독교연구소, 2006.
나는 믿나이다, 윌리엄 슬로언 코핀, 최순님 역, 한국기독교연구소, 2007.
예수의 평화 영성, 존 디어, 김준우 역, 한국기독교연구소, 2008.
역사순 통성경, 조병호, 라이프북, 2009.
성경고유명사사전, 박재억, 라이프북, 2009.
기독교 세상의 함정에 빠지다, 박순용, 부흥과 개혁사, 2009.
엄마가 희망입니다, 김영봉, 포이에마, 2009.
역사로 읽는 성서, 베르너 켈러, 조원영. 장병조역, 중앙북스, 2009
이 사람을 보라: 본 회퍼의 삶과 철학, 강성모, 나눔사, 2006.
엄마되기-아프거나 미치거나,백소영, 대한 기독교서회, 2009.

우리의 꿈이 의롭기 위하여, 백소영, 대한 기독교서회, 2005.

직장인을 위한 영어회화 무작정 따라하기, 차형석, 길벗이지톡, 2009.

신사참배와 맞섬의 신앙, 이정호, 누름돌, 2010.

이상 총 129권의 도서를 구입하여 읽었는데 이러한 목록과 도서 독본을 통해 분석한 도서성향은 신학과 역사 그리고 경제 등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서적에 집중되어 있고 일반서적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과 다독은 가능했지만 심도있는 독서가 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러한 독서를 위해 도서들을 검토하고 선정하며 출판계의 흐름과 중요한 도서들을 통해 성도들과 교회의 관심을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목회자의 도서를 교인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교회 내에 도서관을 시작하였는데 6 년 만에 약 4000 종의 도서와 자료를 갖추어 지역내의 이민자들에게까지 도서를 대출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았다.

2)지역사회에 보다 힘있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

우리 교회에 형성된 신앙의 정체성은 성경 공부를 통하여 평신도에게 자신의 눈으로 일정한 성경의 메시지를 찾아내게 되었으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성경 공부반에 스스로 등록하여 공부할 뿐 아니라 새 신자들이 교회에 적응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소그룹 성경공부의 확대로 지역사회나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게 되었고 자원자 그룹을 형성하게 되어 교회의 인력이 필요한 곳에 배치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예로 일주일에 자원봉사 할 수 있는 날짜와 시간을 적어놓아서 이러한 봉사자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봉사는

자아실현과 나아가 신앙의 새로운 욕구를 창출하는 Feed Back 효과까지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본 교회의 인력의 활용은 지역사회 내에서 본 교회의 인식을 높임으로 전도에도 도움이 되었고 교회의 이미지 개선에도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단지 ‘교회의 지역사회 활동을 어느 수준에까지 확대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대두되었다.

3)셋째로 목회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한계도 분명히 하게 되었다.

교인들에게 목회자로서 해야 할 우선순위의 사명을 밝히고 이를 우선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 결과 이민 목회자로서 본질에서 벗어나 감당해야 할 부가적인 일들을 많이 덜 수 있었다. 감당해야 자신의 고유 사역에 충실할 수 있었다.

또한 목회자가 하지 않음으로 생긴 공백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의 봉사를 유도하고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시간을 규칙적으로 활용하는 빈도가 높아졌고 목회도 안정적이 되었다.

가족과의 시간도 더 많이 확보하여 쉼과 회복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무리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과로를 예방할 수 있어서 좋았다. 다만 꾸준한 운동은 하지 못했는데 반드시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여전히 가정과 목회가 여전히 양립되는 경우에 여전히 가정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으며 목회자가 나름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이 한인 이민자들에게는 조금은 인간적인 면이 결여된 듯한 인상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겉으로 알려지고 발표되어야 할 원칙과 목회자 스스로 지키며 수행해야 할 원칙을 구분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제 8 장 결론

이민자로 산다는 것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누리는 것과 동시에 낯설고 이질적인 문화와 언어의 도전을 극복해야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민자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신앙이 이러한 환경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신앙이 현실과 연결성과 영향력을 상실하게 될 때, 여러가지 모습이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신앙은 예배의 형식이나 전통을 강조하게 된다.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 보다 현실에 안주하게 된다. 신앙의 내용은 추상적으로 변한다. 현실의 어려움에 대한 반작용으로 비현실적이 되고 기복적 모습을 가지게 된다. 기득권 층이 생겨나고 갈등과 문제가 생겨난다.

한인 이민공동체는 기독교신앙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이민초기부터 현재까지 교회는 이민사회의 보이지 않는 구심점이었고 기독교신앙은 이민자의 마음의 위안처이고 소망의 원동력이었다. 이제 이민 백 주년을 지나면서 기독교 신앙이 보다 성숙되고 신앙과 삶의 구심점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런 저런 갈등과 아픔도 있지만 이민교회는 이민자의 삶을 아우르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특별히 이민 2 세들에 대한 교회와 공동체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인 이민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1 세대 이후 세대들, 특별히 젊은이들에 대한 신앙적 접근에 대해 고민하면서 영성을 그 핵심 단어로 선택하였다. 영성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가장 잘 설명하고 보여주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먼저는 성서적으로 영성의 바른 특징에 대해 찾아보았다. 구약으로부터 신약교회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영성의 특징으로 현실성, 공동체성, 그리고 실천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서적 영성의 특성을 중심에 두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영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신학적인 모습을 살펴보았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성서적 영성의 전통을 지키고 발전시킨 면도 있지만 정치적인 현실과 타협하며 변형되고 현실의 요구에 의해 왜곡된 면도 많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영성은 기독교의 전래과정과 근대화의 과정에서 현실과 한국 전통문화와 상호적인 영향을 주고 받음으로 독특한 한국적 영성을 형성해 오고 있다.

한국적 영성은 1 세 이민자들의 영성이기도 하다. 이민 1 세대는 새로운 환경에 정착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제적인 문제, 언어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로 이민교회의 영성은 현실적으로 배타적이고 기복적인 면에 많은 관심을 둘 수 밖에 없다. 또한 이민 교회는 1 세대가 주류사회에서 느끼는 소외감과 불만족을 채우는 장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민교회의 현실은 한인사회가 주류사회와 관계를 확대하기보다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공동체로, 새로운 세대를 양육하고 지원하기보다 단절을 자초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1 세대의 이러한 영성의 부정적 모습은 이민 2 세와 젊은이들의 문화적 배경과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쉽게 동화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민 청년들은 부모세대와 언어와 문화적 환경이 다르다. 사회적 가치도 다르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다르다. 그래도 2 세 청년들이 1 세대와 공감할 수 있는 연결점이 있다면 가정과 교회와 사회이다.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서로 더 공감대의 폭을 넓혀야 한다. 사회적 참여와 실천을 통해서 1 세대가 마음에 품고 있던 영성의 중심가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한인 이민 2 세와 젊은 세대가 신앙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모든 프로그램은 현실성, 실천성, 그리고 연대성의 특성을 가져야 했다. 사회적 관심사과 지역적 관심사에 기독인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했다. 젊은이들의 관심사가 교회에서 반영되어 실시되도록 했다. 가정에서 부모세대의 다른 점을 신앙적으로 이해해 보도록 했다. 이민 1 세대와 이후 세대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야 한다. 삶에서 일어나는 주제를 통해 접촉점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은 결과와 변화들이 있다. 작은 공동체에서 일어난 변화이지만 2 세나 젊은이들의 보편성을 반영하고 있기에 전체 공동체에 유익한 결과라고 믿는다.

2 세나 젊은이들은 자연스럽게 현실적이고 실천적 영성을 받아들였다. 이는 미국사회에 보편화되어 있는 신앙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참여와 실천을 통해 신앙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증대는 젊은층과 2 세들에게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후발 이민자로서 높은 부모의 기대를 다 만족시킬 수 없는데서 오는 갈등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에 대한 뿌리로서의 지역사회를 재 발견하게 되었다. 또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에서 부모세대와 신앙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해의 폭을 넓혔고 언어와 문화적 갈등요소들을 극복할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

연대를 통한 신앙과 삶의 지평의 확대가 이루어 졌다.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한 소통의 확대는 새로운 만남과 연대의 가능성을 무한으로 확대하였다. 전 미국의 이민자들이 함께 소통하고 인종과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는 만남이 가능해 졌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연대와 소통은 젊은이와 2 세들에게 보다 넓은

차원의 삶의 영역을 제공할 뿐 아니라 신앙적 가능성을 제공했다. 타인종과의 연합예배, 지역사회와의 연대, 그리고 동일한 관심에 대한 연대는 시공을 뛰어넘은 새로운 신앙적 공동체의 가능성을 제공했다. 젊은이들은 개인적 차원만이 아니라 교회적 차원에서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로 구체화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러한 연대는 소수의 목소리를 구체화하고 힘있게 만든다. 현실에 반영될 수 한다. 신앙은 절대로 현실과 분리될 수 없다. 연대는 신앙을 현실화하는 힘의 원천이다.

마지막으로 한인 2 세와 젊은 세대가 건강한 영성의 삶을 살기 위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제언으로 본 논문을 마무리하고 한다.

첫째로 과감한 리더십의 변화가 필요하다. 교회와 한인 사회에 2 세와 젊은이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하고 그들의 리더십을 확대해야 한다. 10 년 후를 내다본다면 2 세와 젊은이들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하고 교회와 이민 공동체의 주도적 그룹으로 성정해야 한다. 언어적인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 관심에 있어서도 젊은 세대는 1 세대보다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있고 주류사회와 연결도 쉽다. 또한 1 세대의 필요보다 2 세들과 청년들의 관심이 교회에서 반영되고 그들의 필요가 교회에서 채워지도록 목회적 관심과 변화가 필요하다.

2 세들간의 연대에 대해 교회와 한인 이민공동체가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민 2 세기를 시작하면서 교육, 정치, 경제, 문화계 각 방면에서 2 세들이 자신들의 위치를 확립해 가고 있다. 이러한 2 세들을 지원하고 필요한 인력과 관심이 연대되도록 교회와 이민사회가 노력해야 한다. 또한 뿌리로서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고 연관되기 위한 관심도 더 필요하다.

이민 2 세기를 맞이하면서 이민교회와 공동체가 미국의 주류사회에 당당한 축으로 자리매김하여 이제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에 긍정적인 영향과 상호협력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성서적이고 시대적인 영성의 모습을 회복하여 시대적 사명과 사회적 사명을 감당하는 젊은 이민자와 이민 2 세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글을 마친다.

참고문헌(Bibliography)

A. 외국서적

Kim, Hye Sun *Meditations for Korean-American Families*. Nashville: Abingdon Press, 1998

Kohut, Heinz. *The Restoration of the self.* Madison: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81.

________. *How Does Analysis Cure?*.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Runyon, Theodore. "*The New Creation" John Wesley's Theology Today.* Nashville: Abingdon Press, 1998.

Thompson, William M. *The Jesus Debate: A Survey and Synthesis.* New York: Poulist, 1985.

Westerhoff III, John H.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Church Pub Inc, 2000.

B. 번역서적

Baldridge, J. Victor. *사회학.* 이효재 장하진 공역, 서울: 경문사, 1982.

Beker, J. Christian *바울의 묵시사상적 복음*, 장상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2.

Borg, Marcus J. *새로 만난 하나님*. 한인철역,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01.

Carney, Glandion & Long, William . *예수 영성.* 엄성옥역, 서울: 도서출판 은성, 1999.

Chong, Hyun Kyung. *다시 태양이 되기 위하여*. 박재순역, 서울: 분도출판사 1994.

Cox, Harvey. *영성 음악 여성*. 유지황역, 서울: 동연, 1998.

Croatto, J. Severino. *엑소더스.* 이정순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5.

Cully, I.V. *영적 생활을 위한 교육.* 오성춘 이기문 류영모 공역, 서울: 예장총회교육부, 1986.

Daly, Mary. *교회와 제 2의 성.* 황혜숙역, 서울: 여성신문사, 1997.

Dear, John S.J. *예수의 평화영성*. 김준우역,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00.

Dever, Mark. *십자가를 설교하라.* 이심주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9.

Donavan, Josephin. *페미니즘 이론*. 김익두 이월령 공역, 서울: 문예출판사, 1998.

Dupre, Louis & Saliers, Don E. *기독교 영성 3*. 엄성옥.지인성역, 서울: 은성출판사, 2001.

Elias, John L. *의식화와 탈학교화*. 은준관 김태원역, 현대사상사, 1984.

Engels, Friedrich.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김대웅역, 서울: 아침, 1997.

Freire, Paulo. *교육과 정치의식*. 한준상역, 한국학술정보, 2003.

________. *페다고지*. 성찬성역. 광주: 광주출판사, 1986.

Freire, Paulo. & Betto, Frei. *인생이 학교다*. 김종민역, 서울: 분도출판사, 1988.

Glemmon, Lynda M. *여성과 이원론*. 이수자역, 서울: 이화여대 출판부, 1990.

Hand, Thomas G. *동양적 그리스도교 영성*. 이희정역,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04.

Haughey, John C. *정의를 실천하는 신앙*. 성염역, 서울: 분도출판사, 1980.

Hock, Ronald F. 바울선교의 사회적 상황. 전경연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Homes, Urban T. *목회와 영성*. 김외식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Huntington, Samuel. *문명의 충돌*. 이회재역, 서울: 김영사, 1999.

Kee, Howard Clark. *그리스도교 기원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서중석 김명수 공역, 서울: 기독교출판사, 1984.

Lohse, Eduard. *신약성서 배경사*. 박창건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Mies, Maria & Shiva, Vandana. *에코 페미니즘*. 손덕수 이난아 공역, 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0.

Moltmann Jürgen. *본훼퍼의 사회윤리* . 김균진 역,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93.

Newel, Philip. *켈트 영성 이야기*. 정미현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Peters, Ton, *21세기 꿈의 통신 서비스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정보화사회시리즈 27,* 노부호외 5인 역,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4.

Retoret, Kenis. *기독교사*. 윤두혁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3.

Rifkin, Jeremy. *노동의 종말*. 이영호역, 서울: 민음사, 2001.

Robinson, L. Georg. *메시야 이전의 열두선지자*. 김남준역, 서울: 도서출판 겨자씨, 1991.

Shepherd, Mash H. *예전학*. 정철범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Sölle, Dorothee. *사랑과 노동*. 박재순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8.

Sölle, Dorothee &. Schottroff, Luise.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정용섭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9.

Tillich, Pual. *그리스도교 사상사*., 송기득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3.

Willard, Dallas. *영성 훈련*. 엄성옥역, 서울: 은성, 1993.

영성과 목회 넬슨 떼이어, 백상열역, 대한기독교출판사, 1989.

C. 국내 서적

강근환. *종교개혁시대의 영성과 기독교 영성*.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85.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강희천. *기독교교육사*상.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1.

권상길. *디아스포라 2세 교육목회*.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9.

________. *코메리칸 가정교육.*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9.

기독교 역사문화 연구소. *한국의 기독교.* 서울: 겹보기, 2001.

김경재. *영성 신학 서설.*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5.

________. *종교 다원 시대의 기독교 영성.* 서울: 다산글방, 1992.

김상일. *동학과 신서학.* 서울: 지식산업사, 2000.

김성재편. *밀레니엄과 종말론.*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9.

________. *분단현실과 기독교 민중교육.* 서울: 민중교육 한국신학연구소, 1988.

________. *성령과 영성.*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9.

김중기. *삶에 적용하는 구약.* 서울: 두란노, 2009.

김홍기. *존 웨슬리의 경*제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김희성. *부활 신앙으로 본 신약의 성령론.*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2000.

류기종. *대화의 신학.* 서울: 은성, 2000.

________. *예수의 영성.* 서울: KMC, 2009.

________. *팔복의 영성.* 서울: KMC, 2009.

________. *주기도문의 영성.* 서울: KMC, 2009.

문동환. *인간 해방과 기독교 교육.* 서울: 한신대학출판부, 1991.

문석호. *한국 교회와 공동체 운동.* 서울: 줄과 추, 1998.

민경배. *영성의 역사적 뿌리.* 서울: 연세대출판사, 1985.

________. *미국 속의 한국인*. 서울: 유림문화사, 1991.

민병갑, *미국의 소수민.* 서울: 가나안 인쇄소, 1990.

박대인. *초대와 중세의 영성생활*. 서울: 연세대출판부, 1985.

방지형. *기초 예배학*. 서울: 성광문화사, 1995.

서인석. *하나님의 정의와 분노-예언자 아모스*. 서울: 분도출판사, 1982.

송 복. *21 세기 사회와 공동체 생활문화.*

서울: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삼성건설(주), 1995.

송인규. *아는만큼 깊어지는 신앙.* 서울: 홍성사, 2009.

안병무편. *사회학적 성서해석.*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엄세천. *영성생활.* 서울: 기독교 한국 연수원 출판부, 1986.

오성춘. *영성과 목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 출판부, 1997.

윤정로. *과학기술과 한국 사회*.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0.

은준관. *기독교교육 현장론*.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이정배. *선한 벗들과 함께 신학하기*. 서울: 한들출판사, 2000.

________. *신학의 생명화 신학의 영성화*.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99.

________. *하나님의 영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서울: 한들출판사, 1998.

이정순. *영성과 실천.* 서울: 민들레책방, 2004.

임세근. *단순하고 소박한 삶-아미쉬로부터 배운다.* 서울: 리수, 2009.

임양택. *생명 공동체 교육과 노인의 희망*. 서울: 쿰란 출판사, 1998.

장병림. *청년심리학*. 서울: 법문사, 1980.

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종로서적, 1994.

정웅섭. *기독교교육개설*. 서울: 대학기독교교육협회, 1990.

지원용. *루터와 종교개혁*. 서울: 컨콜디아사, 1965.

한국여성신학회편. *영성과 여성신학*.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99.

황경락. *샬롬2 미주 이민교회 관계 신문.잡지 자료철.* 뉴욕: 빛과 소금 선교회 출판, 1992.

황두용. *지성에서 영성으로*. 서울: 대장간, 2001.

최봉기.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는 길*.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9.

최봉영.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느티나무, 1996.

한국기독교학회. 한국교회와 영성. 서울: 강남출판사, 1989.

________. *교회와 코이노니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협성신학교연구소. *기독교 신학과 영성*. 서울: 솔로몬, 1995.

D. 저널 및 학술지

Meyer, John and Brian Rowan. "Institutional Organizations: Formal Structure and Myth and Ceremon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977

황현숙. "이웃 사랑의 계명과 디아코니아", *기독교 사상* 통권 417 호(September, 1993): 10-17.

E. 학위논문

김대연, "교회교육이 청소년 윤리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대전 침례교 신학대학, 1995

오경숙, "자아정체성 형성을 위한 교회의 청소년 교육에 관한 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장로회 신학대학교 대학원, 1997년

F. 웹사이트

김경재. *포스트모던 시대와 열린영성.* www.religionstheology.org

김경재. *새로이 다가오는 영성의 시대.* ifp.or.kr/academy./religion

소광섭. *현대과학과 생활.* www.religionstheology.org

한내창. *정보화사회와 종교.* www.religionstheology.org

Tarrytown Homepage http://en.wikipedia.org/wiki/Tarrytown,_New_York

국가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is.kr/

침례신문사 홈페이지 http://befor.bpnews.co.kr

G. 사전류

인터넷 위키페디아 http://en.wikipedia.org

H. 신문류

2003 년 1 월 3 일자 크리스천 투데이

2007년 9월 5일자 미주 뉴스앤 조이

2008년 10월 2일 미주 중앙일보